M 45-116 | 2010. 4 |

제 116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10. 4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익수 부연구위원 iksuinje@krei.re.kr TEL 02-3299-4349 / FAX 02-962-7312
민자혜 연 구 원 jhmin@krei.re.kr TEL 02-3299-4190

목 차

농업 · 농정 동향

3 일본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Ⅰ)

21 중국의 백합 산업 동향

33 브라질 닭고기산업의 현황과 전망

47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 (Ⅱ)

세계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

65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10. 4)

73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10. 4)

85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10. 4)

세계 농업 브리핑

101 세계 농업 브리핑 (2010. 4)

113 주요 외신 동향 (2010. 4)

세계 농업 통계

123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125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농업·농정 동향

일본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Ⅰ)
중국의 백합 산업 동향
브라질 닭고기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Ⅱ)

일본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Ⅰ)*

장 재 봉 · 백 선 혜

1. 머리말

국가전략으로서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대폭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21세기를 대비한 일본 농정의 기본 지침인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이하 「기본법」)이 1999년 7월에 제정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기본법이 표방한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두 번에 걸쳐 책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식량·농업·농촌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다양화하는 소비자 기호와 농식품산업 주변의 여건 속에서 기본계획에 근거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신선 농산물과 다양하고 고품질의 식품이 적정 가격으로 소비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의 노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타 산업보다 높은 소득을 얻는 농업인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뚜렷한 사계절 속에서 제철 농산물과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나아가 식생활문화 자체를 재평가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업·농촌은 농업소득의 대폭적인 감소, 영농후계 인력의 부족, 비효율적인 농지이용, 농산어촌 활력 저하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농정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

* 본 내용은 일본 농무성이 발표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재봉 부연구위원과 서울대학교 백선혜가 작성하였다(jbchang@krei.re.kr, 02-3299-4140, back1514 @paran.com).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 온 쌀 생산조정은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주어, 보리나 대두 등 타 작물로의 생산전환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일본의 국내 농업은 소비자와 식품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식량자급률은 2008년도의 공급열량 기준 41%밖에 이르지 못했다. 기타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투자한 결과, 식량자급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의 공급열량 기준 미국의 식량자급률은 128%이며 영국은 70%에 달하였다.

한편 개도국에서는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자원과 식량에 대한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이 증가하는 등, 농산물의 용도도 다양화되고 있어, 농산물의 국제적인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농지가 감소하고 농업 수출국들은 수출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개도국들의 빈곤층의 기아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식량 순수입국인 일본은 아직까지 「경제력만 있으면 자유롭게 식량을 수입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국토에서 1억 2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일본으로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의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의 농정을 되돌아 보고, 이제부터 식량·농업·농촌정책을 일본의 국가전략의 하나로서 인식하여 대폭적인 정책전환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농업·농촌에는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국내의 제한된 농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한 안전하고 질 높은 농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 판매한다면,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전세계 식량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농식품산업이 축적해온 고부가가치 생산기술·바이오매스·환경 등의 선진기술과 지역의 미개발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은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의 장으로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환경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농업·농촌은 청정한 수질과 공기 보존을 통한 생물학적 다양성, 수원의 함양, 아름다운 경관 유지, 전통 문화 계승 등의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활성화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문화, 어린이들에게 인성을 토양이 된다. 일본 사회가 성숙해지고 사람들의 가치관·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서 농업이 유발하는 다원적 기능은 도시민들을 포함하여 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의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국토가 좁고, 그 중 약 70%를 산림지역이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하여 농업 효율화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침투와 과잉 생산 등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산간지역 등의 조건 불리 지역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농업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식량자급률이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국가 기반으로서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업·농촌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는 시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국가 기반으로 인식하여 다음 세대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국산 농산물에 담겨진 농업·농촌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등의 행동이 필수적이다. 또, 이러한 국민적 이해와 행동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식품산업 종사자들은 질 높은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힘이 된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개념을 정책 이념으로 연계시켜 국민 각계 각층의 주체적이고 지속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미래에도 국민이 풍부한 먹거리와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농업인과 식품산업 종사자 모두가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생산 활동에 열중할 수 있는 「국민 전체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사회」 창조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기존의 사고와 정책 수단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농업·농촌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호별소득 보상제도의 도입,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안전·안심」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춘 생산체제의 전환, 6차산업화에 의한 활력 있는 농산어촌의 재생을 기본으로, 제반시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체계로 농정을 대전환시켜 「식(食)」과 「지역」의 빠른 재생을 도모해야 한다.

식량·농업·농촌에 관한 시책은 국민생활과 일본 사회 본연의 자세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식량·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은 국민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본 기본계획을 농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일본의 경제, 환경, 전통문화 등을 포함한 국민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다음, 제반시책을 관계부처와의 연대 하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덧붙여, 본 기본계획은 식량·농업·농촌에 관한 각종 정책 시행의 기본이 되므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수립하였으나 식량·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및 시책의 효과에 관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2. 식량,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

본 기본계획에 근거해 정책체계를 재구축함에 있어서 식량·농업·농촌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의 정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시책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리하기로 한다.

식량,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상황을 바탕으로 한 정책 대응방향

1) 생산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

농업은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 일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업은 공기·물·토양 보전, 국토와 자연환경 보전, 재해방지라는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역할과 기능은 전 국민에게 대가없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15년간 판매 농가수가 약 30% 감소하고 농업소득(농업순생산)은 거의 반감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반해 생산비용인 자재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현저하게 악화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그 결과 농업 생산의 지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식량자급률 향상과 다원적 기능의 제공이라는 농업의 역할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식량자급률 향상과 다원적 기능은 전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농업생산물의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겸업농가와 소규모 영농을 포함한 의욕 있는 모든 농업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여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농업경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농업은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공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다양한 용도·수요에 대응해 생산 확대와 고부가가치 정책으로의 전환

지금까지는 수요 감소에 대해서는 생산 억제를 통해서 대응을 한 반면, 수요의 증가에 대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식량자급률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간작물인 쌀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수차례 생산 과잉을 경험하였고, 경제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 영향을 받아 가격 하락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생산 면에서의 비용 절감 노력이 상쇄되어, 농업소득은 대체로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빠져 있다.

채소는 외식 문화 확대로 인해 신선채소보다 가공용 소비가 증가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수입량 증가로 인해 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다. 낙농 분야에서도 우유나 버터·탈지분유 등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치즈는 국내외 가격차가 커서 국내 생산보다 수입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경영의 체질 강화를 도모하면서 농산물을 용도·수요별로 맞춤 지원하고, 다양한 용도·수요에 대응한 생산 확대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해 왔으나, 농가를 이용한 민박, 레스토랑 등의 경영 다각화·고도화를 진행시키는 대책, 또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바이오매스 등의 미사용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려는 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고려되거나 정비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앞으로는 농업경영의 체질 강화를 도모하면서 농산물을 용도·수요별로 맞춤 지원하고, 다양한 용도·수요에 대응한 생산 확대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이 소비자와 기타 실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생산·가공·판매 단계의 일체화 등의 경영 다각화·고도화를 실시하는 대책을 촉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1차 산업과 2차·3차 관련 산업 복합화를 통해 지역 비즈니스 전개와 수직계열화를 장려하는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한다.

3) 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인을 육성·확보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호별 소득 보상제도의 도입과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책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머지않아 쇼와(昭和) 한 자리수 세대로 불리는 고령 농업인들이 은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업의 미래를 담당해야 할 농업 경영자의 육성은 늦어지고 있어 신규 취농자 수도 적고, 후계자 확보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시책은 「바람직한 농업 구조의 실현」을 목표로 인증농업인과 취락영농의 육성, 논·밭농사 경영소득 안정대책의 도입 등을 지향해 왔으나, 이러한 시책은 일본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를 서두른 나머지, 일부 농업인만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농산물 가격의 디플레 현상 속에서 일부 농업인에게 집중하여 규모 확대를 도모하는 것만으로는 농업소득 안정화로 연계되어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산 현장에 있어 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인을 폭넓게 지원할 수 없고, 지역농업 후계자를 육성한다는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호별 소득 보상제도의 도입과 농업·농촌 6차 산업화의 추진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육성하는 동시에, 적지적작(適地適作)을 원칙으로 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책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대규모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농업인도, 규모가 작더라도 가공이나 판매에 중점을 두어 특색 있는 경영을 전개하는 농업인도, 각자의 창의성을 살리면서 영농을 지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여 다양한 노력·대책을 지원하는 시책을 전개해 가기로 한다. 또한 여성이나 고령인의 역할이 적절히 발휘되도록 필요한 조건정비를 도모해 가기로 한다.

또한, 농업 참가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던 농지제도에 대해서는 2009년 농지법

을 개정해, 지역과 조화를 이룬 적정한 농지이용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농업인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추진하기로 한다.

4) 우수 농지 확보와 효율적 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의 확립

농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므로 국민의 귀중한 재산으로서 마땅히 보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의 쇠퇴와 함께 농지 면적의 감소가 지속되어 생산과 연계되지 못하는 휴경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지이용률이 저하되는 동시에, 후계농업인에 대한 농지의 집적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해, 농지의 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농지 전용 규제의 엄격화, 우량 농지 확보, 부작부지 해소, 경지이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농지전용허가제도, 휴경지 해소를 위한 시책과 후계자에 대한 농지 이용 집적의 촉진 등과 같은 정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농지가격은 인근 주택지나 상공업지 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항상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유인을 제공하였으며, 농용지 구역 등 농업생산 만을 위해 이용해야 할 농지에 대해서도 제도상 전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특히 학교나 병원 등 공공목적의 전용은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농지 전용 수입을 기대하는 농지 소유자와 사업자, 시설용지를 더 확보하려는 공공기관 등의 이해가 일치하여, 우량농지의 전용이 빈번하였다.

또, 유휴농지는 인수의향을 가진 수요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의 정책과 제도 내에서는 후계 영농인에게 연결되지 못했다. 농지이용에 있어서는, 영농후계자로의 이용 집적이 서서히 진행되어 왔지만 경영하는 농지가 분산되어 버려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이 없는 등의 요인에 의해 농지의 유동화가 진행되지 않고, 효율적인 이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농업생산조건 제약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의 유효 이용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발생했다. 또한 농지의 유효 이용을 위해 불가결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업 수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장래의 시설 기능 발휘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엄격한 농지 전용 규제와 유휴농지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 등으로 우량 농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농지를 경작하는 다양한 농업인의 확보와 작부확대를 통하여 부작부지 해소, 경지이용률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도록 한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농지의 양적인 확보와 함께 농지와 농업용수 등의 정비·보전 관리를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수요에 따라 농지 배수 대책, 수리시설 보수나 갱신 등 필요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앞으로도 추진하기로 한다.

5) 활력 있는 농산어촌 재생을 위한 시책 종합화

신산업의 육성, 교류 촉진, 농산어촌의 유지·재생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풍요로움과 활력을 되찾도록 한다.

일본의 농산어촌에서는 과소화(過疎化),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림수산업이 정체됨으로써 취업기회가 감소하여 도시지역보다 어려운 고용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쇼핑, 의료, 교통 등의 확보가 불충분한 지역이나 취락 유지가 곤란하게 된 지역도 광범위하게 나타나 지역의 활력이 한층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시책에서는 농림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비롯해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촉진, 중산간지역 등에 있어서의 농업 생산조건 불리를 보정하기 위한 조치 등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농산어촌 대책은 본래 농림수산업뿐만 아니라 제2·3차 산업, 각종 인프라와의 연계 등 관계부처의 관련 분야를 포함한 시책을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관계부처의 협의 하에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이러한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농산어촌 및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기획·입안 및 추진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성이 그 임무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농산어촌의 이상적인 모델을 수립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 다음,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 관광업과의 연계를 통한 교류촉진, 농산어촌 커뮤니티의 유지·재생이라는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산어촌과 중산간지역 등의 발전과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6)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실현을 위한 정책 확립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품질과 안전성 강화·신뢰 확보라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체제로 전환한다.

쌀 소비감소 등 국민식생활의 변화와 생산 감소에 따라 식량자급률 저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의 기본계획에서는 2015년도의 공급열량 기준 식량자급률을 45%로 설정하는 등, 소비와 생산 대책을 독립적으로 실행해 왔다.

생산측면의 대책으로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직접적인 목표로 내세운 생산 확대 대책으로서, 쌀 생산조정과 관련하여 보리, 대두 등으로의 생산을 장려해왔다. 그러나 생산조정을 달성한 사람에게만 보조금과 경영소득안정 조치를 시행하여 보리나 대두 등으로의 작부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에 따른 생산 확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한편 소비측면의 대책으로서 식육운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침밥 먹기나 식량자급률 높이기 국민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식량자급률 증가를 위한 국민의 이해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 의식은 대체로 높지만 농식품 생산의 원천으로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범국민적 가치관을 넓게

공유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세대 간에 계승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먹거리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식품 안정성에 관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기업 투명성 제고와 식품안전성 향상을 포함한 푸드 체인(식품공급 행정)관리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률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품질」과 「안전성 강화·신뢰 확보」라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한다.

또한 수입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강화,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먹거리 사고 예방 철저를 기본으로, 국산 농림수산물과 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시책·조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푸드 체인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대책 강화 등을 통하여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농식품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의 확보를 동시에 도모해 가기로 한다.

새로운 조류에 대응한 가능성의 추구

세계경제 변화,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문제, 세계화와 제반 문제 발생, 사람들의 가치관·라이프스타일 다양화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에 요구되는 역할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신흥국의 현저한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한편, 선진국에서는 경제침체가 장기화되어 자원·에너지, 식량의 세계적인 쟁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구 환경문제,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인류 공통의 새로운 과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계속 증가해 전체노동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가운데, 임금 침체, 고용 감소 등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사람들의 가치관·라이프스타일이 환경 배려나 여가활동 중시 등의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어 일본의 농업·농촌에 요구되는 역할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1) 세계경제 속에서 신흥국의 대두

최근 일본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현저한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화, IT화가 이러한 움직임을 한층 가속시키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부족할 것이 염려되는 자원, 에너지, 그리고 식량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국제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저출산·고령화 하에서 국내 시장이 축소될 경향이 보이는 반면, 아시아 국가 등 신흥국 시장은 질적·양적으로도 확대·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자원·에너지·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통해 빈곤국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가기로 한다. 또한 아

시아 등 신흥국과의 관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연대를 모색하여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전략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한편, 상호간의 기술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식량·농업·환경에 관련된 선진적인 과학기술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적절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식품에 대해서는 국내시장 축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기후 풍토, 생활양식, 식습관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함께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 환경문제의 진행

20세기에 있어서 자원낭비를 수반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형태의 경제성장은 온실가스의 배출, 삼림자원의 감소, 환경오염 등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현상, 지하수 감소, 사막화, 대기·토양오염, 생물 종의 감소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21세기에는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의 순환이용 및 환경부하 저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삼림과 농지 토양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수력,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등을 도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농림수산업을 통해 많은 생물에게 귀중한 생식·생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일본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환경을 배려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을 추진하기로 한다. 또 재생가능 에너지의 전력 이용을 비롯한 새로운 대책을 진행시켜 나가기로 한다.

또한,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지식을 국제협력 등을 통해 보급하는 등 국제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가기로 한다.

3) 국경을 넘는 이동 확대와 여러 가지 불안요인 발생

경제사회 세계화로 인해 지역과 국경을 넘어 노동력, 자원·제품, 자금 등이 대규모로 활발히 이동하는 탈국경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상국들의 발전에 수반되는 자원과 식량 소비 증가, 바이오연료 증산 등에 의해 농산물과 비료의 국제수급이 불안정해져 국제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배경으로 식량수출국에서는 자국민의 식량 확보를 위해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개도국의 빈곤층에서의 영양부족 인구가 증가해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공급열량 기준으로 식료의 60%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 있어서 새로운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곡물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식량은 가능한 자국에서 조달한다는 원칙을 최대한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평소에도 비료, 종자 등의 생산자재, 에너지 등의 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식량안전보장 대책을 확립하기로 한다.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나라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국제기관에서 국제기준·규범의 책정이 진행되고 있어, 일본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층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과학적 지식·데이터 등을 제공하여 국제기준 수립에 지속적으로 공헌해 나가기로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과학적 지식·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에 근거한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이러한 조치를 생산자와 식품산업 사업자들이 푸드체인에 확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확대하기로 한다.

4) 일본 경제회복을 위한 모색

2008년 가을에 발발한 리먼 쇼크를 시작으로 한 세계 불황의 영향으로부터 신흥국들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대체로 회복 속도가 늦어 임금은 침체되고,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자원·에너지비용 상승은 경제 위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농림수산업은 기업 등에서 이직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서, 농산어촌은 교육·의료의 장으로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업·농산어촌이 식량공급뿐만 아니라 환경, 고용, 복지, 문화, 커뮤니티 등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21세기 경제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지, 또한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농림수산업·농산어촌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상황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배양해 온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기술, 식량·농업과 환경에 관한 선진기술은, 농산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산업을 창출해 낼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발전과 지역 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5) 국민들의 가치관·라이프스타일 다양화

경제회복 지연과 저출산과 지역이나 가족의 유대감 점점 낮아지고 있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의 평균수명이 80세 정도까지 늘어나 정년 후에 보내는 시간도 이미 여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간이 되었다.

또한 사람들의 가치관·라이프스타일이 여가활동의 중시와 환경 배려라는 형태로 다양해지고 있어 UIJ턴[1], 정년귀농이나 도시와 농촌 두 지역거주 등, 도시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농업·농촌에 적극적으로 관계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확대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 특색 있는 전통 문화, 희귀종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등 농촌에서 농업 생산을 지속함으로써 발휘되는 혜택을 도시주민도 누리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령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고 있는 지역도 있다.

농업·농촌이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실현이라는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그 역할이 적절히 발휘되도록, 농(農)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고, 농업과의 유대를 회복·강화하는 대책을 촉진해 국민전체가 농업·농촌을 지지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다.

정책개혁의 시점

이하와 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정도를 전망하여 계획을 책정해 정책개혁의 방향과 내용, 실현을 위한 대책을 분명히 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상의 새로운 이념에 근거한 정책체계와 주요 시책을 바탕으로, 본 기본계획에서는 지금까지의 농정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나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새로운 발상으로 농정을 대전환하여 식품과 농촌지역의 빠른 재생을 도모하는 정책체계를 재구축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농업·농촌이 완수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국민전체의 이해와 협력 하에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식량·농업·농촌에 관한 각종 시책의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정도를 전망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기간 중에 임해야 할 정책개혁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실현을 위한 대책을 분명히 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아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법제도, 예산, 금융 등 정책수단의 종합적인 검증과 편성을 도모하면서, 기존 시책의 재검토와 새로운 시책 도입을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1) 효과적·효율적이고 알기 쉬운 시책 전개

새로운 정책개혁은 과거의 전례에 구애받지 않고 종래 농정방법을 전환하여 관계부처의 적절한 협력을 도모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유발하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역주: U턴: 대도시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출신지로 되돌아가는 현상, I턴: 도시 출신자가 지방으로 취직·전직(轉職)하는 일, J턴: 지방 출신자가 대도시의 대학을 졸업하고, 출신지 근방의 중소도시 등에 취직하는 일

이를 위해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의 대응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복잡한 정책체계를 재검토하여 간단하고 알기 쉽도록 개선하도록 한다. 농업관계 단체를 경유하거나 활용한 시책은, 해당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경우도 있는 등 지금까지의 시책을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책 본연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이해당사자 이외의 부분에 효과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책이 목표로 한 대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농산어촌 활성화와 농식품산업의 이상적인 미래상 등 관계부처 간 연계나 민관협력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 명확한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이를 관계자가 공유한 다음 종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여 일관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2) 시책대상자가 주체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책 전개

한정된 예산 내에서 민·관과 중앙·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농업인과 농촌지역이 주도적으로 농업경영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취농에 대해 농지제도가 정하고 있는 규제 등 시책 대상자의 주체성 발휘를 저해하는 제도에 대해, 이미 재검토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기 시행을 추진하고, 그 외에는 지역 관계자의 의견과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이러한 대책을 통하여 국가는 최소한의 여건 정비를 실시하면서 의욕 있는 농업인으로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개개인의 대책을 소중히 하는 시책」으로 전환한다.

또한 농업생산기반과 시설 정비는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 지역의 실태에 맞추어 저비용·고효율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도모한다.

3) 국민이해와 구체적 행동을 촉진하는 시책 전개

농업·농촌은 산업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공존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건전한 발전이 지방경제와 문화, 도시의 식(食)과 생활, 국토·환경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국민적 이해와 구체적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미디어나 IT 등을 활용하고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책을 유도하면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 향상과 지역 활성화로 연계되는 대책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이 때 각각의 대책이 지속성을 발휘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소비자, 농업인, 사업자 등이 농업·농촌을 축으로 하여 함께 발전하는, 「농」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연대 축을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이념에 근거한 식량 · 농업 · 농촌정책의 종합적 전개

호별 소득 보상 제도 도입, 소비자 요구에 맞춘 생산체제로 전환, 6차 산업화로 활력 있는 농산어촌의 재생을 기반으로 제반 시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하여 농정을 대전환하는 데 있어 농업·농촌을 재생시킴으로써 이를 일본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아래의 정책을 기본으로 제3에서 제시할 제반시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 2020년까지 공급열량 기준 종합식량자급률 50% 달성을 목표로 한다.

1) 호별 소득 보상 제도의 도입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다원적 기능의 발휘 등 국민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욕 있는 모든 농업인이 앞으로 농업을 계속하여 농업경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호별 소득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2010년부터 실시되는 호별 소득 보상모델 대책에 대해서는 논농업을 대상으로, 쌀을 생산수량목표에 맞춰 생산한 판매농가·취락영농에 대해 표준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표준 판매가격의 차액 분을 지원한다. 아울러, 논을 활용해 식량자급률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해 보리, 대두, 미분용 쌀·사료용 쌀 등의 전략작물 생산에 대해서, 주식용 쌀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호별 소득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실시하기로 한다.

2) 「품질」, 「안전·신뢰」라는 소비자 요구에 맞춘 생산체제로의 전환

최근 식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식품의 안전·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있는 가운데, 「품질」, 「안전·신뢰」라는 소비자 요구에 맞춘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발생 후 처리보다 미리 예방」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국산 농림수산물이나 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시책 추진에 더하여 푸드 체인에 있어서의 대책인 「이력추적제(Traceability) 시스템」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농업 생산 공정 관리(GAP)」 등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 「지산지소(地産地消)」 추진과 함께 국산·수입을 불문하고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푸드 체인에 있어서 대책을 확대함으로써 농식품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식품의 안전에 관한 리스크 평가기관의 기능 강화나, 리스크 관리 기능

의 일원화에 대해 관계부성의 연대 하에 바람직한 체제 구축을 위해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3) 6차 산업화에 의한 활력 있는 농산어촌의 재생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을 재생시키기 위해 의욕 있는 농림어업인을 비롯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업자가 바이오매스나 태양광·수력·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풍경, 그 곳에 사는 사람의 경험·지혜·전통문화에 이르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포함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한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농산어촌 지역에 귀속시켜 농림어업을 다시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지역 내에 고용과 소득을 확보해, 젊은이와 아이가 희망을 가지고 농산어촌에 정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한다. 이를 통하여 화석연료 소비감소,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발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지구환경문제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식량자급률의 목표

식량자급률 목표에 대한 사고방식

세계인구의 증가, 중국과 인도 등에서의 소득수준 향상, 바이오연료 확대 등에 의해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지구온난화 등에 의한 수자원 부족이나 사막화 진행, 세계의 곡물단수 성장 둔화 등에 의한 농산물의 공급 면에서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세계 곡물 수급은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어 식량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일부 식량 수입국이나 다국적기업이 세계 각지의 농지에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2020년도의 종합식량자급률 목표는 공급열량 기준으로 2008년도의 41%를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다.

이러한 국제 환경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좁은 국토에서 1억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추진되는 농정에서는, 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곡물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최대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식량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농촌지역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과소화, 고령화가 멈추지 않고, 이에 겸업 기회도 감소하여 지역의 활력이 더욱 더 저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논을 비롯한 일본의 귀중한 농지 자원이 충분히 활용

되지 않고, 휴경지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해마다 높아져 65세를 이미 넘어선 현재, 세계 식량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전략을 시급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농지·농업용수 등의 자원과 고도의 농업기술,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 소비자 등 모든 관계자가 최대한 노력하여 다양한 돌파구를 찾고, 여러 가지 과제를 극복하여 해결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제1에서 제시한 정책의 방향, 즉 호별 소득 보상 제도의 도입, 「품질」과 「안전·신뢰」라는 소비자 요구에 맞춘 생산체제로의 전환, 6차 산업화에 의한 활력 있는 농산어촌의 재생을 기본으로 한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실시하기로 한다.

2020년도의 종합식량자급률 목표는 이상과 같은 국제 정세, 농업·농촌의 상황, 과제 극복을 위한 관계자의 최대한의 노력을 전제로 하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모두 투입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할 만큼 높은 목표로서, 공급열량 기준으로 2008년도의 41%를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다. 또한 채소, 과일, 그리고 축산물 등의 생산 활동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는 생산액 기준의 종합식량자급률 목표는 2008년도의 65%를 7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또한 식량자급률 향상과 아울러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을 유지·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식량 안전 보장을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폭넓게 추진하도록 한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수요에 따른 생산을 전제로, 시책의 유효성을 매년 검증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시책의 중점적·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우선 생산 측면에서는, 논을 비롯한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그 우선이다. 특히 이모작에 의해 밀의 작부를 비약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경작되지 않고 있는 논과 밭을 유효하게 활용한 미분용 쌀·사료용 쌀, 대두 등의 작부 대폭 확대, 기술개발과 그 보급을 통한 단수·품질 향상, 경작방폐지 해소 등을 통한 농지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료용 쌀은 주식용 쌀로의 전환이 용이하므로 실제로 쌀 부족 상황 발생 시 식료안전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소비 측면에서는, 인구감소 사회·고령화 사회가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이해를 고려하고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는 등 소비자와 식품산업 사업자가 국산농산물을 소비하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 총인구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약 1,700만 명에 달하는 아침식사 결식 인구들을 대상으로 쌀 소비 확대와 건강지향 추세에 따른 지방 섭취억제 등의 변화된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두 가공식품에 있어 국산 대두의 사용 비율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단지 일식으로의 회귀를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진척 등을 바탕

으로 현재의 서구식 식생활 속에 국산농산물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보편화된 빵이나 면식에 대한 국산 밀·미분 사용 확대, 축산물에 대한 사료자급률 향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 품목마다의 생산수량 목표 및 극복해야 할 과제는 <표 1>과 같다.

정부로서는 호별 소득 보상제도 등의 중요 시책을 강력하게 실행함과 동시에, 적절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이들 관계자의 대책 마련을 근본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한편 농업인은 수요를 파악해 품질을 향상하고 비용 감축에 임하는 철저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식량자급률 향상은 정부의 강력하고 적절한 시책 실시와 관계자의 노력 위에 성립되는 것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전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식량 사정과 일본의 식량 사정(식량자급률이 변동한 요인을 포함)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공급열량과 섭취열량과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식량안전 보장의 관점으로부터 음식찌꺼기 감축을 일상생활에서 실시함이 필요하다.

개개의 정책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대로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는 등 수요에 따른 생산을 전제로, 각 정책의 유효성을 매년 검증함으로써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시책의 중점적·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표 1 생산수량 목표와 극복해야 할 과제

주요 품목별 생산수량 목표 및 극복해야 할 과제는 <표 1>과 같다. 또한 이와 동시에 앞에서 제시한 정책방향, 즉 호별 소득 보상제도의 도입, 「품질」과 「안전·신뢰」라는 소비자 요구에 맞춘 생산체제로의 전환, 6차 산업화에 의한 활력 있는 농산어촌의 재생을 기본으로 한 정책체계로의 전환을 실시하기로 한다.

표 1 주요 품목별 생산수량 목표 및 극복해야 할 과제

단위: kg/년, 만 톤

품목	'20 소비	'08 생산	'20 생산	극복해야 할 과제
쌀	–	882	975	
쌀 (미분용 사료용 제외)	62	881	855	○ 소비자, 외식 · 중식 사업자, 도 · 소매업자 등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 쌀 공급 ○ 소비자의 건강지향 등에 대응한 밥식 보급, 밥식 관련 상품 개발촉진 등 쌀 소비확대
미분용 쌀	3.3	0.1	50	○ 수요자 니즈에 따른 원료의 안정공급체제 구축, 다수(多收) 미품종·재배기술의 보급에 의한 단수향상과 이에 수반되는 비료비 등의 생산비용 증대 억제 ○ 건조 조제·저장시설, 가공시설 정비 등의 공급체제 확립 ○ 다양한 용도에 대응한 제법기술 혁신, 미분 특징을 살린 상품개발, 생산자와 가공사업자의 매칭 등에 의한 소비 확대
사료용 쌀	–	0.9	70	○ 수요자 니즈에 따른 안정공급체제 구축, 다수 미품종·재배기술의 보급에 의한 단수향상과 이에 동반한 비료비 등의 생산비용 증대 억제 ○ 사료용 쌀 산지와 축산농가, 배합사료 메이커와의 매칭과 효율적인 유통체제 확립 ○ 건조 조제·저장시설 정비 등의 공급체제 확립
소맥	28	88	180	○ 빵·중화면용 소맥 생산 확대(수량성(收量性)이 우수한 양질의 빵·중화면용 품종 육성·보급 및 단수향상 기술 보급) ○ 양질의 수도(水稻) 만생품종 육성에 의한 광범위한 논 이모작 보급, 작업효율과 배수성 향상을 위한 논 단지적인 이용과 범용화 ○ 가공기술 확립 등에 의한 국산 일본면용 소맥을 빵, 과자용으로 이용확대
대맥·나맥	0.2	22	35	○ 수요자 니즈에 따른 안정공급체제 확립(소주용도 공급확대, 배수대책 철저 등에 의한 작황 안정화, 수량성이 우수한 양질의 신품종 육성·보급 등) ○ 양질의 수도(水稻) 만생품종 육성에 의한 광범위한 논 이모작 보급과, 작업효율과 배수성 향상을 위한 논의 단지(團地)적인 이용과 범용화
메밀	0.7	2.7	5.9	○ 배수성 향상을 위한 논의 단지적인 이용과 범용화, 보리 등의 후작(後作)으로서 작부확대 ○ 기계화 적성을 가지는 다수품종 육성·보급
고구마	4.5	101	103	○ 생식, 소주, 전분원료 등 용도에 따른 원료 고구마의 안정공급체제 구축 ○ 기계화 일관체계 보급 등 효율적인 생산체제 확립 ○ 신품종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용도와 국산 고구마전분 수요개척
감자	15	274	290	○ 생식, 가공식품용, 전분원료 등의 용도에 따른 원료 감자의 안정공급체제 구축 ○ 노동력 절감 기계화 재배체계(soil 컨디셔닝 재배체계 등) 보급 ○ 가공식품용도(감자튀김 등)로의 공급확대, 국산 감자전분 수요개척
대두	6.7	26	60	○ 작업효율과 배수성 향상을 위한 논의 단지적 이용과 범용화나, 기계화 적성을 가지는 다수품종 육성·보급 ○ 단수향상·안정화에 이바지하는 재배기술의 보급, 계약재배에 의한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을 통한 안정공급체제 확립 ○ 국산 콩의 특징을 살린 제품개발 등에 의한 수요개척
유채	–	0.1	1.0	○ 양질의 고(高)단수 유채 품종 육성 ○ 국산 유채를 취급하는 착유 사업자와 농업인 연계

품목		'20 소비	'08 생산	'20 생산	극복해야 할 과제
채소		98	1,265	1,308	○ 외식, 중식과 가공 목적 국산채소의 안정공급체제 확립 ○ 산지의 생산기술, 판매, 인재육성 등의 능력 강화에 의한 산지 수익력 향상 ○ 외식, 중식에 있어서 채소섭취량 확대 등 채소 소비확대
과일		41	341	340	○ 산지의 판매 전략을 만족하는 우량품목·품종으로의 전환 가속화와 안정공급체제 확립 ○ 계획생산·출하조치와 수급조정조치의 적확한 실시 ○ 가공·수출용 과실 등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포함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 소비확대
축산물					○ 국산축산물 수요 발굴하기 ○ 국산사료(사료작물, 에코피드 등) 이용 확대
	생유	89	795	800	○ 치즈용 생유의 공급확대에 의한 수입치즈에서 국산치즈로의 치환과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내츄럴치즈 생산체제 정비 ○ 젖소의 생애 생산성과 번식능력 향상, 지원조직의 육성·활용 추진 등을 기본으로, 사료기반을 활용한 자원순환형 경영과 가공·판매에 임하는 경영 등 다양한 경영체 육성 ○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 생유유제품 보급 및 상품개발에 의한 소비확대
	우육	5.8	52	52	○ 산육(産肉)능력·번식능력 향상, 지원조직 육성·활용 추진 ○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 특색 있는 우육생산에 따른 소비확대
	돈육	12	126	126	○ 산육·번식능력 향상, 사양관리기술의 고도화 ○ 국산돈육 가공·업무용 발송량 확대
	계육	11	138	138	○ 산육능력 향상, 사양관리기술 고도화 ○ 국산계육의 가공·업무용 발송량 확대
	계란	17	255	245	○ 산란능력 향상, 사양관리기술 고도화 ○ 수요에 맞춘 생산으로의 대책 추진에 의한 계란가격과 양계경영 안정
설탕		19	94	84	
	사탕무 (정당 환산)	–	425 (74)	380 (64)	○ 지역에 있어서 윤작체계상 중요한 기간작물로서 작부 안정화를 추진하여 경영발전을 실현 ○ 비료, 농약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체제 확립(직파재배 보급, 녹비 등의 도입 및 가축배설물 등 미이용자원 활용) ○ 비료, 농약 등의 생산자재 비용 저감 ○ 사탕무의 효율적인 집하체제 확립
	사탕 수수 (정당 환산)	–	160 (19)	161 (20)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제 확립(2년 1작의 여름재배에서 매년 수확할 수 있는 봄재배·주출(株出)재배로의 이행, 토양해충 방제기술 확립·보급 및 관수설비 정비) ○ 작업수탁조직과 공동이용조직 육성 ○ 작업효율향상을 위한 기계화 일관체계 확립·보급
차		0.8	9.6	9.5	○ 수요확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품종·차종 전환의 가속화, 유기차·무농약차의 생산 확대 ○ 잎차 소비확대, 간편한 음료수요로의 대응을 위한 차 기능성 활용과 신상품개발
사료작물		–	435만 TDN톤	527만 TDN톤	○ 이모작 등의 추진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품종·작부체계기술 개발·보급 ○ 사료생산조직 육성, 조사료의 광역유통체제 구축 ○ 우량품종의 개발·보급과 사료생산기반 확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

참고자료: 일본 농무성,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중국의 백합 산업 동향*

권 오 복

1. 중국의 화훼(백합) 생산

개황

지난해 기준 중국의 화훼 재배면적은 77만 5천ha로, 2007년보다 3.3% 증가했다.

화훼산업이 매우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중국은 세계 화훼의 대량 생산기지인 동시에 소비처로 변모하였다. 2008년 기준 중국의 화훼 재배면적은 한국의 농업진흥지역 82만 ha에 버금가는 77만 5,000 ha로 2007년보다 3.3% 증가했다. 또 같은 해 화훼 판매액은 666억 9,000만 위안(12조 7,000억 원)으로 세계 제일의 화훼산업 규모를 자랑하며, 화훼 수출액은 3억 9,900만 달러(4,400억 원)로 1년 전보다 21.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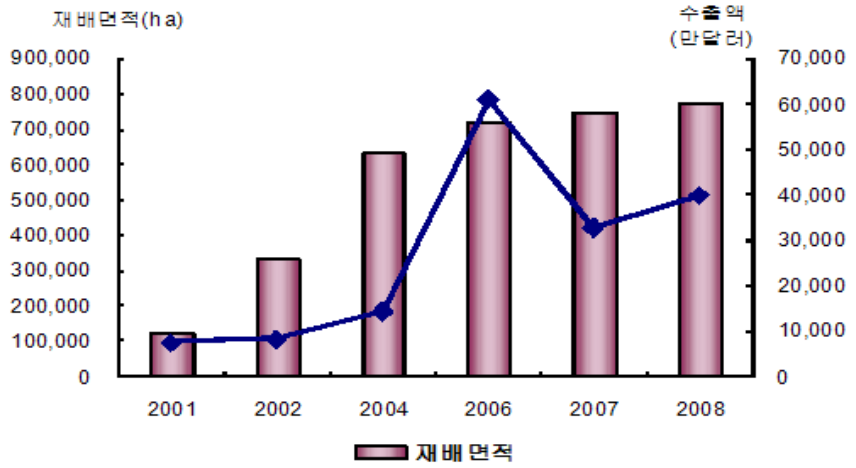
2007년 화훼농가는 1,194천호, 종사자는 3,675천명으로 농가호수와 종사자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화훼면적 증가와 함께 호당 재배면적도 2003년 0.45ha에서 2007년 0.63ha로 증가하였다.

품목군별 재배면적 비율은 종묘류가 57.0%(관상묘목 53.9%)로 가장 높고, 분재식물 10.3%, 절화류 5.8% 등이다. 아직 중국의 화훼가 조경 중심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한 절화, 분화로는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나 소비패턴의 변화와 중국

* 본 내용은 현지출장결과 등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obkwon@krei.re.kr, 02-3299-4210).

정부의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의지로 보아 절화류와 분화류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중국의 화훼 재배면적 및 수출 추이



자료: 중국농업부 자료 및 중국농업출판사, 「중국농업통계자료」, 각연도.

2007년 화훼류 생산액은 약 613억 위안을 상회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종묘류가 전체생산액의 약 51.3%인 315억 위안, 분재식물이 29.3%, 절화류가 11.4%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 비해 종묘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1 중국 화훼산업 구성요소의 변화

구 분	면적 (ha)	생산액 (억元)	화훼시장 (개소)	종사자수 (천명)	농가수 (천호)	화훼기업 (개소)
1995	68,034	40.0	670	–	–	–
1996	69,400	52.0	774	–	–	–
1997	85,979	94.5	777	1,162	–	3,000
1998	85,927	107.4	1,583	1,021	320.1	15,000
2000	147,518	158.2	2,002	1,459	422.8	21,975
2003	430,115	353.1	2,185	2,934	954.7	60,244
2007	750,332	613.7	2,485	3,675	1,194.4	54,654

자료: 중국농업부 자료 및 중국농업출판사, 「중국농업통계자료」, 1996~2007.

2007년 절화류 재배면적은 국화가 전체의 32.4%로서 2003년 21.8%보다 10.6% 증가하였고, 장미·백합 18.8%, 카네이션 10.6%순이다. 판매액 비중은 백합이 38.3%로 전체 절화류 중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국화(26.3%), 장미(13.1%), 카네이션(8.6%) 순이다. 2006년 백합 구근 재배면적은 1,133ha로 추정된다.

2007년 중국의 백합총판매량은 7억 8,000만개로 추산되며, 이중 오리엔탈계가 60%로 주종을 이룬다. 중국 전체적으로는 연간 8억개 정도의 구근이 소비된다.

표 2 중국의 화훼 생산규모

단위: ha, 만 위안, (%)

구 분		2000				2007			
		재배면적		생산액		재배면적		생산액	
총 계		147,518.4	(100)	1,581,601	(100)	750,331.9	(100.0)	6,136,970.6	(100.0)
절화류	소 계	10,749.7	(7.3)	241,527	(15.3)	43,326.4	(5.8)	697,806.4	(11.4)
	신선절화	9,397.8	(6.4)	195,296	(12.4)	33,777.5	(4.5)	579,001.2	(9.4)
	신선절엽	1,132.9	(0.8)	37,762	(2.4)	5,834.5	(0.8)	67,075.4	(1.1)
	건 조 화	219.0	(0.1)	8,469	(0.5)	3,713.4	(0.5)	51,729.8	(0.8)
분재식물	소 계	18,840.7	(12.8)	525,395	(33.2)	77,253.6	(10.3)	17,96996.9	(29.3)
	분재식물	9,858.8	(6.7)	268,176	(16.9)	40,567.2	(5.4)	40,567.2	(19.0)
	분 경	5,367.6	(3.6)	119,692	(7.6)	19,630.7	(2.6)	19,630.7	(5.7)
	관엽식물	3,614.3	(2.5)	137,527	(8.7)	17,055.7	(2.3)	17,055.7	(4.6)
종묘류	소 계	71,512.9	(48.5)	675,032	(42.6)	427,946.3	(57.0)	3,150,762.1	(51.3)
	관상용묘목	65,588.0	(44.5)	622,952	(39.4)	404,304.4	(53.9)	2,873,051.7	(46.8)
	종묘용화훼	2,824.5	(1.9)	29,564	(1.9)	13,149.3	(1.8)	158,922.1	(2.6)
	종구용화훼	1,281.4	(0.9)	12,255	(0.7)	3,897.2	(0.5)	83,805.9	(1.4)
	종자용화훼	1,819.0	(1.2)	10,261	(0.6)	6,595.4	(0.9)	34,982.4	(0.6)
식용약용화훼		14,800.6	(10.0)	60,772	(3.8)	91,952.7	(12.3)	191,385.6	(3.1)
공업기타화훼		20,494.5	(13.9)	43,104	(2.7)	65,025.6	(8.7)	135,041.5	(2.2)
잔디, 초화류		11,119.9	(7.5)	54,334	(3.4)	44,828.4	(6.0)	155,692.4	(2.5)

자료: 중국농업부 자료 및 중국농업출판사, 「중국농업통계자료」, 2001, 2008.

중국의 백합 주요 재배지는 중국 남서부의 윈난지역과 북동부 랴오닝에 위치한 링윈지역이다.

중국의 백합 주요 재배지는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윈난(Yunnan)지역과 북동부 랴오닝(Liaoning)에 위치한 링윈(Lingyuan) 지역이다. 링윈과 위난지역의 연간 백합 판매량은 각각 6,000~7,000만개, 2억개 정도이다. 두남, 곤명 지역의 백합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해, 북경 등지의 생산은 감소 추세이다.

중국 정부는 농가 또는 회사가 화훼농사를 시작하는 초창기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판매세 면제 등)을 부여한다. 농지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정부로부터 임대

하여 이용한다(건물용은 70년). 임대료는 농지조건(소비지로부터 거리, 인프라 등)에 따라 다르며, 보통 200평당 3천 위안 수준이다.

중국에서도 백합의 경우 대부분의 구근을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구근 크기는 16~18cm, 20~22cm 등 다양하나, 12~14cm가 주종을 이룬다.

현지조사대상지역인 운남지역의 경우 백합구근을 2006년 1억 개, 2007년 7,000만 개, 2008년 5,000만, 2009년 4,000만개 정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8억 개의 종구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1].

표 3 중국의 주요 신선절화류 생산 및 판매 상황

단위: ha, 만송이, 만 위안, (%)

구 분		재배면적		판매량		판매액	
2003	계	23626.5	(100)	670728.0	(100)	409093.2	(100)
	국화	5145.3	(21.8)	87743.3	(13.1)	44210.7	(10.8)
	장미	4761.6	(20.2)	192779.8	(28.7)	106041.1	(25.9)
	카네이션	3076.3	(13)	143920.0	(21.5)	42450.5	(10.4)
	글라디올러스	2159.9	(9.1)	30883.8	(4.6)	24216.3	(5.9)
	기타	8483.4	(35.9)	215401.1	(32.1)	192144.6	(47)
2007	계	25146.6	(100)	852282.7	(100)	482296.2	(100)
	국화	8139.0	(32.4)	285926.4	(33.5)	126647.3	(26.3)
	장미	4721.9	(18.8)	110885.3	(13)	63404.1	(13.1)
	카네이션	2673.6	(10.6)	169492.4	(19.9)	41475.1	(8.6)
	글라디올러스	2364.6	(9.4)	37620.0	(4.4)	30721.9	(6.4)
	백합	4716.7	(18.8)	78186.0	(9.2)	184942.0	(38.3)
	기타	2530.8	(10.1)	170172.6	(20)	35105.8	(7.3)

자료: 중국농업부 자료 및 중국농업출판사, 「중국농업통계자료」, 2004.

옥계백합생산단지 사례

옥계백합생산단지는 M사 소유의 3개 생산단지(전체 규모는 136무(약 27,000평) 중 하나이다. 재배면적은 36무(약 27,000평) 정도이고 연간 100만 본 정도의 백합을

1) 이처럼 구근 수입량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중국내 백합 소비는 그대로 있거나 증가추세에 있지만 생산비 증가 대비 중국내 백합 가격이 좋지 않고, 종구 재활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생산(3개 생산기지 생산량은 약 300만 본임)한다. 생산된 화훼중 우수한 품질의 백합을 선별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기후조건이 좋아 백합은 3기작으로 하며, 3기작 후에는 벼를 심고 있다.

구근은 자체 생산하고 부족한 양만큼 수입한다. 구근 크기는 지름 16~18cm가 제일 많다. 평방미터당 28개 정도 식재하고 있었다. 시베리아의 경우 18~20cm 사이즈도 식재한다. 색상은 백색, 홍색이고, 꽃수는 4~5개이다.

방문한 생산단지의 백합재배기술과 시설이 한국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였고, 백합의 생육상태도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화훼수출

2007년 현재 중국의 화훼 수출 총액은 3억 2,754만 달러이며, 주 수출 대상국은 일본, 미국, EU 등이다.

중국의 화훼수출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2,700만 달러에서 1996년 7,385만 달러, 1997년에는 8,895만 달러로 급신장하였다. 그러나 국제 외환위기로 수입국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출도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약 1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최근 다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7년 현재 중국의 화훼 수출 총액은 3억 2,754만 달러이다. 주 수출 대상국은 일본, 미국, EU 등이다. 수출품목은 분화류 등 전통화훼를 비롯한 국화, 장미 등 절화의 비중이 높아 2007년 절화류가 49.1%, 분화류가 25.2%를 차지하였다. 절화류 수출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분화류 등 기타 화훼류의 수출비중은 감소추세이다.

표 4 중국의 화훼류 수출 실적

단위: 만 달러, (%)

연도	절화류		분화류		관상묘목류		식약용		공업용		기 타		계	
1998	1536.2	(46.5)	1161.2	(35.1)	470.9	(14.3)	1.2	(0.0)	5.0	(0.2)	130.0	(3.9)	3304.5	(100.0)
2000	376.8	(13.3)	1955.5	(69.1)	289.5	(10.2)	57.4	(2.0)	0.0	(0.0)	150.9	(5.3)	2830.1	(100.0)
2003	4428.1	(45.8)	3453.0	(35.7)	1460.0	(15.1)	45.0	(0.5)	62.2	(0.6)	228.3	(2.4)	9676.6	(100.0)
2007	16093.1	(49.1)	8264.0	(25.2)	2465.3	(7.5)	319.0	(1.0)	1876.2	(5.7)	3736.9	(11.4)	32754.5	(100.0)

자료: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편, 「중국농업통계자료」, 해당년도, 중국농업출판사.

M사의 경우 1년에 백합을 5백만 본 정도 생산하는 데 그중 일본에 70~80만 본을 수출하고 있었다. 일본 수출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중국 정부지원을 받는 시범단지로서 전시효과 차원에서 수출이 이루어진다. 이 회사의 경우 이윤창출보다는 정부의 독려 때문에 손해를 무릅쓰고 수출하고 있었다.

회사관계자는 일본 수출 가격은 시베리아 품종의 경우 본당 수출단가는 5위안(한화 약 920원)이고, 일본에서 12~13위안(약 2,160~2,340원) 취득한다고 밝혔다. 일본에 수출하는 방식은 거래 판매상에게 넘기거나 오사카 경매장에 상장한다고 하였다. 대 백합 일본 수출을 늘리기를 원하지만 일본이 원하는 품질과 수량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하였다.

또 다른 방문 업체 S사는 러시아 등지에 직판장을 보유한 화훼무역업체이다. 이 회사는 운남성에서 생산되는 백합을 주로 연간 300만본 정도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었다. 주 품종은 시베리아이며, 계약재배를 실시하지 않고 농가에서 백합을 수집하여 수출한 뒤 대금은 후에 결제한다.

러시아에 자사 소유의 현지 지사가 백합 판매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간혹 다른 회사의 대리점에 보내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에 백합수출 시 수송방법은 운남에서 하얼빈까지는 비행기로 수송하고, 하얼빈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는 회사의 물류차량이 수송(대략 3일 정도 소요)한다. 수출용은 물류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이동(곤명에서 공항까지는 특별한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차량으로 수송)하고, 겨울철에도 물류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러시아에 백합을 수출할 경우 통상 다른 화훼와 함께 1주일에 한번씩 10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었다.

대러시아 수출시 농가로부터 꽃이 4개인 백합 본당 6~7위안(1,080~1,260원)에(비쌀 때는 12~13원 까지도 지불) 수매해서 러시아 수출가격은 15~16위안 2,700~2,880원)으로서 수출마진은 대략 10~15%로 나타났다.

그밖에 베트남, 마얀마, 태국에도 수출하고 있는데, 자사 취급 물량중 90%가 수출용이고 10%만이 중국시장에 출하하고 있었다. 일본은 검역, 결제 등 거래가 까다로워 수출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산 백합의 대 중국 진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국내에는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소비 계층이 존재하고 인구도 많아 한국 백합의 중국 수출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응답하였다. 접근 방법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국 시장에 직접 부딪혀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한국이 러시아 진출 시 자사 회사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하였다.

표 5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림수산식품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07		2008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수산식품	374,887.2	452,070.5	374,280.7	536,583.1	△0.2	18.7
○ 농식품	231,935.1	294,594.0	213,855.8	346,292.8	△7.8	17.5
〈신선농식품〉	26,769.9	67,537.2	29,364.7	79,010.0	9.7	17.0
- 채 소	3,110.8	5,449.9	740.6	6,741.4	△76.2	23.7
- 김 치	6.3	10.6	45.8	125.2	625.8	1,083.8
- 인 삼	62.6	3,568.2	106.6	6,751.9	70.3	89.2
- 화 훼	4,243.1	23,298.4	4,185.5	23,414.8	△1.4	0.5
- 과 실	7,818.5	11,455.5	11,779.1	18,246.4	50.7	59.3
* 유자차	2,189.1	5,626.6	3,991.4	9,770.9	82.3	73.7
- 돼지고기	56.3	754.3	104.2	1,279.4	85.1	69.6
- 가금육(닭,오리)	78.7	22.9	18.2	17.3	△76.9	△24.5
- 산림부산물	11,393.6	22,977.4	12,384.7	22,433.6	8.7	△2.4
* 밤	10,486.1	16,658.9	10,171.7	15,049.6	△3.0	△9.7
* 기타 임산	907.5	6,318.5	2,213.0	7,384.0	143.9	16.9
〈가공농식품〉	205,165.2	227,056.8	184,491.1	267,282.8	△10.1	17.7
○ 수산식품	142,952.0	157,476.4	160,424.9	190,290.3	12.2	20.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8 농림수산식품 수출실적, 2009.

2008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림수산물 수출은 5억 3,658만 달러로 전년대비 18.7% 증가하였다. 이중 신선농산물은 14.7%인 7,900만 달러이고 나머지는 가공농식품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대 중국 화훼류 수출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2,341만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화훼 수출의 대부분은 심비디움으로, 연말 적극적인 판촉홍보와 심비디움 주 수요시기인 '09년 춘절(1.26)이 빨라 '08년 12월 수출분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0.5% 증가하였다.

중국의 화훼유통은 과거 직거래시장, 길거리 시장에서 화훼농가 및 화훼유통 주체들의 상품의식이 높아지면서 전문 화훼유통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3. 화훼유통

중국의 화훼유통은 과거 직거래시장, 길거리 시장에서 화훼농가 및 화훼유통 주체들의 상품의식이 높아지면서 전문 화훼유통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박현태 외, 2006).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에 화훼전시·판매구, 냉동구, 화훼 경매장, 정보구를 구비한 현대적 대형 도매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백합을 포함한 중국의 화훼 유통경로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다. 수입된 화훼유통경로도 일반 농산물과 거의 같으며, 대부분 수입업자가 도매업을 겸하는 등 통상 4~5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림 2 중국의 화훼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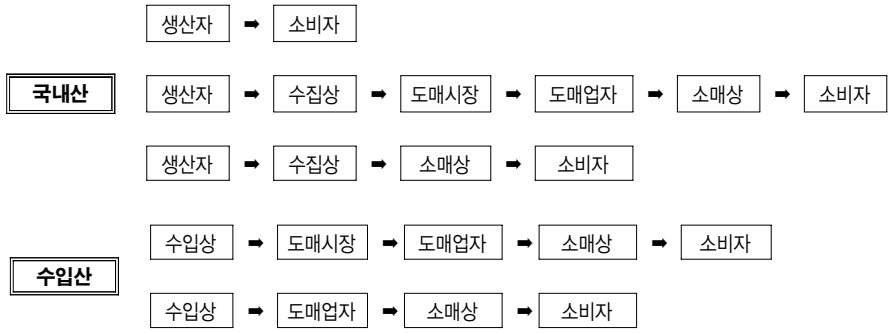


표 6 중국의 주요 수입화훼류에 대한 관세

구 분		HS번호	관세(%)	
			양허관세	실행관세
구 근	- 재배용 - 기타(휴면) - 생장구근	0601.10.91 0601.10.99 0601.20.00	0.0 5.0 15.0	0.0 5.0 15.0
수목등	- 묘목 - 기타재배용묘목(국화, 백합 등)	0602 0602	0.0 10.0~15.0	0.0 10.0~15.0
절 화	- 신선한 것 - 기타	0603.10.00 0603.90.00	10.0 23.0	10.0 23.0
절지절엽	- 이끼와 지의 - 기타	0604.10.00 06049	23.0 10.0	23.0 10.0

자료: http://www.amad.org.

중국의 주요 수입 화훼류에 대한 관세는 절화의 경우 대체로 10%, 분화의 경우 일반묘목은 0%이나 국화, 백합 등의 재배용 묘목은 10%정도이다. 구근류에서는 재배용의 경우 0%, 휴면의 경우 5%, 기타 생장의 경우는 15% 수준이다. 절지절엽의 경우는 10%, 23%수준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곤명 화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백합도매가격은 65원/10개, 150원/10개, 75원/10개 등 품질·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본당 1,300~3,000원 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5월 18일 북경시장에서 오리엔탈백합의 본당 가격은 6위안(약 1,080원), 아시아틱 백합은 0.7위안(126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다른 시장에서도 오리엔탈 백합은 3~7.5 위안(540~1,350원)에, 아시아틱 백합은 0.65~5위안(117~900원)에 거래되어 지역별로 가격편차가 심한 편이다.

소규모 도·소매상들은 농가로부터 꽃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고, 주요 화훼는 경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백합은 가격 등락이 심한 편이라 경매 대상은 아니다. 이때 도매상들은 농가와 계약재배 방식이 아니라 농가로부터 꽃을 인도받을 때 가격을 결정하며 여름철(7~8월)에는 가격이 낮은 편이다.

곤명시에서 연중 거래되는 백합 물량은 200만 본 정도로 추산된다. 시장에 나온 백합은 대부분 신선해 보였지만, 저온저장 시설 없이 노점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 신선도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대부분이 냉장시설 없이 자전거 또는 리어커, 소형차량에 벌크로 운반하고 있었다.

그림 3 시장 노점에 진열된 백합과 대가 휘지 않는 싱싱한 백합

두남화훼도매시장의 경우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도, 소매상들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이 붐벼 꽃 소비가 활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매상들은 농민들에게 백합을 수거하여 품질이 좋은 것은 선별하여 일본, 러시아 등지에 수출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중국내 시장에 판매한다고 했다.

도매상들이 경매시장 등에서 화훼를 확보하여 시장에서 소매상에게 판매하거나 전국 각지의 중도매인에게 보낸다. 상설 화훼시장에는 소규모 소매상들이 백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을 거래하고 있었다.

도매시장 옆에는 물류센터가 있어 확보한 화훼를 등급화하고, 재포장하여 중국내 전역 및 수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매상들은 물류센터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선별과 포장을 하며, 인부들의 시간당 인건비는 2원(400원) 정도이다.

그림 4 두남화훼시장에 진열된 꽃바구니와 백합으로 꾸민 부케

물류센터 내에는 실내 온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 없이, 상온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매장에서 꽃을 확보한 도매상들은 물류시설 이용료를 지불하고 직접 물류작업을 실시한다. 선별과 포장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남물류센터의 경우 항공, 철도, 육로로 이동시 저온저장장치 없이 일반차로 꽃들을 운반하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경, 상해 등의 대도시 지역에 현대화된 도매시장이 건립되고 출하품의 규격화 등 전반적인 화훼류의 유통구조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화훼경매제도 도입 및 신선 절화류(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 물망초 등)와 분화류(진달래 등)에 대한 품질등급, 검사규칙, 포장, 표지, 운송과 저장 등 생산 판매과정에서의 품질책정 기준과 제품거래기준 등이 진전되고 있다.

그림 5 물류센터 내부 및 포장 전경, 수송 차량

4. 소비 성향

중국에서 화훼제품의 소비시장은 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 확대되었으며, 회사용에서 개인 구매로 변화하였고, 품목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화훼제품의 소비시장은 대도시로부터 중소도시로 확대되었으며, 회사 관상용으로 주로 구매하던 것부터 개인이 구매하는 용도로 변화하였고, 품목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화분은 화훼시장을 벗어나 마트로 향하고 있으며 화훼제품은 소형화, 다양화되고 있다. 일상소비량도 성장세를 보인다.

중국의 유명한 가정원예잡지인 "踏花行"과 "藏花閣"의 회원수가 각각 8만 명, 6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여유시간이 많아진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화훼장식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유행되는 제품에 대한 구매력도 대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인들은 춘절 때 꽃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주로 붉은 색 계통을 선호한다. 백합 역시 선물용보다 춘절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주 소비층은 중류층 이상이다.

2006년 기준 북경, 상해 등 주요 대도시 가구 중 연간 소득이 4,100만 원과 6,900만 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각각 10.3%, 3.0%로서 상위 13% 정도가 고소득층에 속하는데, 이들은 화훼 소비에 있어서 품질을 중시하는 계층이다. 우리나라가 대중국 백합수출을 고려할 경우 이들 고소득층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시사점

중국 백합은 아직까지는 중국내에서 주로 유통, 소비되고 있지만 재배기술이 우리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기후 등 자연조건이 유리해서 품질 면에서 한국산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백합과 경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구근을 이용하는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 고급화, 차별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가격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품질경쟁력의 우위를 통해 일본시장을 견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도 연간 7억 8,000본 정도의 백합을 생산하여, 중국 국내는 물론, 러시아,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백합을 수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고소득층을 겨냥한 틈새시장을 이용한 고품질 백합 수출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이 있다. 북경, 상해 등 대도시 고소득층을 겨냥해서 고급백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이때 절화 자체보

다는 고소득층의 기호에 맞는 가공품을 제작, 수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지 판매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중국도 종구를 자체 개발, 생산하지 못하고, 연간 8억 개 정도의 종구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품질 우량 종구를 개발함으로써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Mu Diang, "중국의 백합 생산 현황", 단국대학교부설 생물자원연구소 주최 세계백합 생산 및 이용 현황 국제심포지엄2008, 7.11~12 충남태안군농업기술센터, pp.117~124.

권오복, 중국 현지 출장 결과.

중국농업부 자료 및 중국농업출판사, 「중국농업통계자료」.

브라질 닭고기산업의 현황과 전망*

허 덕

1. 머리말

브라질 닭고기산업은 생산량 1,103만 톤으로 세계 3위, 수출량 3,242천 톤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농무성(USDA)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브라질산 닭고기 생산량은 1,103만 톤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 3위이며, 수출량은 3,242천 톤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산업이다. 특히 수출에 있어서는 최근 세계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브라질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브라질산 닭고기가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9월 국제금융위기로 해외시장이 냉각됨에 따라 2009년 생산량은 1,098만 톤(잠정)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2. 닭고기 생산 현황

생산 규모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은 1998년 4,854천 톤에서 2009년 10,980천 톤(잠정)으로 11년간 126.2% 증가하였다. 이에 맞추어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1998년

* 본 내용은 일본 농축산진흥기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02-3299-4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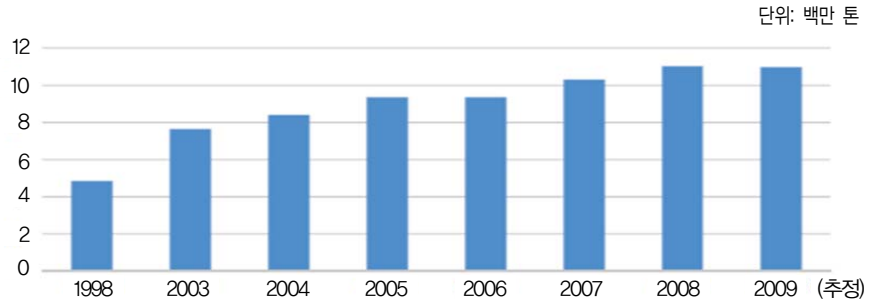
22.9kg에서 2009년 39.0kg(추정)으로 70.3% 증가하였다. 브라질 닭고기 생산량의 69%가 브라질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즉, 국내 소비자의 닭고기 식품 소비 증가가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6년과 2009년에는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 이유는 2006년에는 해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을 통해 감염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브라질 국내외의 소비자들이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닭고기 소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2009년의 경우에는 2008년 9월 국제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특히 해외에서의 시장 구매력이 떨어졌고, 소비가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이 억제된 데 그 원인이 있다.

닭고기가 생산되는 지역의 분포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남부(파라나주, 산타카타리나주, 리오그란데드술주), 남동부(상파울로주, 미나스제라이스주), 중서부(고이아스주, 매트그로소드술주, 매트그로소주) 지역에서만 정부에 등록한 식조처리장이 163곳이며(전체의 88.6%), 이들 지역의 연간 처리 마리수는 4,360백만 마리(84.2%), 연간 생산량은 9,637천 톤(87.3%) 등, 이 지역이 주요 생산지역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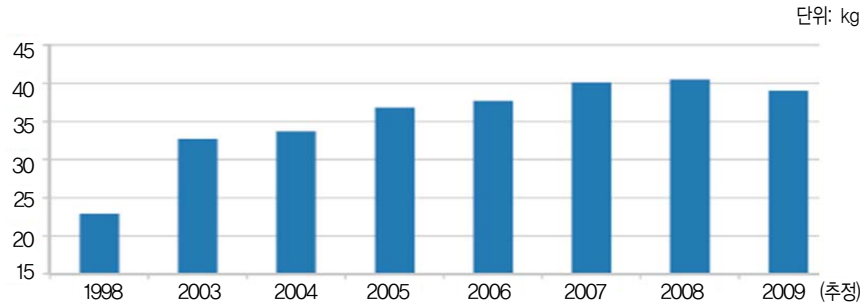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은 1998년 4,854천 톤에서 2009년 10,980천 톤(잠정)으로 11년간 126.2% 증가하였다.

그림 1 닭고기 생산량 추이



자료: 브라질병아리생산자협회(APINCO), 미국농무성(USDA)

그림 2 브라질의 국민 1 인당 닭고기 소비량 추이



자료: 미국농무성(USDA)

그림 3 브라질 닭고기 주요 생산지역

표 1 2008년 지역별 닭고기 생산 현황

단위: 천 수, 천 톤

지역	주	식조처리장수	처리마리수	생산량
남부	계	80	2,809,713 (54.3%)	6,023 (54.6%)
	파라나	36	1,222,124 (23.6%)	2,560 (23.2%)
	산타카타리나	24	861,454 (16.6%)	1,814 (16.4%)
	리오그란데드술	20	726,135 (14.0%)	1,649 (14.9%)
남동부	계	67	1,051,702 (20.3%)	2,490 (22.6%)
	상파울로	49	730,528 (14.1%)	1,680 (15.2%)
	미나스제라이스	18	321,174 (6.2%)	810 (7.3%)
중서부	계	16	498,120 (9.6%)	1,124 (10.2%)
	고이아스	7	247,197 (4.8%)	551 (5.0%)
	마토그로소드술	5	128,315 (2.5%)	290 (2.6%)
	마토그로소	4	122,608 (2.4%)	283 (2.6%)
기타		21	816,021 (15.8%)	1,396 (12.7%)
전국		184	5,175,556(100.0%)	11,03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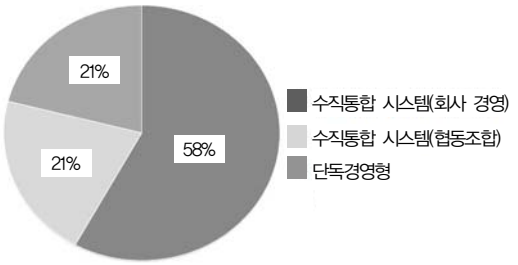
주: MAPA에 등록된 식조처리장 수
자료: 브라질농무성(MAPA), 브라질양계협회(UBA)

생산체제

닭고기는 병아리 부화, 사육, 처리, 가공까지 일련의 공정에 따라 생산되기 때문에 총 생산량은 가장 첫 단계인 브로일러용 병아리 공급량에 의해 컨트롤 된다. 따라서 수직통합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브라질에서는 1960년대에 산타카타리나주부터 도입되었다. 브라질의 닭고기 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공정의 수직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례로 꼽힌다. 2008년에는 전 농장의 79%가 회사 또는 협동조합 경영에 의한 수직통합 시스템으로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어, 시장의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서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브라질의 닭고기 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공정의 수직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례로 꼽힌다.

그림 4 2008년 수직통합 시스템 도입 비율



브라질 농업연구개발공사(EMBRAPA)가 조사한 브라질 남부(산타카타리나주)의 평균적인 생산지표는 <표 2>와 같다. 출하일령 42일, 연간 출하회수 6.5로트이므로, 계사가 비는 기간을 14~15일로 가정하면, 365일 풀가동하는 효율적 생산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하 시 1마리당 중량은 2.3kg이다. 여기에 필요한 생산비용을 따져보면, 일반적인 양계장(수직통합 시스템 계약 양계장: 무창계사에 2만 마리를 사육)을 가정할 경우 1마리 당 3.810레알(약 2,584원)로, 이 지역의 최저 출하가격은 kg당 약 1.66레알(약 1,126원)로 계산된다. 그러나 실제 국내 육계 가격은 이보다 낮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수직통합 시스템에서 출하 시 양계장에 대해 1마리 당 0.4~0.5레알(약 270~339원)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처럼, 양계생산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양계장의 수익으로 볼 수 있다.

표 2 2008년 산타카타리나주 닭고기 생산지표

항목	출하회수 (로트/년)	출하마리수 (마리/로트)	출하일령 (일)	폐사율 (%)	중량 (kg)	사료요구율
생산지표	6.5	18,000	42	2.7	2.3	1.87

자료: 브라질농업연구개발공사(EMBRAPA)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

표 3 2009년 9월 파라나주 닭고기 생산비용 내역

	시설비	병아리 구입비	사료 경비	위생비	운반비	인건비	기타	합계
비용 (레알/마리)	0.4	0.6	2.5	0.0	0.1	0.1	0.2	3.8
(원/마리)	253.0	393.4	1681.5	2.1	57.0	57.7	139.7	2584.2
비율(%)	9.8	15.2	65.1	0.1	2.2	2.2	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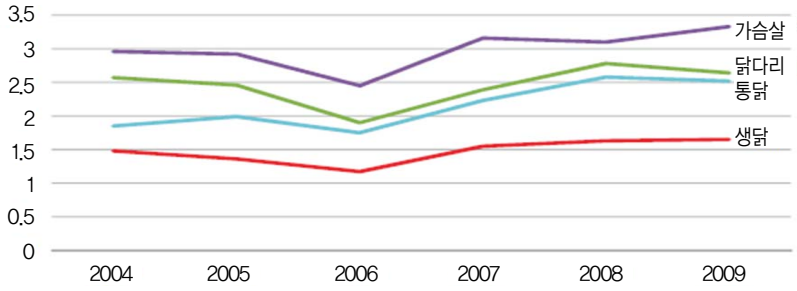
주: 1. 모델: 수직통합 시스템 계약 양계장, 무창계사 2만 마리/계사
2. 1레알 = 678.3원
자료: 브라질농업연구개발공사(EMBRAPA)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

생산비용 중 사료와 관련된 경비는 2.479레알(약 1,682원)로, 생산비용 전체의 65.1%를 차지하여, 브라질과 같은 사료 생산지에서도 사료와 관련된 비용은 크다. 더욱이 브로일러용 배합사료의 65%가 옥수수이며, 2008년 수확량(51,003천 톤)으로 보면, 남부가 37%, 남동부가 21%, 중서부가 31%를 차지하여, 닭고기 생산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서부의 생산량은 전체 닭고기의 10.2%(2008년) 밖에 생산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이 지역의 생산량을 얼마나 증가시킬지 혹은 유통 인프라를 얼마나 정비할지가 관심의 포인트가 된다.

브라질의 국내 닭고기 소비는 저렴한 지육이 약 50%를 차지하고, 닭다리나 가슴살 등 절단육이 35% 정도를 차지한다.

브라질의 국내 닭고기 소비는 저렴한 지육이 약 50%를 차지하고, 닭다리나 가슴살 등 절단육이 35% 정도를 차지한다. 2006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닭고기 수요가 감소하여 지육은 kg당 1.75레알(약 1,187원)으로 전년대비 12.1% 낮고, 가슴살은 2.45레알(약 1,662원)로 전년 대비 16.1% 낮았으며, 닭다리는 1.90레알(약 1,289원)로 전년 대비 22.8% 하락하는 등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가격동향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 후로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지육이 동 2.52레알(약 1,709원), 가슴살이 동 3.33레알(약 2,258원), 닭다리가 동 2.64레알(약 1,791원) 등 닭고기 가격은 2006년에 비해 약 40% 정도 상승하였다.

그림 5 브라질의 국내 닭고기 가격 추이



자료: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

주력 기업

브라질양계협회(UBA)의 2007년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2개사인 푸즈사와 마르후리그사가 한 해 처리되는 닭고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4개의 개별 기업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비용 절감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2개 회사로 합병되면서 업계의 구조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상위 2개사인 푸즈사와 마르후리그사가 브라질에서 한 해 처리되는 닭고기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표 4 2007년 기업별 닭고기 처리 실적

단위: 천 마리, (%)

기업명		처리 마리수	
브라질푸즈	소계	1,532,450	(31.7)
	구 페르지곤	803,392	
	구 사디아	729,058	
마르후리그	소계	489,371	(10.0)
	구 세아라	270,171	
	구 마르후리그	219,200	
도욱스프랑고술		255,941	(5.3)
디프로마테		130,952	(2.7)
아우로라		113,813	(2.4)
기타		2,314,869	(47.9)
합 계		4,837,396	(100.0)

자료: 브라질양계협회(UBA), 브라질계육수출업자협회(ABEF).

먼저 브라질푸즈사는 2009년 5월에 합병에 의해 태어난 기업으로, 그 때까지 제1위와 제2위의 지위에 있던 사디아사와 페르지곤사가 합병함에 따라 연간 처리 마리수가 30%를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세계 유수의 거대기업인 브라질푸즈사가 되었다. 사디아사와 페르지곤사는 함께 식육제품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세계 100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는 등 다각적 경영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경영패턴을 보여 왔다. 그러나 사디아사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달러화의 급격한 저하 때문에 금융 파생상품으로 큰 환차손이 발생하여, 같은 해 순손실이 24.8억 레알(약 1조 6,821억원)이나 되었다. 이는 사디아사가 창업한 이후 64년간 가장 큰 손실이었다. 2007년에는 7.68억 레알(약 5,209.3억원)의 순익을 보였지만, 불과 1년 만에 자금조달 부족으로 라이벌 기업인 페르지곤사에 흡수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또, 마르후리그사는 2009년 9월 카길사로부터 세아라사를 인수하였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쇠고기 가공 처리가 주 취급품목이었지만, 2008년에 국내 중견 클래스의 닭고기 처리기업 3개 회사(데그란제사, 페나브란카사, OSI그룹)를 인수하여

닭고기산업에 참가하는 등 식육산업으로 경영다각화를 도모하여 왔다. 이러던 가운데, 2009년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는 업계 3위의 세아라사를 수중에 넣게 됨으로써 국내외 닭고기 산업에 있어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표 5 브라질의 닭고기 생산량 상위 5개사의 조직 개요, 2009년

	브라질푸즈 (Brazil Foods S.A.)	마르후리그 (Marifrig Group)	도욱스프랑고술 (Doux FrangoSul S.A.)	디플로마테 (Diplomate)	아우로라 (Aurora)
오너	민간(브라질) 구 베르지곤 68% 주식보유, 구 사디아 32% 주식보유	민간(브라질) 회장 66% 주식 보유	민간(프랑스, 외채) 도욱스 그룹	민간 (브라질) 개인 오너	협동조합 (브라질), 조합수 70, 17지부
본사	상파울로	상파울로	리오그란데드술	파라나	산타카타리나
설립연도	2009년 5월 구페르지곤: 1939년 닭고기 참여 구 사디아사 1944년 설립	1999년 2009년 9월: 세아라를 카길로부터 매수	1970년 1998년: 프랑코술을 매수	1976년	1909년
종업원	119 천명	국내 32 천명, 해외 60천명(구 세아라사원)	8천명(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25천명을 해고)	자료 없음	13천명
주요 영업분야	식육제품, 우유유제품, 양계, 양돈, 육우비육, 낙농	식육제품	식육제품 (닭고기, 돈육)	식육제품, 유제품	식육제품 (닭고기, 돈육), 사료, 유제품
계열 양계농장	10,700 농장	4,000 농장	3,000 농장	1,500농장	자료없음
1일 닭처리 능력	5개시설 1,546천 마리 이상 그 외 약 3,000천 마리 이상의 시설 차입	14개 시설 2,500 천 마리	4시설 4,000천 마리	3시설 540천 마리	3시설 420천 마리
기타	취급상품은 다양(마가린, 파스타, 식용유, 조리식품, 피자, 디저트, 유제품 등)	칠면조처리시설 (30천 마리/일), 이타자이항에 식육냉장처리시설 보유, 집배센터 9개 보유, 종계생산농장 6개 시설	배합사료 5시설 부화장 7시설	도축장 3시설, 배합사료 2시설, 부산물처리 2시설	매상고 중 국내시장 83%, 해외시장 17%
국내총판매실적	253억 레알 (그 중 닭고기 관련 4%)	43억 달러 (구 세아라는 17억 달러)	1억 700만유로 (그룹전체의 6%)	18억 레알	26억 71백만 레알
수출총판매실적	106억 레알 (그 중 닭고기 관련 67%)	닭고기, 돈육 모두 수출량은 제 2위	567백만달러 (2007), 세계 140개국에 수출	닭고기제품은 155천 톤	닭고기제품은 78천톤

자료: 민간조사회사

수출 실적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수출량, 수출액을 보면, 2003년에는 각각 1,960천 톤, 1,799백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3,635천 톤, 5,814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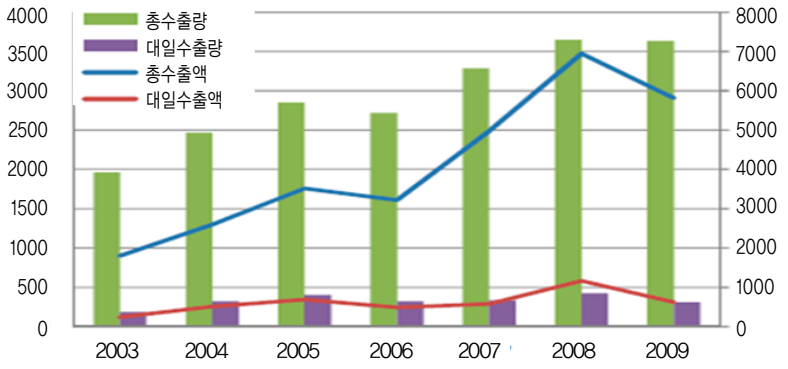
최근의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수출량, 수출액을 보면, 2003년에는 각각 1,960천 톤, 1,799백만 달러(약 2조 1,588억원: 1 달러=1,200원)에서 2009년에는 3,635천 톤, 5,814백만 달러(약 6조 9,786억원)로 지난 7년간 수출량은 85%, 수출액은 223% 증가하였다. 생산 규모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2006년에는 수출량이 4.6% 감소, 수출액도 8.5%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도 수출량 0.3%, 수출액 16.3%가 감소하였다. 수출의 경우 2006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은 남부가 5,300백만 달러(약 6조 3,600억원)로 이 지역만으로도 연간 총수출액 6,949백만 달러(약 8조 3,387억원)의 76.3%를 차지하였다. 브라질농업연구개발공사(EMBRAPA)의 조사에 따르면, 수출에서 육상운송비가 선적가격의 6%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항에 가까운 지역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게 되어, 수출경쟁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UBA 등의 2008년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은 수출에 있어서도 국내생산과 마찬가지로 상위 2개 회사인 브라질푸즈사와 마르후리그사가 연간 수출량의 61.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시장보다도 더 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수출액 6,949백만 달러(약 8조 3,387억원) 중 냉동 부분육은 52%, 냉동 지육은 32%를 차지하여, 국내소비 경향과는 달리 단가가 비싼 냉동 부분육이 수출에 있어 수익의 주체가 된다. 앞으로 업계의 구조개혁이 한층 진행될 경우, 중소규모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함께 해외자본에 의한 다각적 경영기업인 브라질 타이슨사의 움직임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수출 상황 추이

단위: 천 톤, 백만달러



주: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합계
자료: 브라질개발상공성무역국(SECEX)

표 6 2008년 지역별 수출액

단위: 천 달러, (%)

지역	주	수출액	
남 부	계	2,299,636	(76.3)
	파라나	1,806,531	(26.0)
	산타카타리나	2,042,372	(29.4)
	리오그란데드술	1,450,733	(20.9)
남동부	계	744,955	(10.7)
	상파울로	548,388	(7.9)
	미나스제라이스	196,567	(2.8)
중서부	계	773,949	(11.1)
	고이아스	292,450	(4.2)
	매트그라소드술	275,378	(4.0)
	매트그라소	206,121	(3.0)
기타		130,243	(1.9)
전국		6,948,783	(100.0)

주: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합계
자료: 브라질개발상공성무역국(SECEX)

2008년에 브라질 닭고기 산업에 진출한 브라질 타이슨사의 동년 수출실적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치지만, 2010년에는 EU 수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산타카타리나주 이타이오폴리스에서 신규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전해진다.

3. 최근 수급 동향-국제금융위기의 영향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는 닭고기 수출량 세계 제 1위인 브라질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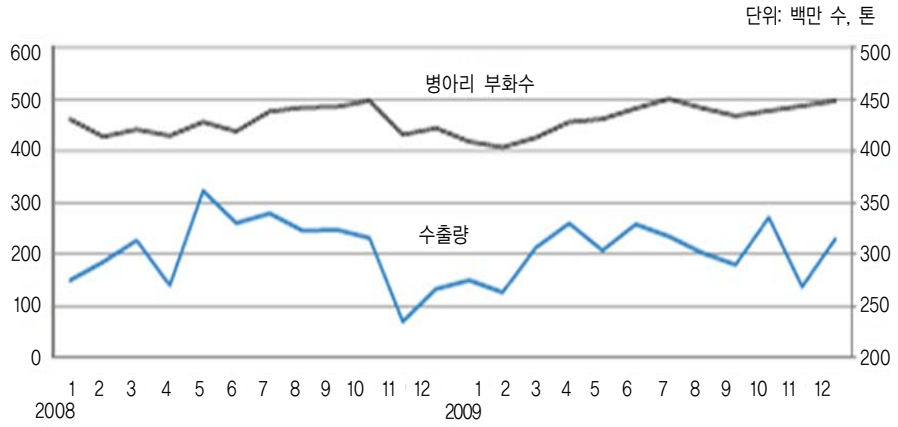
이처럼 브라질 닭고기 산업은 최근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가을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는 닭고기 수출량 세계 제 1위인 브라질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2008년 닭고기 및 닭고기 조제품 수출량은 5월 361천 톤, 상반기(1~6월)에는 1,842천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7.1%증가하는 등 순조로운 증가 추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9월 미국의 금융위기가 보고되면서 해외시장 수요가 감소하여 11월에는 235천 톤으로 감소하는 등 5월~11월까지 6개월간 34.9%의 대폭 감소하였다.

수출 감소로 인해 국내시장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력상품인 냉장 지육가격이 8월에는 kg당 3.1레알(약 2,102원)에서 11월에는 동 2.76레알(약 1,872원)까지 11.0%나 하락하는 등 국내가격이 일제히 하락하였다.

UBA에서는 수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 2월까지 사육마리수를 20% 감소시키도록 회원사에 촉구하였다. 이로 인해 병아리 부화 마리수는 2008년 10월 496.2백만 마리에서 2009년 2월 406.9백만 마리로 18.0% 감소하였다. 2008년 12월의 국내 냉장 지육가격은 병아리 공급마리수 감소와 연말수요 증가와 더불어 동 3.07 레알(약 2,082원)로 11월에 비해 11.2%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7 병아리 부화 마리수와 수출량 추이



주: 병아리 부화수 2009년 11월, 12월은 추정치
자료: 브라질양계협회, 브라질 브로일러용 병아리 생산자협회(APICO)

2009년 2월에는 국내가격과 수출량 모두 반등하여 5월까지 회복 경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6월에 중국이 브라질의 26개 시설에 대해 닭고기 수출 인정 허가를 실시하여 2009년 후반에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이 생겼다. 이 때문에 수출용 닭고기를 확보한 후 생산을 증가시켜, 7월에는 병아리 부화 마리수가 2월보다 22.9% 증가한 500만 마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의 수출수요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중국 이외의 해외시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가가 비싼 냉동 부분육을 중심으로 수출해 온 일본, 러시아로의 수출 수요가 큰 폭으로 떨어져, 2009년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47.3% 감소한 611백만 달러(약 733억원), 러시아에는 동 57.3%감소의 104백만 달러(약 125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 브라질 닭고기산업의 수출수익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국내시장을 보면, 6월과 7월에는 수출용으로 들어가 수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자 가격도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8월 이후에는 중국시장을 예상하여 생산한 닭고기 잉여분이 국내시장으로 유입되어 국내가격이 다시 하락하였다. 따라서 2009년에는 국내가격, 수출량 모두 전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표 7 수출지 국별 수출 상황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

구분	수출국	2008년			2009년			2008/09 증감률	
		수출금액	수출량	가격	수출금액	수출량	가격	수출금액	수출량
냉동통닭	사우디아라비아	529,745	318,3729	1.7	543,821	398,772	1.4	102.7	125.3
	베네주엘라	508,106	302,83	1.7	290,271	164,310	1.8	57.1	54.3
	아랍에밀레이트	231,052	138,310	1.7	182,071	135,884	1.3	78.8	98.2
	쿠웨이트	219,944	130,259	1.7	190,001	148,526	1.3	86.4	114.0
	예멘	89,958	50,397	1.8	88,373	67,270	1.3	98.2	133.5
	기타	628,238	396,268	1.8	632,144	483,574	1.3	100.6	122.0
	합계	2,207,043	1,336,465	1.7	1,926,681	1,398,336	1.4	104.6	104.6
냉동부분육	일본	1,158,940	417,429	2.8	611,118	302,585	2.0	52.7	72.5
	홍콩	557,575	410,605	1.4	580,349	421,729	1.4	104.1	102.7
	러시아	242,651	120,614	2.0	103,540	65,627	1.6	42.7	54.4
	사우디아라비아	198,546	78,227	2.5	196,072	94,383	2.1	98.8	120.7
	네덜란드	178,726	61,068	2.9	171,633	67,102	2.6	96.0	109.9
	기타	1,275,745	841,082	1.5	1,222,876	911,708	1.3	95.9	108.6
	합계	3,612,183	1,929,025	1.9	2,885,588	1,863,134	1.5	79.9	96.6

자료: 브라질개발상공성무역국(SECEX)

4.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획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방역 연습

브라질 농무성은 만일에 대비하여 2009년 7월말에 파라나주 샤바우쟈시에서 최초로 방역연습을 실시하였다.

브라질에서는 아직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이 확인된 바 없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생산활동 제한 조치가 강요되기 때문에, 남부처럼 닭고기 생산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브라질 양계현장에 있어서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브라질 농무성(MAPA)은 만일에 대비하여 2009년 7월말에 파라나주 샤바우쟈시에서 최초로 방역연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습은 MAPA와 판아메리칸 구제역협회 공동개최 하에 수의사, 육군병사, 군경찰, 양계관계자, 현지 시청 및 국내 8개주의 농무부 등 총원 180명이 참가하여, 파라나주 내의 양계장 7개 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실시되었다. 연습 당일 소독팀, 검사팀, 폐사계 처리팀 등으로 나누어, 발생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경 3km의 이동제한지역과 반경 10km의 반출제한지

역을 설정하고, 바이러스를 지역 내에 묶어두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인재 육성과 시뮬레이션 검증에 그 목적이 있다. 참가자에게는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고, 언제 재발될지 모르는 가운데 연습이 진행되었다. 현재 MAPA에서는 이번 연습 결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국에 국제 교섭전문관 배치

2009년 MAPA는 아르헨티나, 벨기에, 스위스,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일본, 미국 등 8개국 브라질 대사관에 무역관련 국제교섭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농업 아타세(전문관)를 배치하기 위한 선발을 실시하였다. 이 교섭전문관은 위생식물 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근거하는 문제 등 무역장벽과 관련된 일이 새로 발생할 경우 기술적 지식을 발휘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MAPA 애그리 비즈니스 국제교류국의 세리오 포르트 국장은 연말 정부홍보 인터뷰에서 '브라질 무역교섭에는 농업분야 전문 기술 지원이 부족했다. 앞으로 아그로비지니스 교섭에는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분야 전문가는 필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교섭전문관은 공모에 의해 선발되며,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개시되어 빠르면 4월경 임지로 파견될 예정이다.

2010년에는 지금까지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작년에 있었던 시장 축소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신규시장 개척

매년 4월경 브라질 개발상공성 무역촉진국(SECEX)은 무역촉진에 관한 행동계획을 공표하여 분야별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인데, 이에 앞서 브라질 닭고기수출업자협회(ABEF) 등 업계 단체는 2010년 2월 앞의 국제교섭 전문관 8명에 대해, 브라질 닭고기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요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ABEF의 시장개척 매니저에 의하면, '2010년은 2009년에 수출량이 감소한 일본, 러시아, 베네주엘라, 아랍에미레이트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2009년에 실적이 늘지 않았던 중국은 물론, 인도, 아프리카 여러 국가(수단 등), 이슬람권 여러 국가(인도네시아 등)에도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가격이 비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전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맺음말

최근 세계규모로 성장한 브라질 닭고기 산업이지만, 이와 같은 성장이 처음부터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2008년 가을 국제금융위기는 브라질 닭고기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해외시장 냉각에 의한 수출량 감소, 국내외 가격 하락에 의한 수익 감소, 금융 파생상품에 의한 고액 손실 및 이에 따른 업계 재편으로 이어졌다.

2009년 MAPA는 브라질 대사관에 무역관련 국제교섭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농업 아타세(전문관)를 배치하기 위한 선발을 실시하였다.

2008년 후반부터 2009년 전반과 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내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만 가는 닭고기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2009년에는 국내가격, 수출량 모두 전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2010년에는 지금까지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작년에 있었던 시장 축소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나 수송비를 어디까지 절감할 수 있을지,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기업 통합 및 제품 다양화가 얼마나 진전될지, 해외시장의 신규개척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는 동시에 만약에 발생할 경우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매우 많다. 현재 브라질 국내에서는 2014년 축구·월드컵 대회, 2016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어, 내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 전체가 밀물 분위기인 가운데 브라질 닭고기 산업이 이 물결을 어떻게 이용하여 다시 성장세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홈페이지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 (Ⅱ)*

최익창·이정민·김대석

2. 품목별 교역전망(계속)

쌀

세계 쌀 교역량은 2019년까지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세계 쌀 교역량은 2006년보다 23% 증가한 3,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 원인은 개발도상국가의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상승 때문이다. 쌀의 소비량 대비 교역량 비율은 7%로써 이는 다른 곡물보다 현저히 낮은 값이다.

세계 쌀 교역량은 2019년까지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세계 쌀 교역량은 2006년보다 23% 증가한 3,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장립종은 세계 쌀시장 교역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립종은 세계 교역량의 1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동아시아가 최대 시장이다. 향미(바스마티 및 재스민 종)가 나머지 쌀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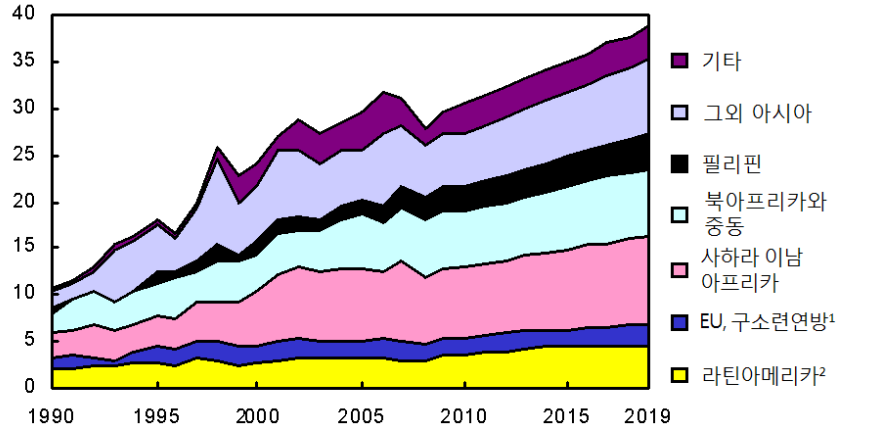
필리핀, 이란, EU, 사우디 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이라크가 최대 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각국의 쌀 수입량은 130만 톤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들 국가가 쌀 생산량을 더 이상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세계 쌀 교역량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중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번역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익창, 이정민, 김대석 연구원이 작성하였다(cic@krei.re.kr, 02-3299-4354, fantom99@ krei.re.kr, 02-3299-4198, sorihunt@krei.re.kr, 02-3299-4127).

그림 1 세계 쌀 수입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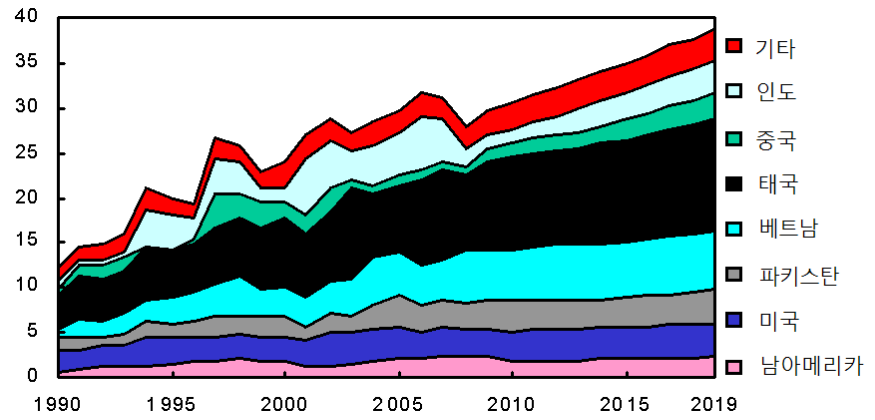


주: 1) 유럽, 구소련 연합 및 기타 유럽. 2) 멕시코 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중동은 인구증가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로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인프라 및 자원 부족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쌀 생산량은 증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10~2019년 세계 쌀 교역량 증가분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세계 쌀 수출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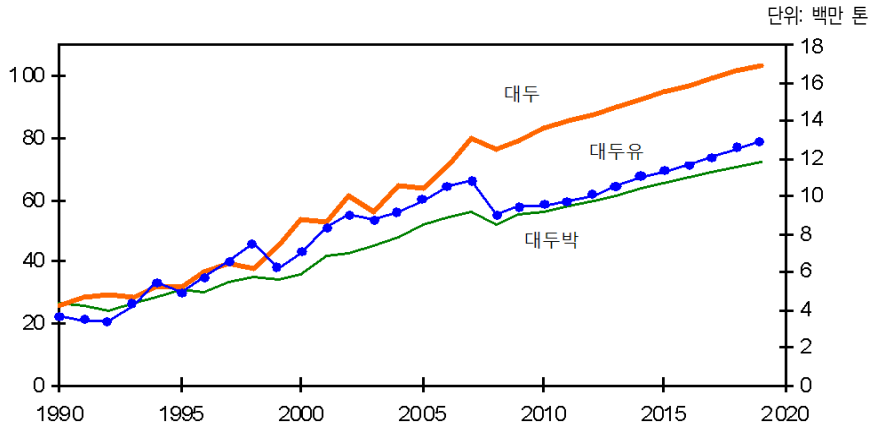
2019년까지 아시아지역은 최대 쌀 수출지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및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으로서, 향후에도 세계 쌀 교역량의 50%와 쌀 수출 증가분의 40%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쌀 수출량은 260만 톤에서 2019년 1,20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태국의 쌀 재배지역 및 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수출은 550만 톤에서 680만 톤까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1990년대부터 세계 쌀 교역량의 3/4를 차지하는 수출국이었으나, 재고 변동과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2008년 비 바스마티[1]종 재배를 금지하면서 최근 쌀 수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쌀 수출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2019년까지 인도의 쌀 수출량은 380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

대두, 대두박, 대두유

그림 3 세계 교역 전망: 대두, 대두박, 대두유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 향후 대두 및 대두박 수출량의 89%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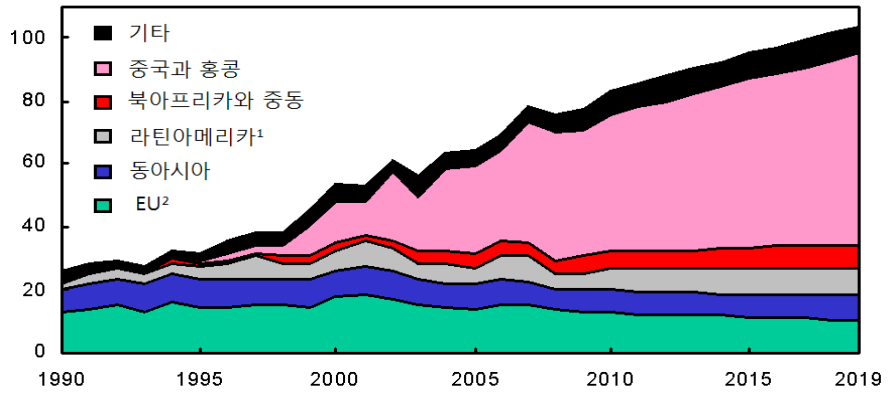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 향후 대두 및 대두박 수출량의 89%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곡물 정책 혼란으로 농부들이 기타 작물보다는 콩 재배를 선호하고 있으며, 목초지역 일부분도 콩 재배로 돌아선 결과 세계 대두 및 대두수출량의 34%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콩 생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사료용 수요 증가로 콩 수출량은 30%선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세계 대두 및 대두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29%에서 2019년 26%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 바스마티(bsmati): 낟알이 길고 향내가 나는 쌀

대두

그림 4 세계 대두 수입

단위: 백만 톤



주: 1) 멕시코 포함, 2) EU 내 교역 불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향후 세계 대두시장 교역량은 25% 증가한 2,10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U는 2002년까지 주요 대두 수입국이었으나, 사료용 곡물박 및 평지박(rapeseed meal), 대두박 수입 증가로 대두 수입량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두 수입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세계 교역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옥수수 및 대두의 생산 혹은 수입의 상충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은 옥수수는 국내 생산하되, 대두는 수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전세계 교역량의 85%(2,08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대만)의 대두 수입량은 육류 수입량과 생산량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사료용 대두박 및 유지박의 수입은 육류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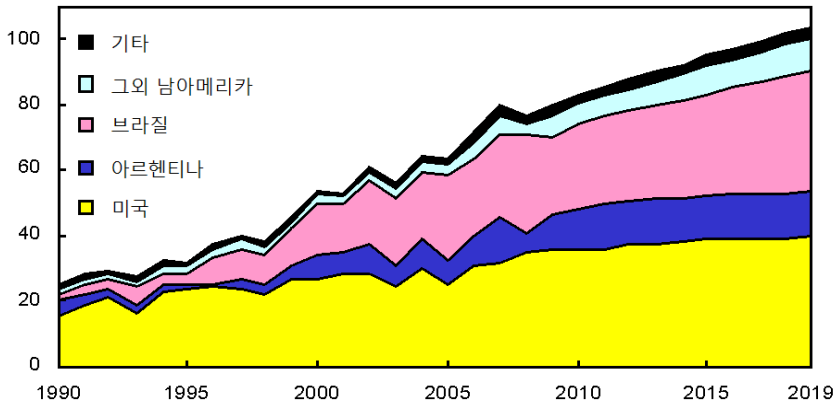
주요 대두 수출국가(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들이 세계 교역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수출국가(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의 등장으로 이들 국가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대두 및 대두 생산물의 주요 수출국이나, 대두 녹병이 만연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용 대두박과 식용 유지, 바이오 디젤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두 생산의 이익 폭이 다른 작물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옥수수 재배지역으로 이용되던 브라질 남부지역이 대두 생산으로 바뀌고 있어 미국과의 옥수수

향후 세계 대두시장 교역량은 25% 증가한 2,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세계 대두 수출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수출 경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라도스 지역 및 레갈 아마존 지역의 대두 생산량 증가로 브라질의 대두 생산 면적은 매년 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대두 수출량은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관세율은 대두 가공품보다 높아 가공품 수출이 더 많다. 그러나 대두수요가 증가하여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은 향후 1,200만 톤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같은 남미국가의 대두 수출량은 45% 증가한 1,0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세계 대두박 교역량은 2019년까지 28% 증가한 1,700만 톤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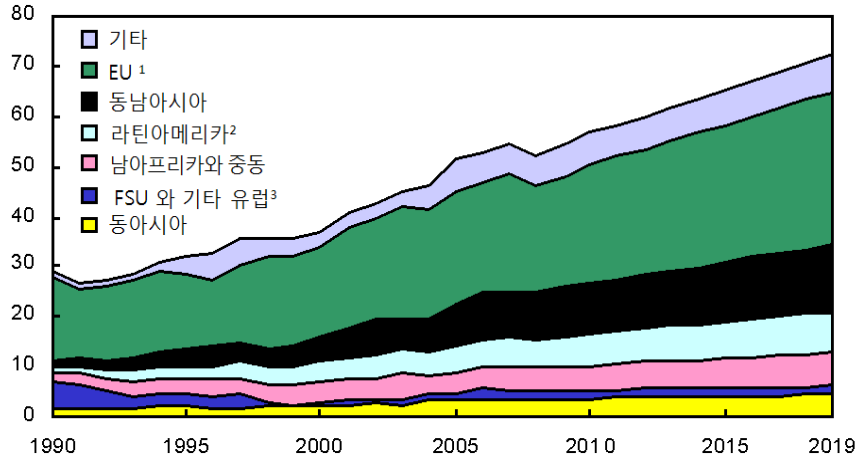
세계 대두박 교역량은 2019년까지 28% 증가한 1,700만 톤으로 예상된다. 가축 사료용 수요와 유지류 생산 정체,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가격 등으로 대두박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대두박 가격이 대두 및 곡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축 사료용으로 대두박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EU는 국내 사료용 곡물 및 유지 작물 생산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 최대 대두박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바이오연료 산업 성장에 따라 유지박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으나, 사료에 이용되기에는 양이 충분하지 않다. 그 결과 EU의 대두박 수입은 세계 교역시장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유 및 유가공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대두박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가축 사료용 대두박 수입이 증가하고, 구소련 연방국의 대두박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육류 생산량 증가로 인해 대두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세계 대두박 수입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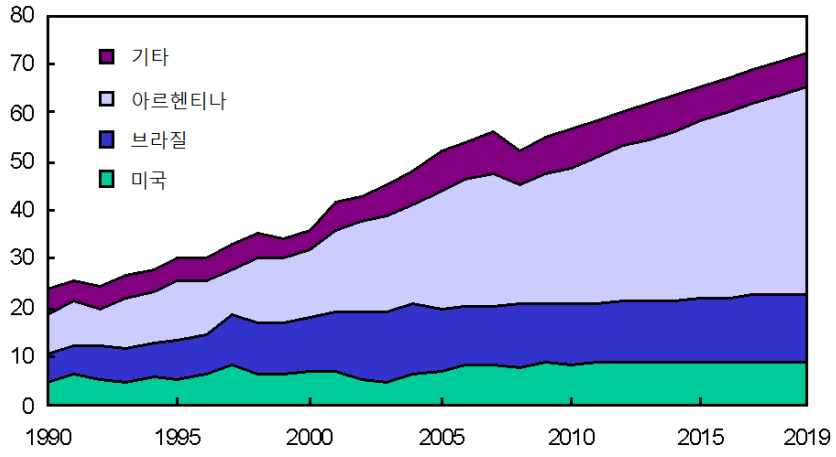
주: 1) EU 내 교역 불포함, 2) 멕시코 포함. 3) 구소련과 그 외 유럽; 1999년 이전의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은 세계 대두박 시장에서의 주요한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세계 대두박 무역 중 90%의 비중을 차지한다. 아르헨티나는 주요 대두박 수출 국가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60%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7 세계 대두박 수출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아르헨티나는 대두가공품에 비해 대두에 높은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유지작물의 가공 능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및 남아메리카 국가에서 대두를 수입하여 대두가공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가금류와 육류 분야의 빠른 성장으로 자국내 사료 소비가 급성장하고 있어, 대두박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브라질의 대두박 가공 능력은 대두의 생산 증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수출관세는 대두제품의 수출보다 대두의 수출에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5%에서 2019년에는 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두박 수출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9백만 톤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 세계 대두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4%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1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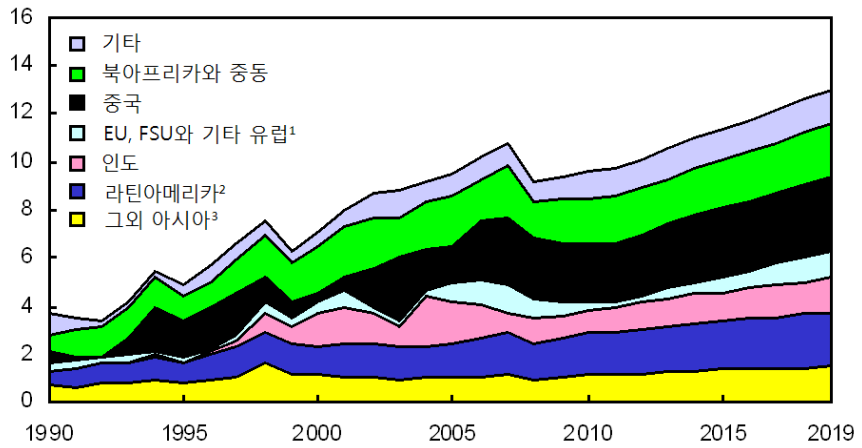
인도의 대두박 수출은 2009년 3백7십만 톤에서 2019년에는 2백3십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자국의 가금류, 달걀, 우유제품 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인도의 대두박 공급이 대부분 자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EU는 사료용 대두박의 비중이 비교적 작지만 꾸준히 러시아와 그 외 동유럽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다.

대두유

그림 8 세계 대두유 수입

단위: 백만 톤



주: 1) EU, 구소련연방 및 기타 유럽, 2) 멕시코 포함. 3)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세계 대두유 수입은 식용과 바이오연료 제품에 필요한 대두유의 수요 증가로 인해 예상보다 3백4십만 톤(3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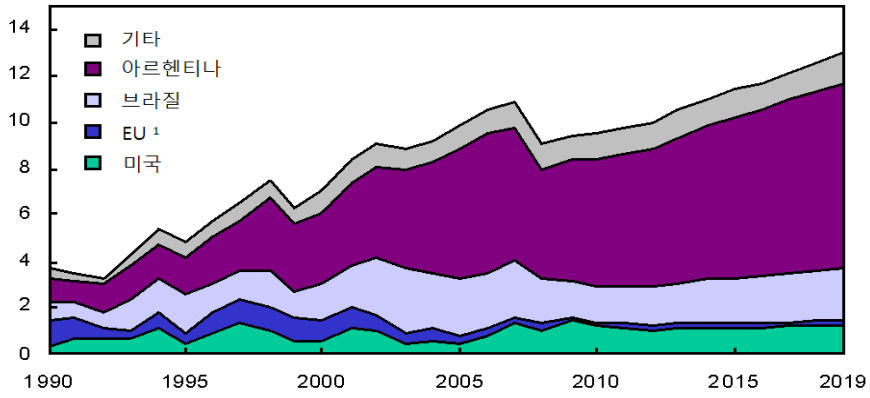
세계 대두유 수입은 식용과 바이오연료 제품에 필요한 대두유의 수요 증가로 인해 예상보다 3백4십만 톤(35%) 증가하였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시장에서 주요 대두유 수입국이며 주로 음식 조리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두 국가의 수입 물량의 합은 세계총수입의 1/3 이상이었다. 대두유 교역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 식물성오일 무역의 선두자리를 놓고 야자유와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라틴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중동지역의 소득과 인구의 증가는 대두유의 수요와 수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인도는 대두유 수입이 많은데, 그 이유는 식물성 기름의 국내 수요 급증과 유지작물의 국내 생산량 증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불규칙한 생육 환경, 투입재 사용 저조, 낮은 단수로 인도의 유지작물 생산량 증가가 어렵다. 국제 가격의 상승으로 인도의 식용유 수입 관세는 2008년 철폐된 바 있다. 향후 십년간 대두유 관세는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다른 주요 수입유의 관세는 75~85%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식물성 기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사용에 있어 다른 작물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작물 재배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9 세계 대두유 수출

단위: 백만 톤



주: 1) EU 내 교역 불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대두유 수출에서 75~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는 작황이 좋지 못해 73%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통적 수출국인 만큼 전망기간 동안 다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식용유 가공능력이 뛰어나고, 국내 대두유 시장이 크지 않으며, 대두보다 대두를 가공한 제품의 수출 관세가 낮기 때문에 대두유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북동부의 불모지 개척과 이모작 및 방목지의 조정으로 인한 대두 생산 증가로 대두 가공과 대두유 수출이 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가공능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의 국가들로부터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두유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에서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대두재배가 증가하여 대두유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대두유의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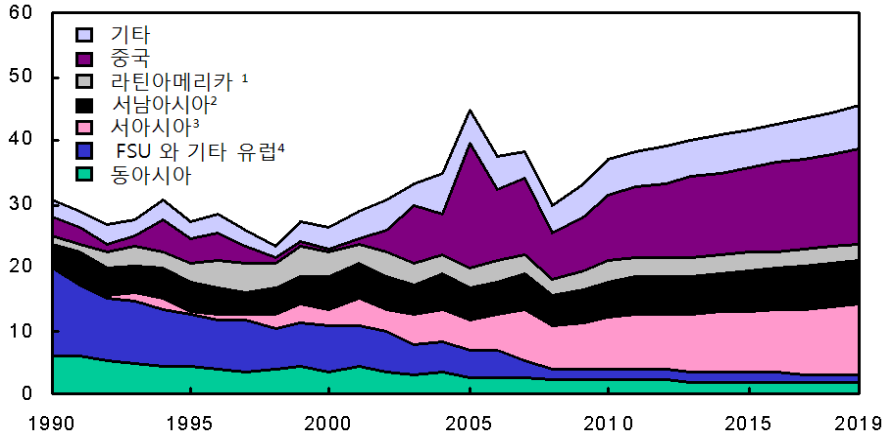
미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대두유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두유가 바이오디젤 생산에 이용됨에 따라 수출에 제약요인이 되었다. 캐나다로부터 카놀라유(Canola Oil)를 수입하고 동남아로부터 팜유(Palm Oil)를 수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식용 기름의 공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성 기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면화

그림 10 세계 면화 수입

단위: 백만 베일



주: 1) 멕시코 포함, 2)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3)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4) 유럽, 구소련연방, 그외 유럽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세계 면화 교역량은 2019년까지 연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면화 교역량은 2019년까지 연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망기간 말까지 2005년 수준은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5년 Multifiber 협정(MFA) 할당량이 폐지되기 전 5년간, 면화 교역에 상당한 지리적 이동이 있었다. 세계 면화 수입의 아시아 비중은 1990년대 50% 수준에서 2009년 72%까지 증가하

였으며, 2019년에는 7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까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로 인해 세계 면화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직물 산업은 2005년 Multifiber 협정(MFA) 폐지 결과 발생한 직물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이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면화 수입도 계속 증가하였다. 중국의 직물 산업과 면화 수입은 2019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WTO가입 후 빠르게 성장하였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보다는 더 완만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간 중국은 세계 면화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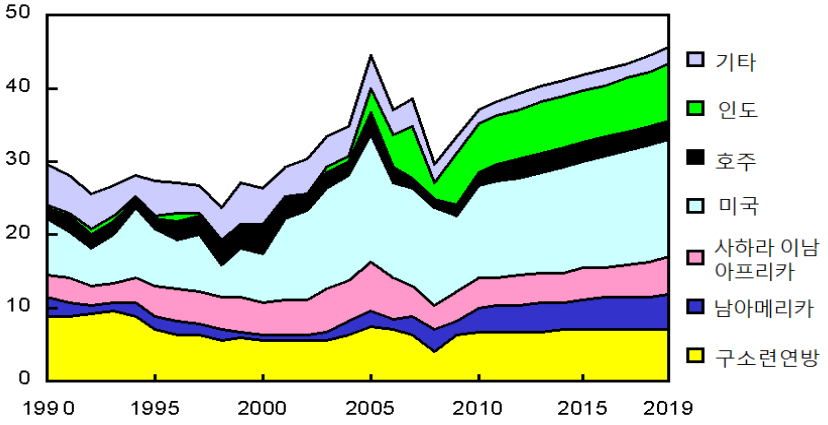
파키스탄은 최근 주요 면화 수입국으로 떠오르고 있어,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두 번째 면화 수입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파키스탄의 면화 분야에서 특유한 세균의 일종인 Bacillus Thuringiensis(Bt) 면화 신품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면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

몇 년 전까지 터키의 직물 산업은 EU와의 무역 흑자로 수익이 많았다. 그러나 Multifiber 협정(MFA) 할당량의 폐지는 다른 경쟁자들로 하여금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EU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터키의 면화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일본, 대만, 대한민국의 면화 수입은 직물 무역의 재편과 높은 임금으로 인해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낮은 임금과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들은 계속 직물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그림 11 세계 면화 수출

단위: 백만 베일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세계화로 인해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면화 생산이 촉진될 전망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도, 브라질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국들은 이전 Multifiber 협정(MFA) 무역 때부터 면화 생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특히 인도가 Bacillus thuringiensis(Bt) 신품종인 유전자 변형 면화를 빠르게 도입하여, 면화 생산에도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전망기간 내내 세계 최고의 면화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출은 2019년까지 세계 무역의 35% 수준을 초과하는 1천 6백만 베일(bales) 이상(24%) 증가한다. 그러나 세계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의 40% 수준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 연방(FSU)의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직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일부 아시아 국가의 정책은 면화 수출보다 오히려 직물 생산품의 수출을 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래로 낮은 세계 가격, 아프리카 금융공동체(CFA)의 확장은 서아프리카까지 낮은 생산성과 수출을 초래하였다. 아프리카 금융공동체(CFA)에 속한 14개 회원국들의 재배면적은 1994년 CFA의 평가절하 이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들 중 일부 국가는 경제발전과 Bacillus thuringiensis(Bt) 면화 신품종의 채택으로 생산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수출은 앞으로 10년 동안 1/3 수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Bacillus thuringiensis(Bt) 면화 신품종을 포함한 교배종 면화를 채택한 후로, 단수가 향상되어 생산이 증가해 왔고, 최근에는 수출도 늘어났다. 단수는 교배종 면화의 재배면적이 확장되고 경작기술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화 생산의 증가로 인해 인도는 국내 직물 생산과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수출 규모는 주요 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보다 커졌으며, 이러한 추세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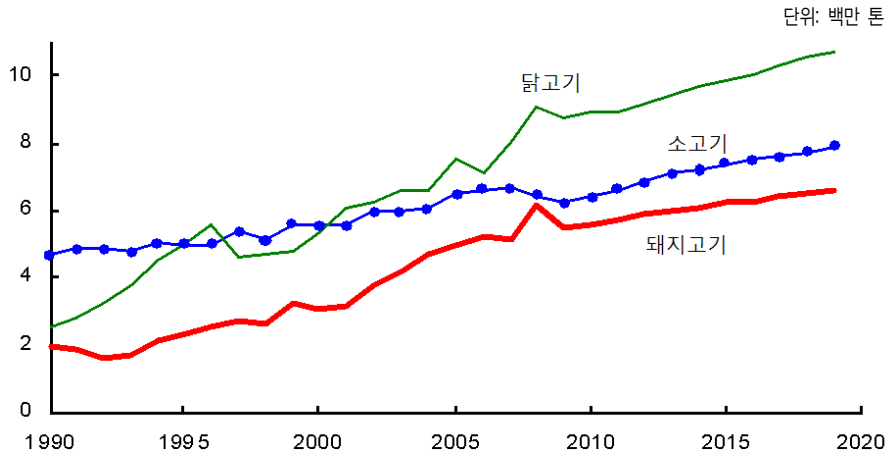
육류

육류 수출량은 쇠고기 1천 5백만 톤(2.2%), 돼지고기 9십만 톤(1.8%), 가금류 1천 5백만 톤(1.9%)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1인당 육류 소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약 0.6%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은 여전히 연간 1.8%씩 상승할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부류별 수출량은 쇠고기가 1천 5백만 톤(연간 2.2%), 돼지고기가 9십만 톤(연간 1.8%), 가금류가 1천 5백만 톤(연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세계 육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육류 수입은 정부의 국내 육류 생산 증대 정책으로 전망기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12 세계 육류 수출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은 전망기간 동안 천천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구제역(BSE)이 처음 발생한 2002년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쇠고기 수출은 EU가 쇠고기 생산을 줄이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제한함으로써 WTO가 제한하는 수준(81만 7천 톤) 아래로 유지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출은 2005년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세와 정책 변화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수출 경쟁력은 저하되었으나, 쇠고기 수출은 국내 생산과 1인당 소비가 늘면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전망기간 동안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다. 브라질의 돼지고기 분야가 확장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은 일본과 한국 시장보다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망기간 동안 브라질은 가금류 생산물의 가장 큰 수출국으로의 지위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쇠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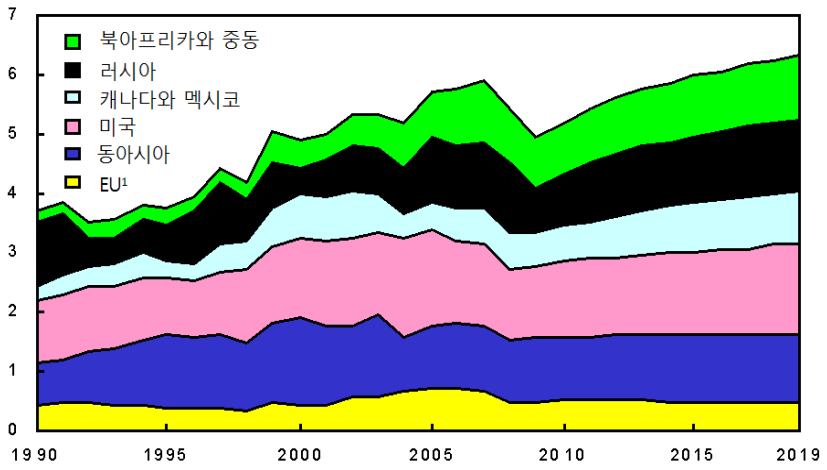
국제적인 경기악화로 인하여 2008년과 2009년의 쇠고기 수입은 감소하였다. 2008년에는 남아시아국가들과 유럽연합, 이집트의 수입이 감소했으며 2009년에는 러시아와 멕시코의 수입이 감소했다.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쇠고기 수입은 주요 수입국이 1백5만 톤(23%) 이상 수입을 늘려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은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이었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방목으로 키운 쇠고기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쇠고기 수입은 주요 수입국이 1백 5만 톤(23%) 이상 수입을 늘려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13 세계 쇠고기 수입

단위: 백만 톤



주: 1) EU 내 교역 불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소비의 증가로 인하여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여 자국 생산량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유럽연합과 남아메리카의 쇠고기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방목하여 기른 쇠고기 수입을 꾸준히 늘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들 국가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향후 10년 동안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로 방목한 쇠고기를 수입하며, 갈은 쇠고기와 가공품을 만들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지방이 적은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 수입이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쇠고기 수입이 많은 아시아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쇠고기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의 쇠고기 수입은 2010년부터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수입에는 미국의 곡식으로 키워진 쇠고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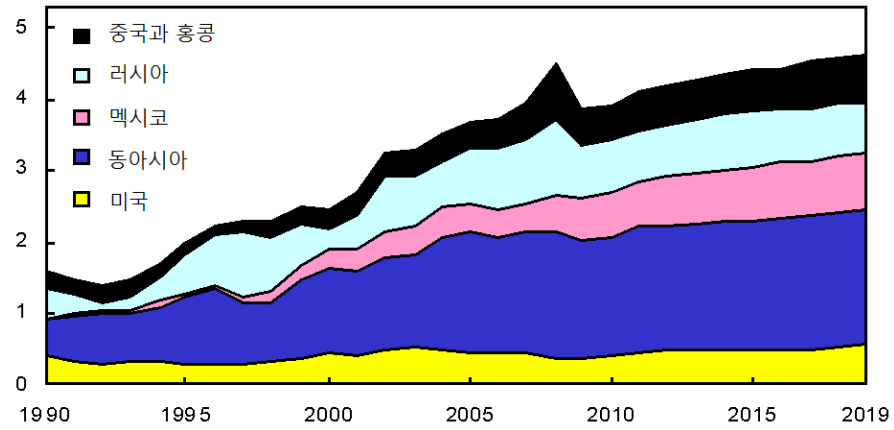
돼지고기

전망기간 동안 돼지고기 수입은 70만 톤 이상 증가하여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돼지고기의 수입은 2008년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9년 세계경제 위기로 인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및 이전 구소련 연방(FSU), 중국, 일본,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수입 감소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기간 동안 돼지고기 수입은 70만 톤 이상 증가하여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4 세계 돼지고기 수입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멕시코는 세계 돼지고기 수출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이다. 소득과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망기간 동안 19만 톤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향후 10년 동안 세계의 돼지고기 무역에 있어서 전체의 1/4 수준까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의 일부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부위의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수입국이었으나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돼지고기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전망기간동안 세계 돼지고기 수입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2007년 돼지질병으로 인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8년에는 소규모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다시 생산을 재개하여 2009년에는 소규모 수출이 되었다. 향후에도 돼지고기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며, 거의 대부분 자국에서 소비되고 소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돼지고기 수입은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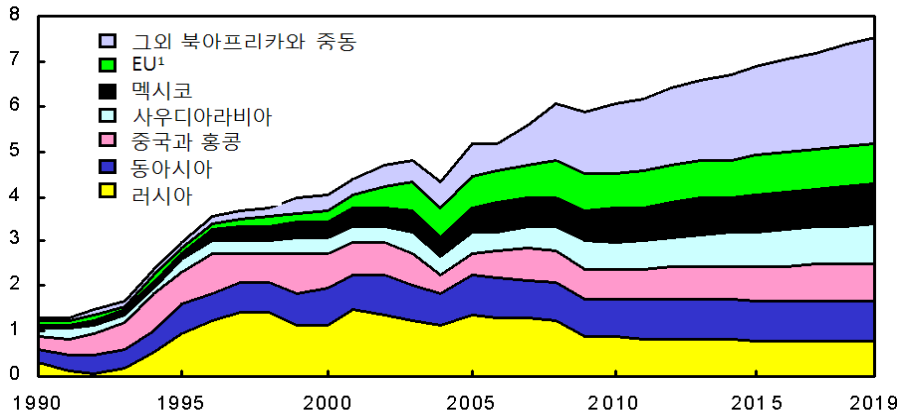
가금류

가금류의 수입은 세계적 경기 불황에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전망기간동안 약 1백 5십만 톤(2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가금류의 수입은 주요 수입국들로 인해 세계적 경기 불황에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전망기간동안 약 1백 5십만 톤(2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구소련 연방(FSU)과 유럽,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금류의 수입은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5 세계 가금류 수입

단위: 백만 톤



주: 1) EU 내 교역 불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2010~2019년까지의 세계 가금류 수입량 증가의 주된 원인은 주요 수입국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북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의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에 따른 수요 급증 때문이다. 한편, 여러 국가에서 동물 관련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생산량 증가폭 둔화와 수입량 증가가 예상된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소득 증가로 인하여 가금류 수요와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가금류 가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비해 가격이 낮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2019년까지 멕시코의 국내 가금류 생산은 증가하지만 소비 증가율보다는 낮고, 수입량은 18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가금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러시아는 정책적으로 TRQ 제한과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소득과 1인당 가금육류 수요 증가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생산이 제한적이고, 1인당 소비는 증가하여 향후 10년간 수입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과 중국 등의 가금류 주요 수출국들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완전조리식품으로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리식품은 생산비용이 높아져 아시아, 유럽, 중동 등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가금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수입과 수출도 각각 15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10. 4)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10. 4)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10. 4)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10. 4)*

성 명 환

1. 국제 연물가격

쌀의 본선인도가격

2010년 4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9.7% 하락한 톤당 728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9% 하락한 톤당 521달러이다.

미 농무부(USDA)가 2010년 3월 1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4.2% 하락한 톤당 739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1.7% 하락한 톤당 543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2006년 4월에는 톤당 485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상반기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부터 중립종 쌀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758달러, 9월에는 1,11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약간 하락하여 2009년 2월까지 1,075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에는 톤당 1,208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해 하락하여 2010년 4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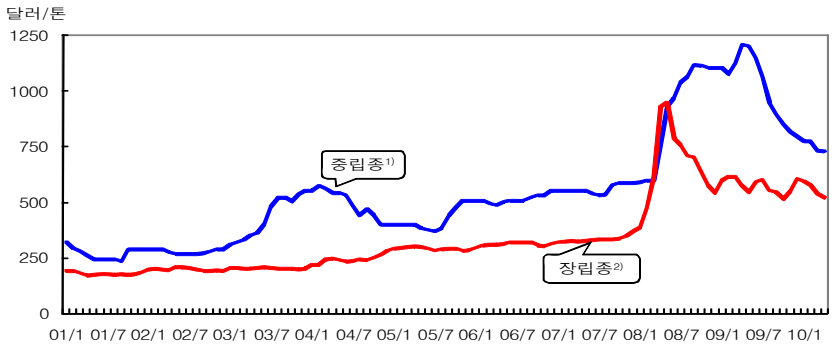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mhsung@krei.re.kr, 02-3299-4366).

종 쌀 가격은 톤당 728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9.7%, 전월대비 0.5% 하락하였다. 2010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태국 수출 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에는 474달러, 3월 615달러, 4월에는 929달러,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여 12월에는 548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2009년 3월에는 615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어 2009년 10월에는 513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0년 1월에는 596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반전되어 4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8.9%, 전월대비 3.2% 하락한 톤당 521달러이다. 인도의 생산량과 재고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0년 장립종 쌀가격은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중립종 쌀 가격은 앞으로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장립종 쌀가격도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주: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품,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자료: USDA, Rice Outlook, April 12, 2010.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국 가		2007/08	2008/09	2009.4	2010.3	2010.4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미국	CA 중립종[1]	694	1,119	1,208	732	728	-39.7	-0.5
	남부 장립종[1]	621	610	534	509	502	-6.0	-1.4
태 국[2]		551	609	572	538	521	-8.9	-3.2
베 트 남[3]		620	456	460	386	370	-19.6	-4.1

주: 1)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남부 장립종은 2등급,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s.
자료: USDA, Rice Outlook, April 12, 2010.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

2010년 4월 12일 현재 운임포함 현물가격은 옥수수가 톤당 226달러, 대두가 톤당 436달러, 대두박이 톤당 382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걸프만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6년 상반기 14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188달러 수준이었다. 2010년 4월 12일 현재 톤당 226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월대비 7.1%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3.4%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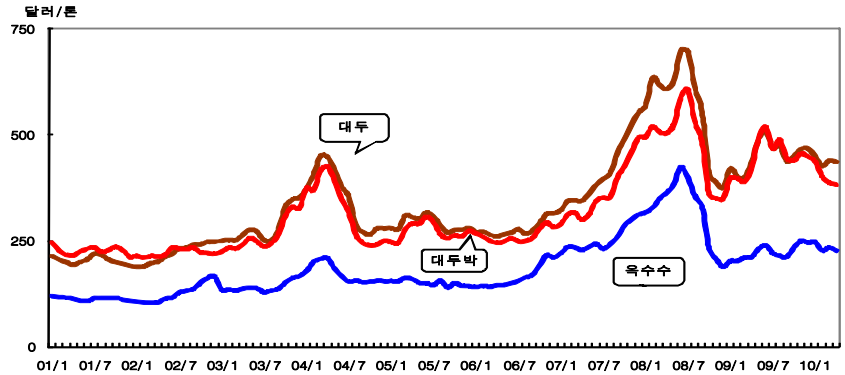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4년 10월에는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톤당 70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375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10년 4월 12일 현재 톤당 436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0.7%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0.7% 낮은 수준이다.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7월 6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34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2009년 6월에는 톤당 518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10년 4월 12일 현재 톤당 382달러로서 전년 동월대비 9.3%, 전월대비 1.3% 하락하였다.

그림 2 월별 옥수수 · 대두 ·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자료: 한국사료협회 2010년 4월 12일 가격 기준.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C&F)

품 목	2008	2009	2009.4	2010.3	2010.4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옥 수 수	322	222	211	234	226	7.1	-3.4
대 두	565	451	433	439	436	0.7	-0.7
대 두 박	484	446	421	387	382	-9.3	-1.3

자료: 한국사료협회 2010년 4월 12일 가격 기준.

2. 국제 선물가격

2010년 4월 12일 현재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10년 5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5.6% 하락한 톤당 178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10년 5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9.9% 하락한 톤당 137달러, 2010년 5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6% 하락한 톤당 353달러이다.

2010년 4월 현재 캔사스 상품 거래소의 2010년 5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178달러이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2010년 5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137달러, 2010년 5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353달러이다.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에는 19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12월에는 20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226달러까지 상승하여 6월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0년 4월 12일 현재 2010년 5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78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5.6%, 전월대비 1.7% 하락하였다. 2009/10년도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공급량 및 재고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맥가격은 약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한 후 10월까지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11월 톤당 150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6월에는 27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에 145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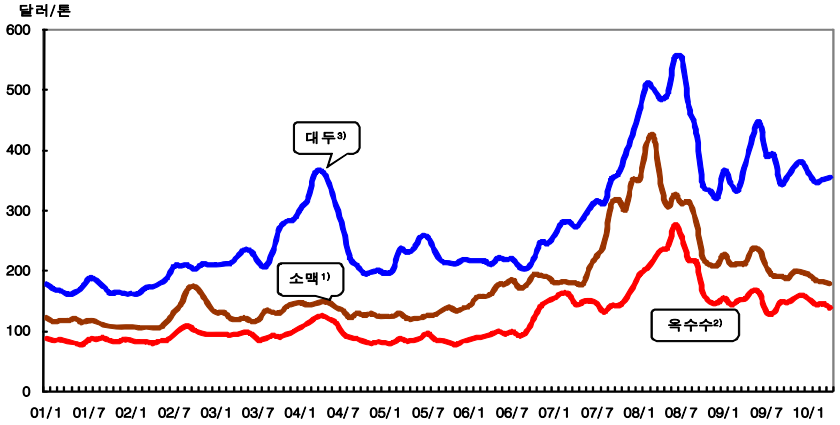
2009년 1월에는 톤당 154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9년 8월에는 톤당 129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10년 4월 12일 현재 2010년 5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37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9.9%, 전월대비 5.5% 하락하였다. 2009/10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되지만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고, 재고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9/10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약간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선물가격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까지 톤당 210~22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 508달러, 6월에는 55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 319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36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 3월에는 332달러로 하락하였으나 6월에는 다시 톤당 445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9년 9월에는 톤당 342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10년 4월 12일 현재 2010년 5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6% 하락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0.9% 상승한 톤당 353달러이다. 2009/10년도 대두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 기말재고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약보합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월별 소맥·옥수수·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1)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3 소맥·옥수수·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품 목	2007/08	2008/09	2009.4	2010.3	2010.4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소 맥[1]	315	247	211	181	178	-15.6	-1.7
옥 수 수[2]	203	155	152	145	137	-9.9	-5.5
대 두[2]	462	373	374	350	353	-5.6	0.9

주: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10년 2월 12일 기준 선물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연도[1]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2]		태국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소맥[3]	옥수수[4]	대두[4]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2007/08	621	694	551	570	315	203	462
2008/09	610	1,119	609	616	247	155	373

주: 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품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USDA ERS.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http://www.ams.usda.gov/mnreports/lsddgr.pdf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10. 4)*

성 명 환

1. 전체 곡물

2009/10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0.7% 감소한 22억 2,207만 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1억 9,510만 톤으로 전망된다.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4월 9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9/10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0.7% 감소한 22억 2,20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대비 옥수수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나 쌀, 소맥 생산량은 모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2009/10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4,91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6억 7,117만 톤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보다 약 7,000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2009/10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도 전년보다 2.0% 증가한 21억 9,51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10년도에는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2,7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전년보다 6.3% 감소된 2억 6,69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10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0% 증가한 4억 7,608만 톤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2008/09년도보다 0.8% 포인트 높은 21.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mhsung@krei.re.kr, 02-3299-4366).

그림 1 전체 곡물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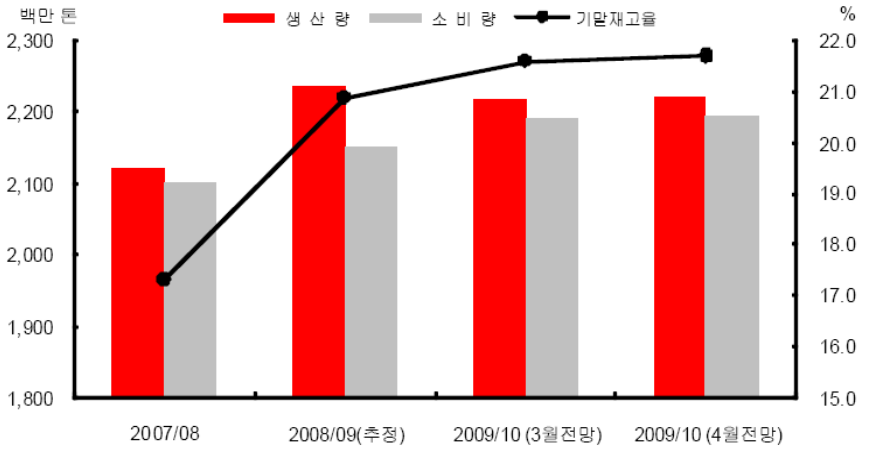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10.3	2010.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123.75	2,236.69	2,218.46	2,222.07	-0.7	0.2
공 급 량	2,467.26	2,602.06	2,665.82	2,671.17	2.7	0.2
소 비 량	2,101.89	2,152.96	2,192.97	2,195.10	2.0	0.1
교 역 량	275.55	284.94	266.22	266.90	-6.3	0.3
기말재고량	365.37	449.10	472.85	476.08	6.0	0.7
기말재고율(%)	17.4	20.9	21.6	21.7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1, April 9, 2010.

2. 쌀

2009/10년도 쌀 생산량은 2008/09년보다 1.4% 감소한 4억 4,081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미국, 태국, 중국의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 베트남, 일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는 최근 강우량 부족으로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12.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10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4억 4,151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3,731만 톤보다 약 42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2009/10년도 쌀 생산량은 4억 4,081만 톤, 소비량은 4억 4,151만 톤으로 예상된다. 교역량은 3,004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6.7%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재고율은 20.4%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보다 4.3% 늘어난 3,00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6.7%, 미국도 전년대비 10.0%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베트남 수출량은 전년대비 3.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쌀 수출량 중에서 태국이 33.3%, 베트남 19.1%, 미국이 11.0%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비중이 6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9,02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09/10년도 기말재고율도 20.4%로 전년도보다 0.4% 포인트 하락될 전망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20.9%, 20.3%, 5.0%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고량도 전년대비 6.2% 증가될 전망이다. 반면, 인도와 베트남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21.1%, 5.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쌀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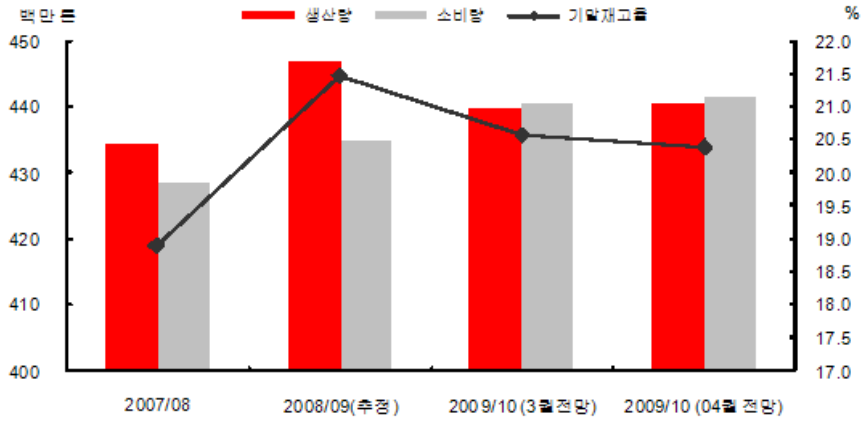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10.3	2010.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34.00	447.20	440.28	440.81	-1.4	0.1
공 급 량	509.14	528.20	531.50	531.71	0.7	0.0
소 비 량	428.14	437.31	440.57	441.51	1.0	0.2
교 역 량	31.25	28.79	30.56	30.04	4.3	-1.7
기말재고량	81.00	90.90	90.93	90.20	-0.8	-0.8
기말재고율(%)	18.9	20.8	20.6	20.4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1, April 9, 2010.

3. 소맥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9/10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6억 7,84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9/10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8/09년보다 1.1% 증가한 6억 4,783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파키스탄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러시아는 전년대비 8.5%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12.0% 감소한 1억 2,589만 톤이 될 전망이다. 2009/10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보다 14.8% 줄어든 2,354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18.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수출량도 전년보다 4.3% 줄어든 1,80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 기말재고량은 1억 9,582만 톤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23.2%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고량도 전년대비 44.6% 늘어날 전망이지만 EU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7.4% 감소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지난해의 25.8%에서 30.2%로 4.4%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6억 7,842만 톤, 소비량은 러시아, 파키스탄의 소비가 늘어나 6억 4,78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10.3	2010.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11.02	683.27	678.01	678.42	-0.7	0.1
공 급 량	739.96	805.93	843.58	843.65	4.7	0.0
소 비 량	617.30	640.70	646.80	647.83	1.1	0.2
교 역 량	117.21	143.01	125.05	125.89	-12.0	0.7
기말재고량	122.66	165.23	196.77	195.82	18.5	-0.5
기말재고율(%)	19.9	25.8	30.4	30.2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1, April 9, 2010.

4. 옥수수

중국, 멕시코, EU의 옥수수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8.6%, 40.0%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9/10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1.4% 증가된 8억 568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9/10년도의 소비량은 전년보다 3,182만 톤 늘어난 8억 898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8.0%, 4.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의 소비량은 3.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9/10년도에는 소비량이

2009/10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8억 568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8억 898만 톤으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33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17.8%가 될 전망이다.

생산량을 약 33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09/10년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1.9% 증가한 8,601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1%, 14.0%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70.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2.3%, 18.8% 늘어날 전망이다.

2009/10년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2% 감소한 1억 4,42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330만 톤 줄어든 수준이다. 2009/10년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2% 포인트 줄어든 17.8%가 될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10.3	2010.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792.44	794.79	803.69	805.68	1.4	0.2
공 급 량	901.81	924.65	950.09	953.18	3.1	0.3
소 비 량	771.95	777.16	809.93	808.98	4.1	-0.1
교 역 량	98.56	84.41	85.45	86.01	1.9	0.7
기말재고량	129.86	147.50	140.15	144.20	-2.2	2.9
기말재고율(%)	16.8	19.0	17.3	17.8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1, April 9, 2010.

5. 대두

2009/10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5,746만 톤, 소비량은 2억 3,56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의 비중은 32.0%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2009/10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5,746만 톤으로 전년대비 21.6%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전년대비 각각 13.2%, 16.8%, 68.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은 6.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8/09년 2억 2,216만 톤보다 1,353만 톤 늘어난 2억 3,56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6.5%, 15.8%, 9.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9/10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2,20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7.1% 증가한 8,24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 중에서 미국이 47.7%, 브라질이 31.9%, 아르헨티나가 8.5%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88.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25.2%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브라질은 12.3%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6,296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4,282만 톤과 비교하여 47.0%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7.4% 포인트 상승한 26.7%가 될 전망이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10.3	2010.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21.21	211.77	255.91	257.46	21.6	0.6
공 급 량	284.17	264.73	297.93	300.28	13.4	0.8
소 비 량	229.74	222.16	235.86	235.69	6.1	-0.1
교 역 량	79.59	76.94	81.18	82.41	7.1	1.5
기말재고량	52.96	42.82	60.67	62.96	47.0	3.8
기말재고율(%)	23.1	19.3	25.7	26.7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1, April 9, 2010.

6. 대두박

2009/10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6,064만 톤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소비량은 1억 5,942만 톤으로 전년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12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5,512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 중에서 아르헨티나 48.9%, 브라질 21.8%, 미국이 16.5%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수출 비중은 87.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76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낮은 3.6%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전년보다 5.9%, 소비량은 4.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은 생산량의 3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10.3	2010.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8.44	152.20	160.73	161.19	5.9	0.3
공 급 량	164.98	158.38	165.59	166.14	4.9	0.3
소 비 량	157.24	152.43	158.74	159.00	4.3	0.2
교 역 량	55.77	52.02	55.01	55.01	5.7	0.0
기말재고량	6.18	4.95	5.40	5.68	14.7	5.2
기말재고율(%)	3.9	3.2	3.4	3.6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1, April 9, 2010.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10.3	2010.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09.14	528.20	531.50	531.71	0.7	0.0
기초재고량	75.14	81.00	91.22	90.90	12.2	-0.4
생산량	434.00	447.20	440.28	440.81	-1.4	0.1
미국	6.34	6.52	7.03	7.03	7.8	0.0
태국	19.80	19.85	20.40	20.30	2.3	-0.5
베트남	24.38	24.39	24.30	24.30	-0.4	0.0
인도네시아	37.00	38.30	38.80	38.80	1.3	0.0
인도	96.69	99.15	87.00	87.00	-12.3	0.0
중국	130.22	134.33	137.00	137.00	2.0	0.0
일본	7.93	8.03	7.62	7.62	-5.1	0.0
수입량	29.26	26.98	28.84	28.18	4.4	-2.3
인도네시아	0.35	0.25	0.25	0.25	0.0	0.0
중국	0.30	0.34	0.30	0.30	-11.8	0.0
일본	0.60	0.66	0.70	0.70	6.1	0.0
소비량	428.14	437.31	440.57	441.51	1.0	0.2
미국	4.08	4.10	4.17	4.34	5.9	4.1
태국	9.60	9.50	9.60	9.60	1.1	0.0
베트남	19.40	19.00	19.15	19.15	0.8	0.0
인도네시아	36.35	37.09	37.60	37.60	1.4	0.0
인도	4.08	91.05	89.00	89.00	-2.3	0.0
중국	127.45	133.00	134.50	134.50	1.1	0.0
일본	8.18	8.33	8.20	8.20	-1.6	0.0
수출량	31.25	28.79	30.56	30.04	4.3	-1.7
미국	3.35	2.99	3.20	3.29	10.0	2.8
인도	3.35	2.10	2.00	2.00	-4.8	0.0
태국	10.01	8.57	10.00	10.00	16.7	0.0
베트남	4.65	5.95	5.75	5.75	-3.4	0.0
기말재고량	81.00	90.90	90.93	90.20	-0.8	-0.8
미국	0.94	0.97	1.31	1.03	6.2	-21.4
태국	2.71	4.79	5.89	5.79	20.9	-1.7
베트남	2.02	1.96	1.86	1.86	-5.1	0.0
인도네시아	5.61	7.06	8.49	8.49	20.3	0.0
인도	0.94	19.00	15.00	15.00	-21.1	0.0
중국	38.02	38.90	40.85	40.85	5.0	0.0
일본	2.56	2.72	2.64	2.64	-2.9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1, April 9, 2010.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10.3	2010.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39.96	805.93	843.58	843.65	4.7	0.0
기초재고량	128.94	122.66	165.57	165.23	34.7	-0.2
생산량	611.02	683.27	678.01	678.42	-0.7	0.1
미국	55.82	68.02	60.31	60.31	-11.3	0.0
호주	13.57	20.94	22.50	22.50	7.4	0.0
캐나다	20.05	28.61	26.50	26.50	-7.4	0.0
EU27	120.13	151.08	138.14	138.14	-8.6	0.0
중국	109.30	112.46	114.50	114.50	1.8	0.0
러시아	49.40	63.70	61.70	61.70	-3.1	0.0
수입량	113.45	136.28	124.20	124.85	-8.4	0.5
EU27	6.94	7.74	6.50	6.00	-22.5	-7.7
브라질	6.71	6.00	6.50	6.50	8.3	0.0
북아프리카	21.73	23.47	19.05	19.25	-18.0	1.0
파키스탄	1.49	3.13	0.50	0.50	-84.0	0.0
인도	1.96	0.01	0.20	0.30	2900.0	0.0
러시아	0.44	0.20	0.20	0.20	0.0	0.0
소비량	617.30	640.70	646.80	647.83	1.1	0.2
미국	28.61	34.29	31.62	31.93	-6.9	1.0
EU27	116.54	127.50	127.00	125.50	-1.6	-1.2
중국	106.00	102.50	103.00	103.00	0.5	0.0
파키스탄	22.40	22.80	23.30	23.20	1.8	-0.4
러시아	37.65	38.90	41.20	42.20	8.5	2.4
수출량	117.21	143.01	125.05	125.89	-12.0	0.7
미국	34.36	27.64	22.45	23.54	-14.8	4.9
캐나다	16.12	18.81	18.50	18.00	-4.3	-2.7
EU27	12.27	25.32	19.00	20.00	-21.0	5.3
기말재고량	122.66	165.23	196.77	195.82	18.5	-0.5
미국	8.32	17.87	27.23	25.84	44.6	-5.1
EU27	12.34	18.35	16.99	16.99	-7.4	0.0
중국	38.96	48.69	59.99	59.99	23.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1, April 9, 2010.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10.3	2010.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901.81	924.65	950.09	953.18	3.1	0.3
기초재고량	109.37	129.86	146.40	147.50	13.6	0.8
생산량	792.44	794.79	803.69	805.68	1.4	0.2
미국	331.18	307.14	333.53	333.53	8.6	0.0
아르헨티나	22.02	15.00	21.00	21.00	40.0	0.0
EU27	47.56	62.72	55.77	55.77	-11.1	0.0
멕시코	23.60	24.23	22.00	21.30	-12.1	-3.2
동남아시아	24.32	24.67	25.15	25.00	1.3	-0.6
중국	152.30	165.90	155.00	155.00	-6.6	0.0
수입량	98.36	82.30	82.75	82.27	0.0	-0.6
이집트	4.15	5.03	4.20	5.00	-0.6	19.0
EU27	14.02	2.74	2.50	2.50	-8.8	0.0
일본	16.61	16.53	16.30	16.30	-1.4	0.0
멕시코	9.56	7.76	9.50	8.00	3.1	-15.8
동남아시아	4.28	5.13	4.70	4.40	-14.2	-6.4
한국	9.31	7.19	7.50	7.50	4.3	0.0
소비량	771.95	777.16	809.93	808.98	4.1	-0.1
미국	261.63	259.05	282.33	279.79	8.0	-0.9
EU27	64.00	62.00	60.00	60.00	-3.2	0.0
일본	16.60	16.40	16.30	16.30	-0.6	0.0
멕시코	32.00	32.40	32.20	30.80	-4.9	-4.3
동남아시아	27.35	28.10	28.90	28.80	2.5	-0.3
한국	8.64	7.88	7.70	7.70	-2.3	0.0
중국	149.00	152.00	159.00	159.00	4.6	0.0
수출량	98.56	84.41	85.45	86.01	1.9	0.7
미국	61.91	47.18	48.26	48.26	2.3	0.0
아르헨티나	14.80	10.10	12.00	12.00	18.8	0.0
중국	0.55	0.17	0.50	0.15	-11.8	-70.0
기말재고량	129.86	147.50	140.15	144.20	-2.2	2.9
미국	41.26	42.50	45.70	48.24	13.5	5.6
아르헨티나	2.18	0.80	2.54	2.73	241.3	7.5
EU27	4.36	6.08	2.85	2.85	-53.1	0.0
중국	39.39	53.17	48.77	49.12	-7.6	0.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1, April 9, 2010.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10.3	2010.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84.17	264.73	297.93	300.28	13.4	0.8
기초재고량	62.96	52.96	42.02	42.82	-19.1	1.9
생산량	221.21	211.77	255.91	257.46	21.6	0.6
미국	72.86	80.75	91.42	91.42	13.2	0.0
아르헨티나	46.20	32.00	53.00	54.00	68.8	1.9
브라질	61.00	57.80	67.00	67.50	16.8	0.7
중국	14.00	15.54	14.50	14.50	-6.7	0.0
수입량	78.12	77.20	79.78	80.78	4.6	1.3
중국	37.82	41.10	42.50	43.50	5.8	2.4
EU27	15.12	13.21	13.00	13.00	-1.6	0.0
일본	4.01	3.40	3.95	3.60	5.9	-8.9
소비량	229.74	222.16	235.86	235.69	6.1	-0.1
미국	51.63	48.00	51.77	51.10	6.5	-1.3
아르헨티나	36.16	32.84	37.63	38.03	15.8	1.1
브라질	35.07	35.41	34.95	34.45	-2.7	-1.4
중국	49.82	51.44	55.68	56.53	9.9	1.5
EU27	16.11	14.09	13.77	13.77	-2.3	0.0
일본	4.22	3.80	4.11	3.76	-1.1	-8.5
멕시코	3.66	3.50	3.60	3.60	2.9	0.0
수출량	79.59	76.94	81.18	82.41	7.1	1.5
미국	31.54	34.93	38.65	39.33	12.6	1.8
아르헨티나	13.84	5.59	7.00	7.00	25.2	0.0
브라질	25.36	29.99	25.60	26.30	-12.3	2.7
기말재고량	52.96	42.82	60.67	62.96	47.0	3.8
미국	5.58	3.76	5.17	5.16	37.2	-0.2
아르헨티나	21.76	16.61	24.98	25.58	54.0	2.4
브라질	18.90	11.35	17.15	18.25	60.8	6.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1, April 9, 2010.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10.3	2010.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64.98	158.38	165.59	166.14	4.9	0.3
기초재고량	6.54	6.18	4.86	4.95	-19.9	1.9
생산량	158.44	152.20	160.73	161.19	5.9	0.3
미국	38.36	35.48	36.76	36.99	4.3	0.6
아르헨티나	27.08	24.20	27.90	28.20	16.5	1.1
브라질	24.89	25.20	24.80	24.41	-3.1	-1.6
인도	6.52	5.99	5.27	4.95	-17.4	-6.1
중국	31.28	32.48	35.73	36.40	12.1	1.9
수입량	54.21	51.02	53.57	53.55	5.0	0.0
EU27	24.07	20.98	22.40	22.40	6.8	0.0
중국	0.20	0.22	0.10	0.10	-54.5	0.0
소비량	157.24	152.43	158.74	159.00	4.3	0.2
미국	30.15	27.89	27.58	27.58	-1.1	0.0
아르헨티나	0.62	0.63	0.68	0.68	7.9	0.0
브라질	12.26	12.44	12.70	12.61	1.4	-0.7
인도	2.06	2.38	2.74	2.85	19.7	4.0
EU27	35.17	31.58	31.54	31.54	-0.1	0.0
중국	30.85	31.67	34.93	35.25	11.3	0.9
수출량	55.77	52.02	55.01	55.01	5.7	0.0
미국	8.38	7.72	9.25	9.48	22.8	2.5
아르헨티나	26.82	24.00	26.95	27.00	12.5	0.2
브라질	12.14	13.00	12.30	12.00	-7.7	-2.4
인도	4.79	3.16	2.53	2.20	-30.4	-13.0
기말재고량	6.18	4.95	5.40	5.68	14.7	5.2
미국	0.27	0.21	0.27	0.27	28.6	0.0
아르헨티나	1.15	0.73	1.00	1.25	71.2	25.0
브라질	2.59	2.45	2.41	2.41	-1.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81, April 9, 2010.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1]	소비량[2]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20	242,170	203,159	25,347	39,011	19.2
2006/07	200,081	239,015	204,819	26,029	34,196	16.7
2007/08	212,299	246,653	210,137	27,559	36,516	17.4
2008/09(E)	223,458	259,974	215,238	28,430	44,735	20.8
2009/10(P)	221,846	266,582	219,297	26,622	47,285	21.6

주: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 = 전년도 재고량 + 생산량, 2) 소비량 = 공급량 – 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e/commodity/wasde/latest.pdf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10. 4)*

경 준 형

2010년 미국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닭고기 생산량은 상향조정된 2%, 계란은 1% 미만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1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 미국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닭고기 생산량은 상향조정된 2%, 계란은 1% 미만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 쇠고기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미국의 암소 도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젖소 암소 도축이 3월 13일까지 증가함에 따라 암소 도축률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 이후 주간 암소 도축률과 암소고기 생산량은 1997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다. 4월 3일까지 캐나다산 암소 수입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29% 증가하였다. 암소 도축의 증가는 2011년 1월 1일 암소 사육두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송아지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번식 소득이 더 높아 현재의 비육우 가격과 비육 소득은 향후 암소 도축률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2010년 1월 이후 미국의 비육우 가격은 전년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2010년 3월 오클라호마시장에서 500-550파운드(220-250kg)의 비육 수소가격이 2010년 1월보다 11%, 2009년 3월보다는 12% 상승하였다. 2009년 1분기와 비교할 경우 고체중의 비육우가 부족하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2010년 3월 오클라호마시장에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10년 4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준형 연구원이 작성하였다(jhkyung@krei.re.kr, 02-3299-4358).

서 750~800파운드의 비육 수소가격이 2010년 1월보다 7%, 2009년 3월보다는 14% 상승하였다.

2010년 1월 이후 미국의 비육우 가격은 전년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초이스와 셀렉트급 도매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10년 1분기 비육우 소득은 정(+)의 값을 보였다. 현재 100$(100파운드당)을 기록하고 있는 비육우 가격은 비육우 소득의 증가와 비육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두 가지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기의 경우 예년보다 높은 소득 창출을 위해 조기출하를 할 수 있다. 조기 출하는 정육량 감소와 셀렉트 등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도체중과 도축두수의 증감에 따라 쇠고기 생산량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비육우 가격이 110$ 이상을 유지한다면, 옥수수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분이 비용 하락에 따른 소득 증가분보다 클 경우 비육장 입식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후반기에 송아지 부족으로 송아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송아지 생산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식용 암송아지 보유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비육우 가격이 지역별 계절성과 일치하여 네브라스카의 3월 27일 가격은 남부대평원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계절적 패턴은 남부대평원보다 네브라스카의 비육우가 희소성이 커 도축업자의 경매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초이스와 셀렉트급 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봄, 여름 구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구이용 프라임급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다. 계절적으로 초이스급 이상의 지육량은 감소하는 시기이다. 2010년 3월 초이스급 소매가격은 1월보다 3% 상승하였으나 2009년 3월과는 비슷하였다.

2010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향은 2009년보다 10% 증가한 20억 5천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경기 회복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 2010년 1분기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은 2009년보다 22% 증가한 4억 7천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공급 부족과 US달러의 약세로 2010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을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 2월 캐나다로의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24%, 대만과 홍콩은 각각 111%, 314% 증가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2% 감소하였으나 향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월 한국으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은 7% 감소하였다.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된 쇠고기 수출은 2004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누그러지고 한국 소비자의 확신이 회복될 경우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선적할 수 있는 일본으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은 2009년보다 34%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될 경우 쇠고기 소비 증가로 미국산 쇠고기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쇠고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미미했던 러시아는 호주와 남미의 공급 부족으로 2010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쿼터량을 21,700톤으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미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09년(26억 3천만 파운드)보다 1% 증가한 26억 6천만파운드로 전망된다. 2010년 1분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3분기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미국의 생우 수입은 전년보다 7% 증기한 215만 두로 전망된다. 2010년 1, 2월 캐나다산 생우 수입은 2009년보다 15% 감소하였다. 그러나 달러 약세로 미국내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여 캐나다 업체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 가격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미국내 수입 시장점유률은 평균적으로 60%이며, 때로는 80%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2009년에는 72%를 기록하였다. 3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비육우와 번식우 수입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4월에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 양돈

2007년 하반기와 최근에 시작된 농가 수익의 감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돼지 생산량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3월 26일 발간된 USDA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양돈 산업은 2007년 하반기와 최근에 시작된 농가 수익의 감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돼지 생산량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돈 산업의 번식돈수는 2008년 6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3월 1일 양돈 시장의 재고는 번식돈의 감소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양돈 시장의 재고는 작년 대비 2.7% 감소하였고, 번식돈은 2009년 3월 대비 3.9% 감소하였다. 번식돈수의 감소는 향후 계속적인 공급저하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봄(-4%)과 여름(-2%)의 낮은 새끼돼지 생산의향과 함께 침체된 돼지 생산은 2010년 미국 양돈 산업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2011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겨울철 돼지생산의 산자율이 과거보다 낮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2월에서 2월 산자율은 9.61로 작년에 비해 1.37%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같은 시기의 5년간 평균 증감률(1.39%)보다 낮았으며, 2009년(2.6%)과 2008년(1.65%)에 등록된 증가율보다는 크게 저하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저조한 산자율은 늙은 번식돈이 원인일 수 있으며, 산업의 경영이 적자이거나 침

체되어 있을 때 새로운 암퇘지로 재보급함으로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산자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2010년에서 2011년 돼지 사육규모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돈시장과 번식돈의 재고 감소와 봄과 겨울철에 저하된 돼지 생산의향, 그리고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은 2010년이 2009년보다 약 3% 감소한 223억 파운드의 돼지가 생산될 것이라는 USDA의 4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내 생산과 캐나다 생산을 포함한 돼지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고기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2010년은 작년 동기간 대비 더 높은 돼지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도 51~52%인 돼지의 2010년 2분기 가격은 100파운드당 52~54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는 100파운드당 53~57달러, 4분기에는 100파운드당 45~49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실적 3억 6천 2백만 파운드는 작년보다 6% 증가한 금액이었다. 작년 대비 감소한 1월을 포함한 3월까지의 수출은 6억7천6백만 파운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2월 멕시코, 캐나다,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 증가는 일본, 중국, 러시아로 수출했던 2009년 2월에 비해 전체 돼지고기 수출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미국의 1월과 2월 돼지고기 수입은 작년 대비 약 3% 감소하였다. 덴마크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감축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축(비육돈과 도축대상 돼지)의 수입은 1월과 2월 모두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미국의 양돈 수입은 17% 이상 감소하였으며 1월에 약 23%, 2월에는 약 11% 감소하였다. 미국 돼지가격의 상승 및 높은 가격은 캐나다 돼지의 수입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USDA는 올해 미국의 돼지수입이 6백만 마리로 작년 대비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낙농

미국 전체 젖소 사육마리수는 매년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마리당 산유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월 마리당 산유량은 51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10년 사료 가격 조정과 내년 양곡년도까지 계속되는 사료가격 조정 전망이 원유 생산량 증가에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유 가격 하락으로 유사비(원유와 사료가격의 비율)는 2.5 미만으로 나타났다. 비록 젖소 사육마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율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젖소 사육마리수는 매년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마리당 산유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월 젖소 도축 마리수는 22만 3천 마리로 2009년 5월 이후 두번째로 적은 도축 마리수이다. 따라서 2010년 젖소 사육마리수는 2009년보다 1.5% 감소한 평균 906만 5천 마리로 전망되며, 이는 최근 USDA 추정치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2010년 원유생산량은 1,899억 파운드로 추정되었으며, 마리당 산유량은 2만 950파운드로 집계되었다.

비록 이번 재고량 전망치는 지난달의 전망치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지만, 2010년 전지성분과 탈지성분의 연말재고는 각각 104억 파운드, 108억 파운드로 여전히 2009년보다 낮게 전망되었다. 재고량의 감소는 대부분 2010년 하반기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전지성분의 집유량은 1.3% 증가한 1,884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치즈의 가격 조정과 경기 회복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유량의 증가는 현재 높은 수준의 치즈 재고량을 감소시키고, 연말 유업체의 치즈 가격을 하락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탈지성분의 집유량은 지난해보다 0.5% 증가한 1,676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유 수출량 증가는 특히 2010년이 지나면서 국내시장의 분유를 끌어당길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하반기 탈지분유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로 환산한 전지계열과 탈지계열의 수출량은 각각 47억 5천만 파운드, 254억 파운드로 버터와 유지방, 탈지분유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분기 수출량은 저조했지만 2분기는 수입국들의 경기회복과 잠재적인 경쟁국의 공급량 감소로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치즈가격은 원유 생산량 증가 전망과 비교적 높은 치즈 재고량으로 파운드당 평균 $1.49～1.5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경기회복이 지속되어 재고량이 감소되면 치즈 가격은 하반기에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버터가격은 하반기 원유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개선되어 파운드당 평균 $1.42～1.50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지분유(NDM)의 가격은 2010년 하반기 수출량의 증가로 파운드당 평균 $1.10～1.1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장가격은 이미 지난해보다 반등하였으며, 파운드당 평균 37.5～40.5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유가격은 원유 생산량 증가와 수요 증가 예측이 상쇄되어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7년 또는 2008년 수준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Class IV가격은 $13.40～14.00, Class III가격은 $14.10～14.60으로 전망되고, 우유 평균 가격은 $15.45～15.95로 전망된다.

4. 닭고기

2010년 닭고기 생산량은 363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9년보다 2% 증가, 2008년보다는 2% 감소한 수준이다.

2010년 닭고기 생산량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었다. 수정된 닭고기 생산량 전망치는 총 3억 7천 5백만 파운드가 늘어나 분기별로는 1분기 1억 파운드, 2분기 1억 2천 5백만 파운드, 3분기 1억 파운드, 4분기 5천만 파운드가 추가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닭고기 생산량은 363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9년보다 2% 증가하고, 2008년보다는 2% 감소한 수준이다. 2009년 대비 1분기와 4분기의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분기의 경우 2009년 1분기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4분기에는 경제회복과 곡물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 증가가 전망된다. 2010년 1~2월 닭고기 생산량은 55억 6천만 파운드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 1~2월 평균 출하체중(5.63파운드)이 전년대비 1.4% 증가하면서 도축 마리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1월의 경우 도계 작업일수가 1일 감소하면서 도축 마리수가 감소하였다.

생산량 증가와 수출 감소로 2010년 1분기 말 닭고기 재고량은 6억 4천만 파운드로 전망되며, 이는 2009년 말보다 2천 4백만 톤 증가하고, 2009년 1분기 말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2월말 기준 닭고기 냉동 비축량은 6억 4백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4.2%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닭고기 제품 냉동 비축량은 감소하였지만 넓적다리육과 다리육은 증가하여 상쇄되었다.

2010년 1분기 12개 도시의 닭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파운드당 82.2센트로 전년대비 3% 상승하였다. 이는 1~2월 가격(82센트/파운드)에 비해 3월 가격(84센트/파운드)이 높았기 때문이다. 2010년 3월 북동부 시장의 뼈없는 가슴살육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1.44달러로 전년보다 5% 상승하였다. 그러나 넓적다리육과 대부분의 다리육 가격은 하락하였다. 넓적다리육의 가격은 전년대비 20% 감소하였다. 향후 몇 개월간의 닭고기 가격은 시장력(market force)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닭고기 생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는 한편,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요인도 존재한다.

2010년 2월 미국의 닭고기 제품 수출량은 4억 6천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18% 감소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통상마찰로 러시아와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월 대러시아 수출은 2,320만 파운드로 전년 동월보다 8천만 톤 감소하였다. 2010년 현재까지 대러시아 수출은 7천 5백만 파운드로 전년 동기간보다 70% 감소하였다. 2010년 2월 대중국 수출의 경우 1,280만 파운드로 전년 동기보다 6,370만 톤 감소하였다. 2010년 1~2월 대중국 수출량은 4천 3백만 톤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68% 감소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멕시코, 캐나다, 홍콩, 베트남,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증가로 일부 상쇄되었다.

5. 계 란

2010년 1~2월 계란 생산량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10억 4천만 판(12개 들이)이었다.

2010년 1분기 계란 생산량은 15억 9천만 판(12개 들이)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전체 생산량은 64억 9천만 판(12개 들이)으로 2009년보다 1% 미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기별 자료에 기초한 생산량은 1분기와 4분기는 전년도와 같거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며, 2분기와 3분기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종란 생산량은 전년대비 1% 증가한 10억 7천만 판(12개 들이)으로 전망된다.

2010년 1～2월 계란 생산량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10억 4천만 판(12개 들이)이었다. 1～2월 산란 종계 마리수는 평균 2억 8,100만 마리로 전년동기 대비 1% 감소하였다. 동기간 육용 종계 사육마리수는 평균 245억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였다.

2010년 1분기 계란 도매가격(뉴욕 시장 대란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5% 오른 판(12개 들이)당 $1.26이었다. 올해 4월 초 부활절로 계란가격은 4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를 시작으로 계절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2분기 뉴욕시장 기준 계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높은 $1.10～1.14로 전망된다.

2월 미국 계란 및 계란 가공품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1,890만 판(12개 들이)으로 집계되었다. 전통적으로 3대 수출시장인 캐나다와 일본, 홍콩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한 반면, EU국가로의 수출량이 증가하여 수출 감소분을 상쇄시킨 것으로 보인다.

1～2월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국가로의 수출량은 대부분이 수입국의 식품가공 산업에 사용되는 계란 가공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1～2월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5%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LDP-M-190/Apr 21, 2010 발췌정리.

표 1 U. S. 육류 및 가금류 전망

구 분	2008	2009년					2010년				
		I	II	III	IV	연간	I	II	III	IV	연간
생산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26,561	6,248	6,602	6,689	6,415	25,954	6,275	6,480	6,665	6,325	25,745
– 돼지고기	23,347	5,811	5,488	5,698	6,005	23,002	5,610	5,390	5,400	5,930	22,330
– 양고기	174	42	42	42	44	170	43	39	40	42	164
– 닭고기	36,906	8,574	8,937	9,172	8,850	35,533	8,775	9,075	9,350	9,125	36,325
– 칠면조고기	6,246	1,385	1,420	1,430	1,425	5,647	1,300	1,350	1,400	1,425	5,475
– 전체 육류	93,937	22,213	22,652	23,187	22,891	90,943	22,152	22,492	23,014	23,007	90,665
– 계란, 백만판/12개	6,403	1,594	1,600	1,612	1,655	6,461	1,595	1,610	1,625	1,660	6,490
1인당 소비량, 파운드											
– 쇠고기	62.8	15.3	15.7	15.6	14.8	61.3	14.7	15.2	15.4	14.5	59.7
– 돼지고기	49.5	12.5	12.0	12.5	12.9	50.0	11.8	11.7	11.3	12.3	47.1
– 양고기	1.0	0.3	0.2	0.2	0.3	1.0	0.3	0.2	0.2	0.3	1.0
– 닭고기	83.5	19.3	20.1	20.7	19.6	79.7	20.2	20.9	21.6	20.6	83.3
– 칠면조고기	17.6	3.7	3.9	4.0	5.3	17.0	3.4	3.7	3.7	5.0	15.8
– 전체 육류	216.1	51.5	52.4	53.4	53.3	210.5	50.8	52.1	52.6	53.1	208.6
– 계란, 개수(백만더즌)	248.9	62.0	61.4	61.4	63.0	247.6	60.8	61.1	61.5	62.7	246.1
시장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Neb.,$/cwt)	92.27	80.98	84.53	82.78	82.43	82.68	87.93	91–95	89–95	88–96	89–93
– 비육밑소(Ok City,$/cwt)	102.98	92.83	98.63	99.40	93.67	96.14	98.73	100–104	101–107	102–110	100–104
– 유틸리티급 정육(S. Falls,$/cwt)	54.92	46.42	49.46	47.51	44.43	46.96	52.57	51–55	49–53	51–55	51–54
– 초이스급 양고기(San Angelo,$/cwt)	85.91	90.14	91.44	88.35	90.47	90.10	103.87	99–103	97–105	99–107	100–104
– 돼지고기(N. base, l.e. $/cwt)	47.84	42.11	42.74	38.90	41.20	41.24	50.41	52–54	53–57	45–49	50–53
– 닭고기(12도시, cents/lb)	79.70	79.70	81.90	76.80	72.10	77.60	82.20	81–85	81–87	77–83	80–84
– 칠면조고기(동부, cents/lb)	87.50	73.80	79.10	81.40	85.10	79.90	79.30	82–86	82–88	84–92	82–86
– 계란(뉴욕, cents/doz)	128.30	109.70	89.70	94.80	117.50	102.90	126.00	110–114	96–104	115–125	112–117
교역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수출량	1,888	384	471	496	520	1,971	470	530	530	520	2,050
– 쇠고기 수입량	2,537	704	751	623	565	2,643	630	715	685	630	2,660
– 양고기 수입량	185	51	46	28	45	170	53	47	39	49	188
– 돼지고기 수출량	4,668	1,033	952	1,016	1,150	4,151	1,080	1,020	1,080	1,180	4,360
– 돼지고기 수입량	831	205	196	210	230	841	210	200	205	225	840
– 닭고기 수출량	6,962	1,753	1,655	1,719	1,675	6,802	1,400	1,425	1,450	1,550	5,825
– 칠면조 고기 수출량	676	117	122	152	145	536	110	120	140	150	520
– 모돈 수입두수(천두)	9,348	1,761	1,614	1,518	1,500	6,393	1,450	1,500	1,525	1,525	6,00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2 낙농업 전망

구 분	2008	2009년					2010년				
	연간	Ⅰ	Ⅱ	Ⅲ	Ⅳ	연간	Ⅰ	Ⅱ	Ⅲ	Ⅳ	연간
젖소(천두)	9,315	9,295	9,262	9,155	9,090	9,201	9,085	9,075	9,055	9,035	9,063
두당 산유량(파운드)	20,396	5,097	5,278	5,111	5,090	20,576	5,200	5,385	5,195	5,170	20,950
우유 생산량(십억 파운드)	190.0	47.4	48.9	46.8	46.3	189.3	47.2	48.9	47.0	46.7	189.9
– 농가소모분	1.1	0.3	0.3	0.3	0.3	1.1	0.3	0.3	0.3	0.3	1.1
– 납유량	188.9	47.1	48.6	46.5	46.0	188.3	47.0	48.6	46.8	46.4	188.8
유지방(원유 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188.9	47.1	48.6	46.5	46.0	188.3	47.0	48.6	46.8	46.4	188.8
– 연초 재고량	10.4	10.1	12.7	14.5	13.7	10.1	11.3	12.5	13.9	12.3	11.3
– 수입량	3.9	0.9	1.0	1.0	1.1	4.1	0.8	0.9	1.0	1.1	3.8
– 총공급량	203.2	58.1	62.3	62.0	60.7	202.4	59.1	62.0	61.6	59.8	203.9
– 수출량	8.7	1.0	1.1	0.9	1.2	4.2	1.1	1.2	1.2	1.2	4.8
– 연말 재고량	10.0	12.7	14.5	13.7	11.3	11.3	12.5	13.9	12.3	10.4	10.4
– 소모분	0.0	0.1	–0.1	0.1	0.5	0.6	0.3	0.1	0.0	0.0	0.3
– 집유량	184.4	44.3	46.9	47.2	47.6	186.0	45.2	46.8	48.1	48.2	188.4
탈지성분(원유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188.9	47.1	48.6	46.5	46.0	188.3	47.0	48.6	46.8	46.4	188.8
– 연초 재고량	9.9	10.9	11.5	12.4	11.5	10.9	11.3	11.5	12.0	11.0	11.3
– 수입량	3.7	0.9	0.9	0.9	1.0	3.7	1.0	0.9	0.9	1.0	3.4
– 총공급량	202.6	58.9	61.0	59.8	58.5	202.8	59.0	61.0	59.6	58.4	203.5
– 수출량	26.6	5.1	5.8	5.5	6.1	22.5	5.8	6.3	6.6	6.6	25.4
– 연말 재고량	10.9	11.5	12.4	11.5	11.3	11.3	11.5	12.0	11.0	10.8	10.8
– 소모분	1.3	1.1	0.7	0.6	0.4	2.9	0.0	0.0	0.0	0.0	0.0
– 집유량	163.8	41.2	42.1	42.5	41.0	166.8	42.0	42.6	42.0	41.0	167.6
우유가격(달러/100 파운드) [1]											
– 우유	18.29	12.23	11.60	12.07	15.33	12.81	15.70	14.65	15.25	16.15	15.45
								–15.05	–15.95	–17.15	–15.95
– Ⅲ 등급	17.44	10.18	10.20	11.09	13.96	11.36	13.85	13.52	14.25	14.66	14.10
								–13.92	–14.95	–15.66	–14.60
– Ⅳ 등급	14.65	9.56	10.06	10.56	13.37	10.89	13.22	13.30	13.69	13.48	13.40
								–13.80	–14.49	–14.58	–14.00
유제품 가격(달러/파운드) [2]											
– 체다 치즈	1.895	1.236	1.193	1.249	1.508	1.297	1.471	1.430	1.505	1.550	1.490
								–1.470	–1.575	–1.650	–1.540
– 유장 분말	0.250	0.164	0.232	0.294	0.344	0.259	0.386	0.380	0.375	0.375	0.375
								–0.400	–0.405	–0.405	0.405
– 버터	1.436	1.097	1.197	1.194	1.351	1.210	1.387	1.448	1.453	1.405	1.420
								–1.518	–1.553	–1.535	–1.500
– 탈지분유	1.226	0.823	0.833	0.892	1.142	0.922	1.107	1.077	1.120	1.125	1.100
								–1.117	–1.180	–1.195	–1.150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3 생산 지표

구 분	단위	2009년	2010년		
		3월	1월	2월	3월/**
비육우					
사육두수/*	1,000 두	11,228	11,008	10,984	10,874
입식두수	1,000 두	1,758	1,752	1,597	1,797
출하두수	1,000 두	1,824	1,776	1,717	1,902
육계					
입란물량 /1	1,000 개	634,244	632,926	627,804	642,804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783,348	775,615	699,776	786,954
종계수수 /1	1,000 수	54,256	54,176	55,001	55,450
6개월 미만 종계수수	1,000 수	6,773	7,219	7,360	6,610
종계 도태수수 /2	1,000 수	6,601	5,334	5,021	6,242
칠면조					
입란물량 /1	1,000 개	28,143	27,501	26,755	26,823
새끼칠면조 생산수수	1,000 수	23,817	21,833	21,005	22,961
계란					
생산량 /2	백만 더즌(12개)	553.8	550.5	493.6	559.3
산란용 마리수 /1	1,000 수	282,386	283,138	280,597	281,631
산란율 /1	%	74.5	76.3	74.8	75.7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40,137	38,794	40,120	45,151
노계 도태수수 /2	1,000 수	5,168	5,741	5,215	6,501

주: 1) /* 조사대상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임. 2) /** 추정치임.
3) /1 월초 기준임. 4) /2 월말 추정량임.

표 4 소득 추정표 – 비육우

단위: 센트/파운드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2월	3월	4월/**
대평원주 비육장 기준				
손익분기점 /*	81.73	86.44	87.61	86.72
판매가격	86.70	90.31	95.41	98.30
순이익	4.97	3.87	7.80	11.58

주: 1) /* Does not include capital replacement cost. 2) /** 추정치임.

표 5 소득 추정표 – 가금류

단위: 1998~2000=100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2월	3월	4월/**
육계(지수)				
사료비	145.4	152.1	148.4	142.6
시장가격	134.8	128.5	131.5	135.0
이윤(가격-비용)	131.1	120.1	125.5	132.3
칠면조(지수)				
사료비	161.8	165.2	165.2	160.2
시장가격	115.4	118.1	123.6	125.7
이윤(가격-비용)	94.3	96.7	104.7	110.1
계란(지수)				
사료비	158.3	158.1	151.2	149.0
시장가격	141.6	153.0	167.3	124.5
이윤(가격-비용)	132.9	150.2	175.7	111.6

주: /* 추정치임.

표 6 육류 통계

구 분	2009년 1~3월	2010년 1~3월	2009년		2010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6,248.2	6,250.9	2,015.3	2,133.5	2,083.1	1,955.7	2,212.1
– 송아지고기	35.2	34.5	11.8	13.1	11.6	10.7	12.2
– 돼지고기	5,811.1	5,607.4	1,921.4	1,985.1	1,810.1	1,757.4	2,039.9
– 양고기	42.	42.7	14.4	15.9	12.8	12.3	17.6
적색육 전체	12,136.2	11,935.5	3,962.9	4,147.5	3,917.6	3,736.2	4,281.7
– 육계	8,572.9	8,731.3	2,789.8	2,965.4	2,831.4	2,739.7	3,160.2
– 기타 계육	117.9	115.6	34.1	38.4	37.5	34.7	43.4
– 칠면조육	1,384.7	1,339.5	477.3	456.1	424.2	425.5	489.9
백색육 전체	10,102.6	10,214.2	3,310.5	3,470.3	3,302.	3,208.8	3,703.4
전체 육류 생산량	22,102.2	22,015.8	7,232.	7,570.1	7,174.4	6,903.3	7,938.1
도축두수(천두)							
소	7,975.9	8,167.5	2,599.4	2,752.8	2,707.2	2,547.6	2,912.7
– 거세우	3,854.7	3,916.	1,213.	1,346.7	1,282.6	1,212.3	1,421.1
– 미경산우	2,421.6	2,527.1	797.6	808.9	829.4	819.1	878.6
– 경산우	796.5	863.	329.9	315.7	314.5	251.4	297.1
– 젖소	777.3	724.4	212.4	235.4	236.5	227.	260.9
– 비거세우	125.8	137.1	46.5	46.	44.2	37.9	55.
– 송아지	238.6	236.6	81.2	92.3	82.8	74.	79.8
돼지	28,488.3	27,631.3	9,460.5	9,832.9	8,909.6	8,691.2	10,030.5
– 비육돈	27,607.5	26,766.7	9,171.8	9,520.2	8,632.6	8,427.2	9,706.9
– 모돈	777.6	758.1	258.7	276.7	244.4	230.5	283.2
양	591.6	627.4	219.2	235.3	186.6	178.5	262.3
육계	2,079,080.	2,073,221.	657,072.	702,342.	672,804.	651,878.	748,539.
칠면조	58,417.	55,936.	21,588.	19,318.	17,480.	17,725.	20,731.

구 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1~3월	1~3월	1월	12월	1월
정육량 (파운드)							
소	789.	770.7	780.	780.	775.	773.	764.
송아지	148.7	146.	145.	142.	140.	145.	153.
양	72.3	70.	67.	69.	71.	71.	68.
돼지	204.3	203.7	204.	202.	204.	203.	204.

구 분	2009년 1~4월	2010년 1~4월	2009년		2010년			
			11월	12월	1월	1월	3월	4월
재고 입고량 (백만파운드)								
쇠고기	1,815.68	1,651.57	427.72	430.91	430.28	426.26	404.51	390.52
돼지고기	2,381.18	1,989.81	516.3	482.82	471.13	492.29	515.91	510.48
닭고기	2,672.	2,433.75	613.44	640.35	615.92	610.82	607.25	599.76
칠면조고기	1,818.12	1,285.45	517.46	244.48	261.84	302.06	342.42	379.14
냉동달걀	87.6	93.7	22.91	21.16	23.64	24.34	24.11	21.61

표 7 생축 가격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소 (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1,300 파운드급						
텍사스 팬핸들	86.70	83.08	85.50	90.31	95.41	98.30
네브라스카	87.02	80.34	83.46	87.41	92.93	99.15
- 암소(수폴스지역)						
유틸리티급 1,200~1,600파운드	53.19	-	-	-	-	-
유틸리티급 800~1,200파운드	49.33	-	-	-	-	-
- 비육밑소(오클라호마)						
거세우						
1) 500~550 파운드	117.33	109.54	111.27	118.83	123.93	131.90
2) 600~650 파운드	107.47	96.01	100.16	109.30	114.02	121.70
3) 750~800 파운드	98.31	93.13	95.47	98.30	102.43	109.95
미경산우						
1) 450~500 파운드	105.07	95.56	98.55	108.30	113.11	119.20
2) 700~750 파운드	91.52	86.09	90.99	94.37	96.09	104.40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 살코기 51~52% 기준	42.83	45.82	49.81	48.98	52.43	57.50
- 모돈						
· 아이오와 #1-2, 300~400파운드	38.69	33.55	38.53	48.52	48.30	58.00

표 8 곡물 및 사료가격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곡물($/부셀)						
- 옥수수, #2 Yellow, Cen. Ill	-	-	-	-	-	-
- 밀, HRW Ord., K.C. ($/부셀)	-	-	-	-	-	-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tur	-	-	-	-	-	-
- 알팔파, U.S. Avg.($/톤)	133.00	110.00	113.00	111.00	111.00	-
- 건초, U.S. Avg.($/톤)	117.00	98.90	99.60	97.10	98.60	-

표 9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4월	1월	2월	3월	4월
쇠고기 ($/100파운드)					
– 쇠고기 절단 포장육					
초이스급 1-3, 600~900 lb	144.42	142.87	143.22	155.73	165.70
셀렉트급 1-3, 600~900 lb	143.04	138.27	141.49	154.05	163.20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145.59	149.17	154.52	157.04	164.45
– 수입 냉동 쇠고기, 90%	129.90	148.88	156.88	166.57	175.10
– 가죽 및 내장	–	–	–	–	–
돼지고기 ($/100파운드)					
– 지육	58.49	72.58	69.62	73.69	83.00
– 등심, 14-19 lb BI 1/4" trim	92.10	110.94	104.08	108.14	119.25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	82.00	73.50	89.00	106.25
– 후지, 20-23 lb BI trmd. TS1	47.49	68.63	68.30	70.76	74.50
– 잡육, 72% fresh	47.11	71.67	65.70	73.91	83.00
육계 (센트/파운드)					
– 12개 도시 평균	76.39	81.57	81.07	84.00	81.75
– 죠지아 독(Georgia dock)	84.89	82.51	82.81	83.48	84.45
– 북동부					
· 뼈없는 가슴살	139.23	126.59	135.78	144.52	155.90
· 뼈있는 가슴살	82.34	85.39	88.50	92.18	97.20
· 다리(전체)	56.93	51.51	47.64	48.45	49.60
· 다리(1/4도체)	38.24	36.56	35.85	35.85	36.10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12개 대도시 평균	103.54	115.92	111.82	122.32	91.00
– 뉴욕	107.68	126.79	116.37	134.87	89.00

표 10 육계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셀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9년 2월	297.42	3.49	137.1	132.3	130.6
2009년 3월	292.22	3.64	149.8	133.5	127.8
2009년 4월	324.27	3.67	145.4	134.8	131.1
2009년 5월	380.37	3.97	147.0	142.0	140.2
2009년 6월	418.47	3.93	153.1	144.8	141.9
2009년 7월	373.18	3.15	167.7	138.8	128.5
2009년 8월	405.27	3.08	173.7	133.5	119.2
2009년 9월	379.68	3.07	153.1	125.5	115.8
2009년 10월	325.69	3.47	157.6	123.2	111.0
2009년 11월	328.18	3.58	152.9	122.3	111.5
2009년 12월	333.93	3.51	150.0	126.0	117.5
2010년 1월	314.23	3.49	152.3	130.7	123.1
2010년 2월	295.79	3.33	152.1	128.5	120.1
2010년 3월	277.61	3.36	148.4	131.5	125.5

표 11 계란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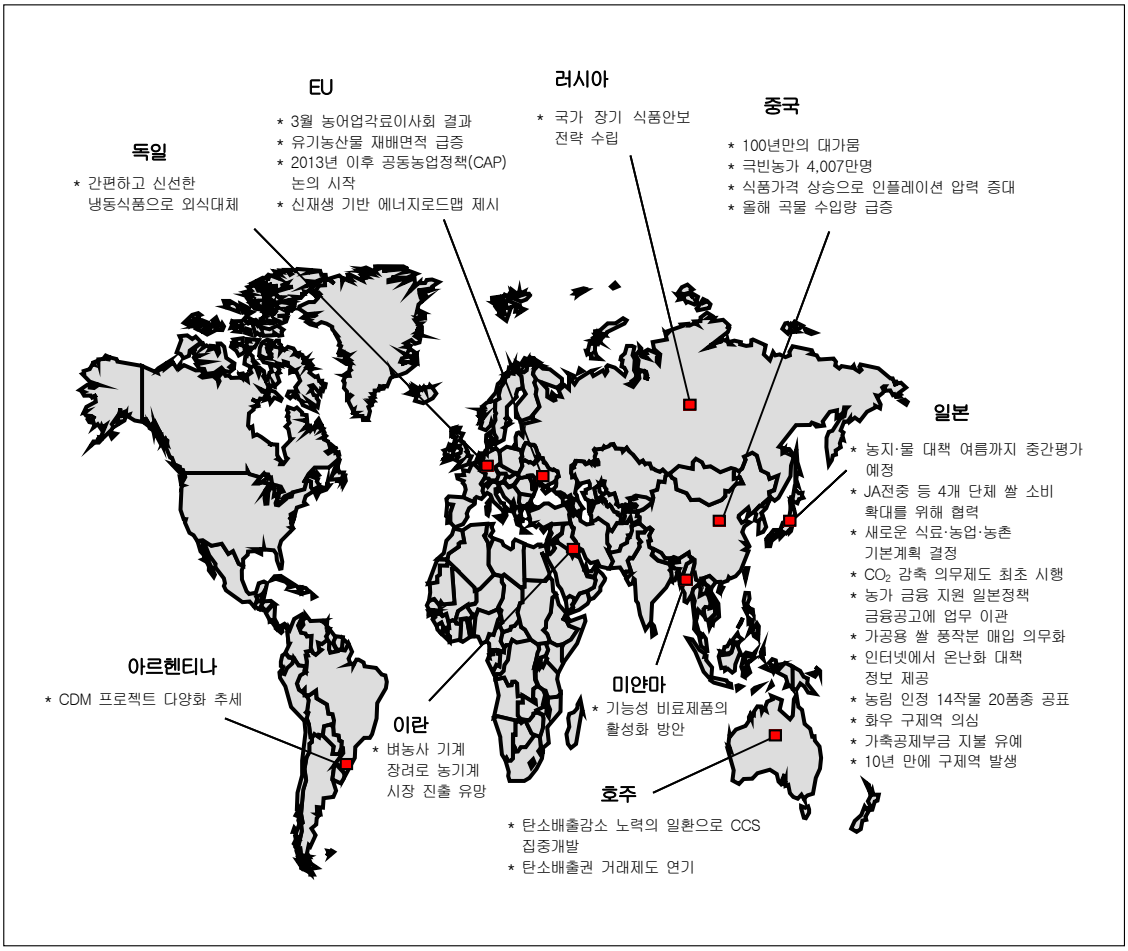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셀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9년 2월	297.42	3.49	161.1	133.7	119.3
2009년 3월	292.22	3.64	155.4	122.8	105.7
2009년 4월	324.27	3.67	158.3	141.6	132.9
2009년 5월	380.37	3.97	164.2	94.2	57.6
2009년 6월	418.47	3.93	180.6	102.4	61.5
2009년 7월	373.18	3.15	185.7	108.5	68.1
2009년 8월	405.27	3.08	159.3	124.5	106.3
2009년 9월	379.68	3.07	162.7	117.1	93.3
2009년 10월	325.69	3.47	158.4	124.7	107.1
2009년 11월	328.18	3.58	159.5	157.6	156.6
2009년 12월	333.93	3.51	162.6	162.7	162.7
2010년 1월	314.23	3.49	161.8	158.6	156.9
2010년 2월	295.79	3.33	158.1	153.0	150.2
2010년 3월	277.61	3.36	151.2	167.3	175.7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2010. 4)

주요 외신 동향 (2010. 4)

세계 농업 브리핑 (2010. 4)*



1. 아시아/오세아니아

◯ **일본, 농지 · 물 대책 여름까지 중간평가 예정**

▪ 일본 농림수산성은 3.31일에 열린 농지·물·환경보전 향상대책에 대해 평가하는 제3자위원회에서, 여름까지 동 대책의 중간 평가를 정리할 방침을 나타냄.

---

* 세계 농업 브리핑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교통상부, 주유럽연합 대표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대책은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 등의 다른 제도와 함께 시책에 대해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검토에 중간평가 결과를 활용할 예정임.

○ **일본, JA전중 등 4개 단체 쌀 소비 확대를 위해 협력**

- JA전중(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과 일본미곡소매상업조합연합회(일미련), 조지루시보온병(주), (사)음식검정협회는 3.31일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협동 프로젝트를 발표함.
- 안심, 건강의 측면에서 「막 정미한 밥」을 테마로 풍미와 뛰어난 음식 맛을 널리 PR할 예정임. 생산에서 소비에 종사하는 기업·단체가 하나가 되어 임하는 것은 최초임.
- 협동 프로젝트는 산지·브랜드가 확실한 쌀을 전문가가 정미하고, 특성을 살린 밥 짓는 방법으로 맛을 즐기는 것을 제창함.

○ **일본, 새로운 식료 · 농업 · 농촌기본계획 결정**

- 일본 정부는 3.30일 내각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농정지침이 되는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결정함.
- 규모가 큰 농업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시책부터, 호별 소득보상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농정 전환을 표방함.
- 식료자급률(칼로리 기준) 목표는 현행 계획 목표보다 5%p 높은 50%로 설정하고, '국민 전체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사회 창조'를 명기함.

○ **러시아, 국가 장기 식품안보전략 수립**

- 2009년 말 러시아는 주요 식품자급률 확대를 위해 중장기 국가 식품안보전략을 수립함. 식품 품목별로 다소 상이하나 주요 제품별로 러시아 자체 생산량이 전체 수요의 80~95%를 상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러시아 쥬코프 부총리는 곡물류를 거의 100%를 자급하며, 나머지 주요 품목도 향후 2~4년 내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힘.
- 러시아는 2010년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 약 1,080억 루블(약 36억 달러)을 배정할 계획임.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식품안보정책도 좋으나 러시아 국민의 상당수가 아직도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소비자를 위한 제품의 공급가격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수입제품이 소비자 가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점을 감안해 자급률 목표시기를 다소 늦춰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부의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도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음.

▪ 이번 러시아 정부의 장기 전략을 계기로 농축산업 및 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식품 가공기계, 식품 포장기계, 포장지 원료 등 산업과 연관된 제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국내 업체들은 러시아의 시장 환경 변화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하면서 확대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일본, CO_2 감축 의무제도 최초 시행

▪ 동경도는 4월부터 대형 오피스 빌딩과 공장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 감축 의무부여 제도를 시행함. 2011년도에는 감축량을 사업소 간에 매매할 수 있는 배출량 거래 제도도 실시할 예정임.

▪ 배출량 상한(CAP)의 설정과 배출량 거래(trade)라는 「CAP and trade」 제도 도입은 국내 최초임.

▪ 동경도의 제도는 국가나 지방 자치체, 민간기업의 대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배출 감축 의무화 대상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1,500㎘ 이상의 대규모 사업소로서, 도내에 약 1,400개소가 있음.

○ 일본, 농가 금융 지원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업무 이관

▪ 참의원본회의에서 4.2일에 가결·성립한 개정 농업개량자금 조성법, 개정 농업 경영기반 강화 촉진법, 개정 농업 신용보증 보험법은 농업인이 무이자로 금융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임.

▪ 도도부현이 담당하고 있던 농업개량자금의 대부 주체를 농업 관련 융자에 정통한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이관함으로써 농가의 금융 지원 체제를 확고히 함.

▪ 농업개량자금 조성법과 농업 경영기반 강화 촉진법의 시행 시기는 4월 중에 정하는 정부령에서 결정됨. 농업 신용보증 보험법은 금주 중에 시행될 전망임.

○ 미얀마, 기능성 비료제품의 왈성와 방안

▪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질, 고온의 열대기후 등 최적의 농업환경을 갖춘 미얀마는 농업용 비료의 수입비중이 약 70%로 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이중 80% 이상이 화학비료임. 주 수입국은 중국, 태국 등이며 연간 수입액은 약 3,000만 달러임. 농민들은 바이오 비료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기존의 화학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

▪ 최근 농업부에서는 생산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해 농민들을 독려하며, 바이오 비료의 중요성을 인지해 현지 생산이 이뤄지고 있음. 기능성 비료의

필요성을 잘 아는 수입·도매상이 늘어남에 따라 농민들의 의식도 점차 변해갈 것이며, 토질개선, 환경문제 등을 중요시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미얀마 비료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제품홍보와 가격경쟁을 통해 기능성 비료 제품을 활성화하고자 함.

○ 중국, 100년만의 대가뭄

- 중국 서남 5개 지역(사천, 운남, 귀주, 광서, 중경)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음. 전국의 가뭄피해 경작지(645만ha) 중 85%가 이들 5개 지역에 집중됨. 주요 지역별로 광서(廣西)는 인구 176만 명, 가축 100만 마리가 음용수 부족으로 피해를 입음. 운남(云南)은 인구 780만 명, 가축 500만 마리의 피해로 인해 경제손실액이 한화 3조 원 수준임. 귀주(貴州)는 인구 500만 명, 가축 200만 마리가 피해를 봄. 또한 중북부의 하북, 하남, 산동, 안휘, 산서, 섬서, 감숙 등지는 남쪽보다는 덜 하지만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가뭄의 원인은 고온과 강우량 부족과 수리시설, 절수 및 위기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지적됨. 가뭄으로 인해 봄작물, 보리 등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며 여름 곡물 수확에도 영향이 우려됨. 단기적으로 물가상승이 예상됨.

○ 일본, 가공용 쌀 풍작분 매입 의무화

- 농림수산성은 2010년산부터 가공용 쌀에 대한 규칙을 재검토함. 가공용 쌀은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미리 계약 수량을 결정해 거래하고 있지만, 풍작으로 계약 수량을 넘은 생산량에 대해서도 실수요자가 매입하도록 새롭게 의무화 함. 매도처가 없는 가공용 쌀이 발생해, 주식용 쌀로서 남아도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임.
- 한편 2010년도부터 시작되는 「논 이활용 자급력 향상 사업」에서는 가공용 쌀에 10아르 당 2만 엔이 교부됨. 이 때문에 산지의 생산 의욕이 높아지고 있어 증산이 예상되며, 주식용 쌀 수급 안정을 지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호주, 탄소배출감소 노력의 일환으로 CCS 집중개발

- 호주는 석탄 수출 세계 1위, 석탄 매장량 세계 4위의 나라로 전체 탄소배출의 3분의 1을 화력발전이 차지함. 글로벌 탄소배출감축 트렌드에 맞춰 청정석탄 관련 주요 기술의 하나인 탄소포집 및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을 주요 국책과제로 설정하고 활발한 연구 및 개발활동을 진행함.

24억 달러를 향후 9년간 걸쳐서 CCS 개발 및 시설에 지원하기로 결정함.

- CCS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하나로 이산화탄소 포획 및 저장기술로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통제가 가능한 곳에 격리, 저장하는 방법임.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기존 녹색기술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빠른 증가에 대응하기도 역부족임.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시설을 단기간에 대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CCS 기술이 이산화탄소 감축의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음.
- CCS 기술은 기존 화력발전소에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추가건설하거나 신규화력발전소 건설시 부가적으로 건설해야하는 설비이므로 고비용문제가 가장 큰 난관임.

○ 일본, 인터넷에서 온난화 대책 정보 제공

- 기후 온난화가 각지의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전국농업개량보급지원협회는 인터넷 상에서 온난화 정보를 제공하고, 작물의 생육관리나 방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대책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 「농업 온난화 넷」을 공개함.
- 이 사이트에서는 대책기술이나 Q&A, 각지 현장으로부터의 정보 등을 소개함. 온난화 대책기술을 소개하는 「대책 정보」 코너에서는 수도(水稻), 보리·대두, 채소, 과수, 화훼, 축산, 그 외의 7개 카테고리를 설치하고, 시험장이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게재하고 있음.

○ 일본, 농림 인정 14작물 20품종 공표

- 농림수산성은 4.15일, 전국 시험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육성한 품종 중에서 품질이나 수량, 내병성이 뛰어나 현장으로 보급을 기대할 수 있는 14작물 20품종을 2009년도의 「농림 인정 품종」으로서 공표함.
- 주식용 쌀에 더하여, 사료용이나 미분 빵 가공에 적합한 수도(水稻)나 제빵을 목적으로 한 밀, 과육이 큰 고당도의 과수 등에서 보급을 진행시킬 예정임.

○ 일본, 화우 구제역 의심

- 농림수산성과 미야자키현은 4.20일, 동현 쓰노정(都農町)의 화우 번식 농가의 암소 3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된 의혹이 있다고 발표함. 의혹이 확정되면 국내에서의 발생은 2000년 이후 10년 만임.

- 가축전염예방법에 근거해, 발생 농장에서 기르고 있던 소 16 마리를 모두 처분함. 동성과 동현은 각각 대책 본부를 설치해, 조기 봉쇄를 위해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임.
- 한편 농수성은 같은 날,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 수출을 일시정지 함.

○ 중국, 극민농가 4,007만명

-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민과 농민의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민과 농민의 연간 평균소득 차이는 2008년 3.31대1에서 지난해에는 3.33대1로 확대됐고, 올해 3.35대1로 더욱 커질 전망임. 중국사회과학원은 4.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농촌경제 상황 분석 및 예측」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농산품 가격이 4% 정도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농민 1인당 연 평균소득은 5,670위안(약 92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지난해에 비해 500위안 이상 늘어나지만 도시민들의 소득 역시 1만 9,000위안으로 크게 증가해 도농 소득 차이가 커짐에 따라 4,007만명의 농민은 여전히 극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힘.

○ 중국,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와 국가통계국 농촌사회경제조사사(司)가 4.20일에 발표한 「농촌 록피서(綠皮書)」에 따르면, 2010년 곡물생산가격 증가율은 5%를 초과하여 농산물 전체가격을 4%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함.
- 전문가들은 2010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2010년에 나타난 이상기온, 국제곡물가격이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힘.

○ 이란, 벼농사 기계 장려로 농기계시장 진출 유망

- 이란은 강수량이 많고 비옥한 북부 카스피해 연안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함. 반면 전통적인 농기계를 사용하는 낙후된 영농기술 때문에 수확률이 좋지 않고, 경작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 매년 최대 8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음. 농업관계자에 따르면, 벼농사에서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이므로 벼농사의 기계화가 정착되면 생산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마잔다란(Maxandaran)의 주지사에 따르면, 선진 농기계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010년에만 700억 리알(약 70억 원)을 할당하였고, 50억 리알(약 5억 원)은 농민들의 영농 기계화를 위한 저리 대부자금으로 책정해 놓음.

▪ 이란의 농기계 부품시장에서 과거에는 유럽제품이 절대우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완제품 수출 외에도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이란 기업이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적극 희망하는 실정이므로,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 합작생산도 유망함.

○ 중국, 올해 곡물 수입량 급증

▪ 2010년 1~2월 곡물(밀, 옥수수, 벼, 쌀) 수입량이 27.3톤으로 2009년 동기 대비 94.6% 증가함. 그 중 밀이 18만 2,000톤으로 91.5% 증가, 옥수수가 1만 3,000톤으로 25배 증가했으며 쌀의 수입량은 7만 7,000톤으로 80.4% 상승함.

▪ 이번 곡물 수입의 증가 원인은 신년(元旦)과 춘절(春節) 등 명절로 인한 수요증가와, 밀의 국제시세가 낮아짐에 따라 수입가격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입업체들이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임. 또한 농민생활 수준의 제고를 위해 곡물의 수매가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장에서의 국내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함. 서남지역 5개 성(省)의 가뭄과 북방지역의 저기온 및 폭설로 인한 유통문제 역시 곡물가격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서남지방의 가뭄으로 곡물수확량은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북부지방은 추가적인 한파 피해가 없다면 전년 수준의 작황 기록이 가능함. 그러나 국제가격 대비 높은 수매가가 유지된다면 올해 역시 수입곡물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임.

○ 일본, 가축공제부금 지불 유예

▪ 미야자키현 내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수반해 큐슈 각지에서 가축시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는 문제로, 농림수산성은 4.27일 큐슈 각 현의 공제 조합이 가축공제부금에 대해서 시장 재개 후 60일까지의 지불 유예기간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각 현에 보냄. 축산 농가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문서를 보낸 곳은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쿠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카고시마의 큐슈 7현임. 문서를 받아 각 현 내의 공제 조합은 가축시장

폐쇄 후에 공제부금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만료된 날로부터 해당 시장 재개 후 60일까지의 지불 유예기간을 제정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방침임.

○ **일본, 10년만에 구제역 발생**

- 농림수산성은 4.23일 미야자키현 쓰노정의 농장에서 발견된 구제역 혐의가 있는 소 1마리에서 구제역 O형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발표함.
- 이로 인해 2000년 발생 이후 10년만에 국내 발생이 확정됨. 한국 등에서 금년 발생한 구제역에서도 O형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 동성은 다른 발생국의 협력을 얻어 바이러스를 대조해 볼 방침임.

○ **호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연기**

- 지난 4.27일 캐빈러더 호주 총리는 2012년 말까지 탄소배출감축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 탄소배출감축법안은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핵심법안이지만 산업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국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고 이번에 다시 정부가 법안 도입시기를 연기함.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사실상 2013년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호주 산업계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반응이 엇갈림. 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절감 제품을 생산하는 범녹색산업계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연기에 불만을 표출함. 반면 대부분의 전통산업 업계는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연기를 환영함.
- 탄소배출감축정책은 전 지구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당연시되나 탄소배출감축에 따른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을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2. 유럽

○ **EU, 3월 농어업각료이사회 결과**

- 2010.3.29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농어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EU 2020 전략 수립과 농업의 관계, 유럽 식품공급체인 기능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함.

1. EU 2020 전략의 관점에서 본 공동농업정책

- 이사회는 현재 수립중인 EU의 성장과 고용을 위한 중장기 신(新)전략의 관점에서 농업과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대부분의 농업각료들은 EU 집행위가 3.3일에 발표한 “Europe 2020: A European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보고서에 농업과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평가함.
- 농업각료들은 농업이 자연자원 활용혁신 분야(smart growth), 바이오에너지 분야(sustainable growth),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inclusive growth) 등을 통해서 EU 신전략 3대 분야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함.
- 특히 몇몇 농업각료들은 EU 신전략 수립과정이 향후 CAP 재원조달에 장애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의장국은 EU 신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동 이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6월에 신전략이 확정되기 전에 신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기로 함.

2. 유럽 식품공급체인 기능개선방안

- 이사회에서 논의된 의장국 보고서는 식품공급체인 상의 경제주체(농업인, 유통업자, 소비자 등)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대책이 필요함. 이러한 대책의 방향은 시장지향적이어야 하며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하지 말아야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아래 5대 과제를 제시함.
  ① 농식품 분야의 시장 구조개선과 통합
  ② 투명성 제고
  ③ 불공정 거래 관행 축소
  ④ 자율 규제(self-regulation) 촉진
  ⑤ 공동농업정책과 경쟁정책

3.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논의 : 2013년 이후의 시장관리정책

- 이사회에서는 2월 이사회부터 논의해온 시장관리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새로운 시장관리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음.
- 대부분의 회원국은 현재의 공동농업정책이 충분히 시장지향적이며,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현행 시장관리정책(Single CMO)이 유지되면서, 필요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룸.
- 최근 농식품 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른 보완적인 시장관리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의견이 갈려서 의장국 결론이 채택되지 못함.
- 동 의제를 포함한 2013년 이후 CAP 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5.30-6.1 예정된 비공식 농업각료회의 시 지속하기로 함.

4. 유럽 낙농품 시장 상황

- 이사회에서 EU집행위는 유럽 낙농시장 1분기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동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낙농품 가격이 최근에는 장기 평균 가격 수준(생산자 가격, 리터당 28센트)으로 회복되었음.

○ EU,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급증

- EU의 유기농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함.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의 2008년 유기농 재배면적은 780만ha로 2005년에 비해 21% 증가함.
- 지난 3년동안 폴란드(94%), 리투아니아(89%), 스페인(63%), 벨기에(57%)는 증가한 재배면적이 증가한 반면 이탈리아(-6%)와 헝가리(-5%)는 감소함.

○ EU,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 논의 시작

- EU 농업문제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의회 농업위원회와의 의견교환에서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개혁 방향에 대해 언급함. 27개 EU 회원국들은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줄이고 대신 여유 자금을 농촌개발정책에 투입하거나 우유 생산쿼터제를 폐지하는 것 등에 이미 합의한 상태임. 2013년 이후 CAP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는 올해부터 전체 EU 예산검토 차원에서 검토될 예정임. 프랑스와 스페인과 같은 농업국은 CAP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이 오래전부터 CAP에 부정적인 시작을 가진 회원국은 농산물도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 CAP와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 중 하나는 현재 전체 EU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AP 예산을 삭감하느냐 여부로서 프랑스와 같은 농업국과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회원국들 간에 의견대립이 큼.
- EU 집행위는 오는 6월까지 CAP의 장래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안건을 7월 중순경 회의에서 협의할 계획임. 올해 말까지 2013년 이후 CAP 방향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혁 법안은 2011년에 나올 것으로 보임.

○ EU, 신재생 기반 에너지로드맵 제시

- 유럽기후변화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은 EU 2005년 신재생 기반 에너지로드맵(Roadmap 2050)을 4.13일에 발표하여 EU 차원의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처방을 제시함. 이것은 2050년까지 탄소가스 배출을 8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EU의 전력부문을 탈탄소가스화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임.

- 회원국들은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설정하고 핵심 신재생에너지와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통합 저탄소 유럽전력망을 구축해야 함.
- EU 에너지 집행위원은 이번 보고서를 높이 평가하며, 오는 6월부터 2050년까지의 저탄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청문절차를 개시하여, 2011년 초에 EU 차원의 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에너지행동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이로 인해 EU의 중·장기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독일, 간편하고 신선한 냉동식품으로 외식대체

- 독일은 2009년 1인당 39,3㎏, 1가구당 81.2 ㎏의 냉동식품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됨. 냉동식품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조리 후 신선야채와 맛의 차이가 적어 냉동식품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또한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외식을 줄여야 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독일가정이 외식의 대체제로 냉동식품을 선택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 품목별로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냉동 빵과 스낵의 판매량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냉동피자와 냉동 반조리 식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 냉동생선과 냉동야채의 판매량은 감소함. 이것은 소비자들의 반조리 파스타와 퓨전음식,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 이외에도 전체 제품의 15%가 유기농 제품이므로 냉동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

3. 아메리카

○ 아르엔티나, CDM 프로젝트 다양화 추세

- 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통해 CDM 프로젝트가 등록되기 시작한 초기인 2005년부터 CDM 프로젝트 사업을 등록하여 2010년 3월까지 총 16건을 등록했음.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417만 9,863 메트릭톤임.
- 2005년부터 주로 쓰레기매립지 발생가스를 포집하는 CDM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총 16건의 등록 프로젝트 중 9건이 이에 해당함. 그러나 2007년부터 농림축산물 처리장, 산업현장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참여기업도 다국적화됨. 그밖에 UNFCCC를 통해 등록 검토 중인 12개의 CDM 프로젝트도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어메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분야로 다양화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향후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탄소배출권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존의 쓰레기 매립지 발생가스 포집 프로젝트 지속확대와 산림 폐기물 및 축산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메스 프로젝트를 집중 개발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작성 : 민자혜, 이정희.

주요 외신 동향 (2010. 4)

□ 미국, 위험관리를 위한 기금 사용

○ 미 농림부 산하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은 동반자 협정 보조금으로 860만 달러 가까운 금액을 사용할 것으로 발표.

- 이 협정은 생산자들에게 그들의 사업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자원이 제한적이고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농부들과 목장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함.
- 대략 250만 달러가 지역 봉사활동(outreach)에 사용가능함. 이 액수는 제한된 자원, 사회적 불이익과 기타 전통적으로 서비스가 불충분한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지원 프로젝트의 동반자 협정 기금에서 사용가능함.
- 대략 500만 달러가 목표대상 주(targeted states; Connecticut, Delaware, Hawaii,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Rhode Island, Utah, Vermont, West Virginia, and Wyoming)에서 곡물 보험 교육에 사용가능함.
- 대략 110만 달러가 지역의 훈련 기간에 생산자들에게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와 곡물 보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사용가능함.

○ 위험관리청의 Bill Murphy의 발언에 따르면 농무부는 농부들과 목장주들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생산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함.

- 이러한 프로젝트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소규모이고, 자원이 제한된 생산자들에게 보다 나은 위험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 (2010.03.23).

□ 미국,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 수행

○ 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Fort Berthold Indian Reservation 社의 농촌 지역 거주민들과 주변 지역 거주민들에게 경제, 교육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RTC(Reservation Telephone Cooperative) 社의 사회기반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에 선발된 곳을 발표함.
- 서비스 지역은 노스다코타와 몬태나 일부 지역을 포함함.
- 이는 농무부의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Recovery Act)을 통한 데이터통신망 구축 기금의 첫 번째 소식임.

○ 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이번 농무부의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에 사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교육, 직장,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
- Obama 대통령이 이번 달에 언급한 것처럼 초고속인터넷통신망은 혁신을 촉발시키고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조하며, 새롭고 강력한 정보의 원천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미국의 안전성과 안보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역 연계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함.

○ 1,095만 달러의 융자와 1,095만 달러의 보조금을 Fort Berthold Indian Reservation 주변의 농촌 지역과 원거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RTC에 지원할 것을 발표함.
- 이 프로젝트는 가정, 사업체, 학교, 도서관에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현재까지 68개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에 10억 6,700만 달러가 집행되었음.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 (2010.03.30).

□ 미국, 경기부양 법안 시행으로 3월 직업 162,000개 증가

○ 미국 농무부 Vilsack 장관은 4월 2일 일리노이주 타즈웰 카운티의 식품 가공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3월 미국 내 직업 162,000개가 증가하였다고 발표
-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 법안 시행에 따른 결과이며,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의 경우 식품 가공공장을 지원하면서 133개의 신규 직업이 창출되었다고 언급

- 이 식품 가공공장은 1937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전 소유주가 공장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665만 달러의 자금이 지원되면서 경영이 정상화됨.

○ 미국 농무부 및 행정부에서는 산업 및 지역사회의 사회 기간구조 및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500여개의 국립, 주립,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산업, 거주민, 농민, 목장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3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음.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 (2010.04.02).

□ 미국, 꿀벌 개체수 감소로 농작물 생산 악영향 우려

○ 미국 내 꿀벌의 개체수 감소현상이 발견된 2006년 이후, 꿀벌 개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농무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꿀벌 개체 감소율은 2007년 32%, 2008년 36%, 2009년 29%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벌꿀 생산 감소 및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는 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이 꿀벌이 대량으로 폐사하는 '군집 붕괴 현상(Colony Collapse Disorder, CCD)'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음.
- CCD의 주원인으로 바이러스, 기생충, 살충제, 영양분 부족, 환경파괴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결정적인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CCD의 주요 원인에 대해 미국 양봉협회 David Mendes 회장은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하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살충제의 사용량 증가를 들고 있음
- 이에 대해 과학지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 최신호에서 미국 23개 주와 캐나다에서 꿀벌과 꽃가루, 벌집 등에서 채취된 887개 샘플에서 121종류의 살충제가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살충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음.

참고자료: AFP통신, (2010.03.31).

□ 미국, 농가전망 발표 후 곡물 가격 하락

○ USDA는 농가전망에서 미국 전체 옥수수와 콩 식부면적이 충분하여 2년 연속 평년 수준의 작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함. 월스트리트저널은 낙관적인 농가전망으로 인해 곡물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함.

- 3월 초 86,000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옥수수의 올해 식부면적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8천 9백만 에이커로, 130억 부셀 이상 생산될 것으로 전망함.
- 콩 역시 전년 대비 0.8% 증가한 7천 8백만 에이커로, 34억 부셀 이상 생산될 것으로 전망함.

○ 농가전망이 발표된 후 상품시장에서 곡물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콩의 선물가격은 33센트(3.4%) 하락한 부셀 당 9.41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옥수수도 부셀 당 3.45달러로 9.5센트(2.7%) 하락함.

○ 지난해부터 비료와 농약 등 투입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곡물류의 생산비가 감소함에 따라, 농가에서 콩과 옥수수 생산을 늘린 것으로 판단됨. 콩과 옥수수는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농가에서는 콩과 옥수수가 수확이 많고 생산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콩과 옥수수의 생산면적 확대는 밀 생산 감소 때문이라고 보도함. 밀은 유전자 조작 작물로 인정되지 않고 생산성이 정체되고 있어, 식부면적이 전년 대비 9% 하락한 53.8에이커에 그침.

○ USDA는 기후 및 시장 상황에 따른 영농계획의 변동에 대해 오는 6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Wallstreet Journal (2010.04.01).

□ 중국 대두 수요 증가로 가격은 3개월간 지속 상승

○ 중국이 아르헨티나와의 무역분쟁으로 대두 수입이 제한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대두유 수입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두 가격은 작년 11월에 가장 크게 상승한 이후 3개월간 급상승

- 브라질 농림부 장관인 Wagner Rossi는 세계 최대 대두 소비국가인 중국이 아르헨티나로부터 대두 수입이 제한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식물성 기름의 수입을 늘릴 계획에 있다고 언급함.
- 금주에 중국 국가 곡물유 정보센터(The China National Grain&Oils Informaion Center)에서는 4월에 430만 톤이 수입되었고, 5월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550만 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 Prudential Bache Commodities LLC 조사국 부회장인 Anne Frick은 대두에 대한 중국의 수입수요 증가는 시장심리에 낙관적인 영향을 계속 제공하면서 미국의 대두 공급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대두 선물가격은 작년 7월에 2센트(0.2%) 상승한 부셀 당 9.95달러 수준이었고, 이후 금년 1월 12일에는 부셀 당 9.99달러로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금주 대두 선물가격은 4.5% 상승하였으며, 이는 작년 11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미농무부는 대두 수확 전인 8월 31일에 1억 9,000만 부셀(515만 9,000톤)을 보유할 것이며 현재 비축량은 1억 3,800만 부셀로 197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언급함.
- Anne Frick은 미국의 수출 증가가 대두 이월량을 1억 5,300만 부셀까지 감소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대두 공급 상황은 위축될 것이라고 언급함.

○ 대두는 미국에서 옥수수에 이어 2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농작물로 생산액이 318억달러(2009년 기준)에 달함. 미국은 세계 최대 대두 생산 및 수출국이며 그 다음으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임.

참고자료: Business Week (2010.04.16).

□ 미국의 쇠고기 관리 기준 부재

○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항생제, 살충제, 중금속에 의한 쇠고기의 오염 관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USDA 감찰관은 연방기구들이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 잔여물의 허용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러한 위해 물질이 함유된 쇠고기가 시중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언급함.
- 살충제 잔여물 검사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구리와 같은 중금속에 대한 정해진 허용기준이 없음. 이로 인해 2008년 멕시코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구리 함량 기준치 초과로 국내 반입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와 매우 유사한 쇠고기가 판매될 수 있었음.

○ 또한 미국 소비자단체(The Consumer Advocacy Group Food and Water Watch)의 Tony Corbo는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고 지적하면서 항생제, 살충제 등은 인체에 오fot동안 축적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화학 잔여물 오염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coil과 Samonella와 같은 박테리아는 급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쇠고기에 함유된 화학 잔여물은 요리할 때 파괴되지 않고 장기간 축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나타남.

○ USDA는 감찰관의 권고에 따라 화학 잔여물 검사와 허용 기준 설정을 포함한 수정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함.
- USDA 대변인은 이러한 방안이 작년 오바마 대통령이 식품 안전성 협력단체(Food Safety Working Group)를 창설한 주요 이유 중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향후 FDA와 EPA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언급함.
- 미국 쇠고기 생산자 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는 쇠고기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연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함.
- 미국 쇠고기 공급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쇠고기 산업은 소비자에게 가장 안전한 쇠고기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 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발표함.

○ USA Today의 보도에 의하면, 쇠고기가 수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거치기 때문에 화학 잔여물의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쇠고기에 대한 이력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쇠고기 협회가 NAIS(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에 있어서 가축에 대한 포괄적인 이력추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발표함.

참고자료: CNN (2010.04.14).

□ 미국, 위험 관리를 위한 기금 사용

○ 미 농림부 산하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은 동반자 협정 보조금으로 860만 달러 가까운 금액을 사용할 것으로 발표함.

- 이 협정은 생산자들에게 그들의 사업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자원이 제한적이고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농부들과 목장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함.
- 대략 250만 달러가 지역 봉사활동(outreach)에 사용가능함. 이 액수는 제한된 자원, 사회적 불이익과 기타 전통적으로 서비스가 불충분한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지원 프로젝트의 동반자 협정 기금에서 사용가능함.
- 대략 500만 달러가 목표대상 주(targeted states; Connecticut, Delaware, Hawaii,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Rhode Island, Utah, Vermont, West Virginia, and Wyoming)에서 곡물 보험 교육에 사용가능함.
- 대략 110만 달러가 지역의 훈련 기간에 생산자들에게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와 곡물 보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사용가능함.

○ 위험관리청의 Bill Murphy가 발언에 따르면 농무부는 농부들과 목장주들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생산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함.

- 이러한 프로젝트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소규모이고, 자원이 제한된 생산자에게 보다 나은 위험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2010.03.23).

□ 미국,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 수행

○ 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Fort Berthold Indian Reservation 社의 농촌 지역 거주민들과 주변 지역 거주민들에게 경제, 교육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RTC(Reservation Telephone Cooperative) 社의 사회기반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에 선발된 곳을 발표함.

- 서비스 지역은 노스다코타와 몬태나 일부 지역을 포함함.
- 이는 농무부의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Recovery Act)을 통한 데이터통신망 구축 기금의 첫 번째 소식임.

○ 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이번 농무부의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에 사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교육, 직장,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
- Obama 대통령이 이번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미국은 초고속인터넷통신망으로 혁신을 촉발시키고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조하며 새롭고 강력한 정보의 원천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미국의 안전성과 안보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인 지역 연계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함.

○ 1,095만 달러의 융자와 1,095만 달러의 보조금을 Fort Berthold Indian Reservation 주변의 농촌 지역과 원거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RTC에 지원할 것을 발표함.
- 이 프로젝트는 가정, 사업체, 학교, 도서관에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현재까지 68개 초고속인터넷통신망 프로젝트에 10억 6,700만 달러가 집행되었음.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2010.03.30).

자료작성 : 미래정책연구실

세계 농업 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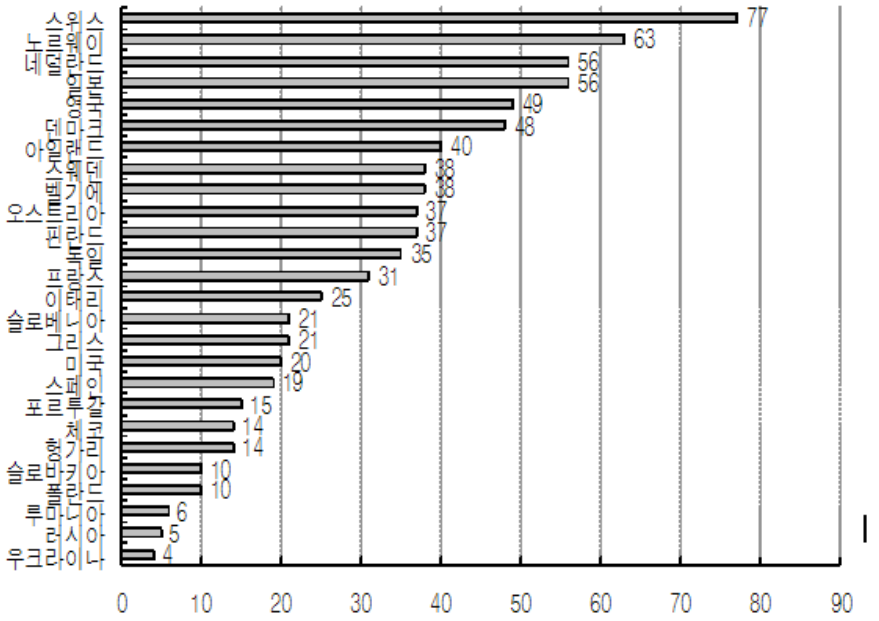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우리나라의 1인당 화훼 소비액은 2008년 기준 17,847원이다. 네덜란드 11만원, 스위스 15만원, 노르웨이 16만원 등 화훼 소비가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 격차가 매우 크고 이웃 일본에 비교해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꽃 소비패턴이 일상화되지 못하고 특수소비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꽃 소비가 저조하기 때문에 화훼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설상가상으로 농자재 가격, 유가 등 생산비가 상승하여 국내 화훼농가의 소득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광우, 2010).

이번 달에는 세계 주요국별 1인당 화훼 소비액을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는 네덜란드 화훼협회(FCH:Flower Council of Holland)에서 매년 발표하는 Facts & Figures를 참조하였다.

그림 1 세계 주요국 감귤류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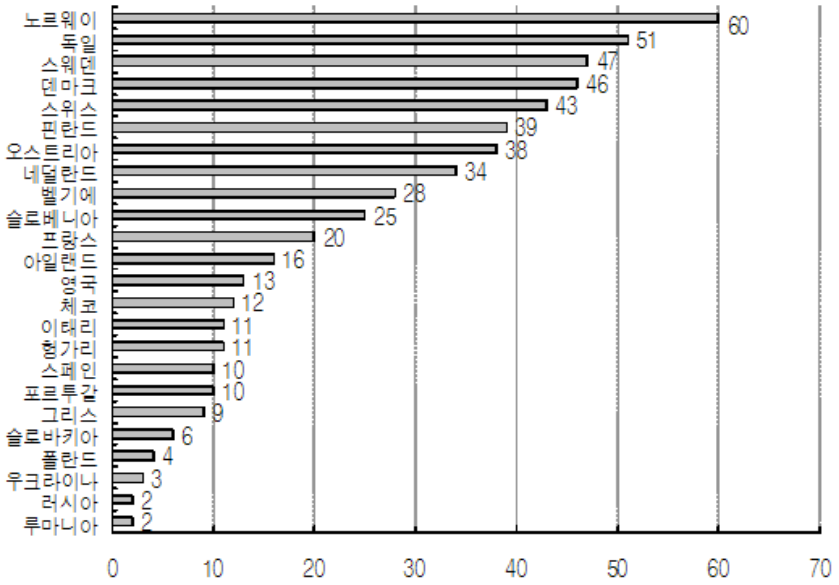


자료: Facts & Figures 2008.(www.flowercouncil.org).

주요 선진국의 1인당 화훼 소비액은 36~123유로(한화 6~20만원) 수준이며, 1인당 화훼 소비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나타났다. 부류별로 보면, 절화류는 스위스가 77유로로 가장 높았고, 분화류는 노르웨이가 60유로로 1인당 소비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주요국별 분화류 1인당 소비액(2007년)

단위: 유로



자료: Facts & Figures 2008.(www.flowercouncil.org).

선진국 대비 화훼 소비액 격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 증가와 함께 일상적인 화훼 소비문화가 생활화된다면 우리나라의 화훼 소비도 앞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Facts & Figures 2008.(www.flowercouncil.org).
이광우, 「꽃이 있는 사무실」, 국민일보 기고 2010.3.16.

작성자: 윤종열, 민자혜.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
(2010/11)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국가명	수확면적 Area Harvested			단수 Yield	
	1000HA	비율 %	순위	MT/HA	순위
아프가니스탄	150	0.09	63	2	59
알바니아	60	0.04	78	3.33	35
알제리	1	0.00	108	1	94
앙골라	1,200	0.75	21	0.83	101
아르헨티나	2,600	1.63	12	8.08	7
오스트레일리아	65	0.04	77	5.38	17
아제르바이잔	34	0.02	86	4.41	25
벨로루시	130	0.08	67	6.15	13
베닌	700	0.44	33	1.57	80
부탄	45	0.03	83	1.56	81
볼리비아	310	0.19	52	2.26	56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50	0.09	63	3.67	32
보스와나	20	0.01	94	0.5	108
브라질	12,750	8.00	3	4	29
부르키나	521	0.33	39	1.92	67
버마	375	0.24	48	3.33	35
부룬디	115	0.07	71	1.04	93
캄보디아	180	0.11	62	3.89	30
카메룬	350	0.22	49	2.57	51
캐나다	1,200	0.75	21	8.75	6
카보베르데	15	0.01	98	0.53	10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80	0.05	74	1.38	86
차드	214	0.13	60	0.93	99
칠레	120	0.08	69	11.5	2
중국	30,800	19.33	2	5.39	16
콜롬비아	545	0.34	37	2.97	45
콩고(브라자빌)	10	0.01	102	0.8	102
콩고(킨샤샤)	1,350	0.85	18	0.89	100
코스타리카	10	0.01	102	1.8	69
코트 디부아르	600	0.38	35	1.08	92
크로아티아	320	0.20	51	6.88	11
쿠바	140	0.09	66	2.57	51
도미니크	30	0.02	87	1.33	87
에콰도르	300	0.19	54	3.17	41
이집트	870	0.55	29	8.05	8
엘살바도르	260	0.16	55	3.27	39
에리트레아	15	0.01	98	0.33	112
에티오피아	2,000	1.26	14	2.2	57
유럽연합-27	8,406	5.28	4	6.78	12
감비아	30	0.02	87	1.5	83
그루지야	100	0.06	72	2	59
가나	900	0.56	28	1.83	68
과테말라	700	0.44	33	1.71	72
기니	500	0.31	40	1	94
기니비사우	15	0.01	98	2	59
가이아나	5	0.00	105	1	94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생산량 Production			초기 재고량 Beginning Stocks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300	0.04	65	0	0.00	93	Afghanistan
200	0.02	70	0	0.00	93	Albania
1	0.00	110	387	0.26	27	Algeria
1,000	0.12	44	232	0.16	36	Angola
21,000	2.51	6	2,510	1.71	6	Argentina
350	0.04	64	33	0.02	75	Australia
150	0.02	77	20	0.01	80	Azerbaijan
800	0.10	49	147	0.10	47	Belarus
1,100	0.13	43	230	0.16	37	Benin
70	0.01	90	0	0.00	93	Bhutan
700	0.08	51	119	0.08	54	Bolivia
550	0.07	57	105	0.07	56	Bosnia and Herzegovina
10	0.00	102	12	0.01	89	Botswana
51,000	6.11	4	12,084	8.22	3	Brazil
1,000	0.12	44	164	0.11	42	Burkina
1,250	0.15	39	53	0.04	69	Burma
120	0.01	81	0	0.00	93	Burundi
700	0.08	51	61	0.04	65	Cambodia
900	0.11	47	0	0.00	93	Cameroon
10,500	1.26	10	1,317	0.90	12	Canada
8	0.00	103	0	0.00	93	Cape Verde
110	0.01	82	0	0.00	93	Central African Republic
200	0.02	70	0	0.00	93	Chad
1,380	0.17	38	144	0.10	48	Chile
166,000	19.88	2	53,319	36.26	1	China
1,620	0.19	31	792	0.54	16	Colombia
8	0.00	103	0	0.00	93	Congo (Brazzaville)
1,200	0.14	40	76	0.05	61	Congo (Kinshasa)
18	0.00	99	57	0.04	66	Costa Rica
650	0.08	53	47	0.03	72	Cote d'Ivoire
2,200	0.26	25	189	0.13	38	Croatia
360	0.04	63	71	0.05	62	Cuba
40	0.00	97	144	0.10	48	Dominican Republic
950	0.11	46	140	0.10	50	Ecuador
7,000	0.84	13	1,336	0.91	11	Egypt
850	0.10	48	113	0.08	55	El Salvador
5	0.00	105	0	0.00	93	Eritrea
4,400	0.53	18	271	0.18	35	Ethiopia
57,025	6.83	3	4,426	3.01	4	EU-27
45	0.01	96	0	0.00	93	Gambia, The
200	0.02	70	47	0.03	72	Georgia
1,650	0.20	30	173	0.12	41	Ghana
1,200	0.14	40	153	0.10	46	Guatemala
500	0.06	58	19	0.01	81	Guinea
30	0.00	98	0	0.00	93	Guinea-Bissau
5	0.00	105	0	0.00	93	Guyana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국가명	수확면적 Area Harvested			단수 Yield	
	1000HA	비율	순위	MT/HA	순위
아이티	350	0.22	49	0.71	104
온두라스	400	0.25	44	1.5	83
인도	8,200	5.15	5	2.44	55
인도네시아	3,150	1.98	8	2.67	49
이란	260	0.16	55	7.5	10
이라크	75	0.05	76	2	59
이스라엘	0	0.00	113	0	113
자메이카	4	0.00	106	0.5	108
일본	1	0.00	108	1	94
요르단	1	0.00	108	16	1
카자흐스탄	90	0.06	73	3.06	42
케냐	1,800	1.13	15	1.67	76
북한	525	0.33	38	3	43
한국	16	0.01	96	5	19
쿠웨이트	0	0.00	113	0	113
키르기스스탄	76	0.05	75	5.92	14
라오스	310	0.19	52	5	19
레바논	1	0.00	108	3	43
레소토	125	0.08	68	0.5	108
리비아	0	0.00	113	0	113
마케도니아	45	0.03	83	3.33	35
마다가스카	195	0.12	61	1.54	82
말라위	1,750	1.10	16	1.71	72
말레이시아	28	0.02	89	3.75	31
말리	378	0.24	47	1.69	75
모리타니아	24	0.02	93	0.71	104
멕시코	7,200	4.52	6	3.4	34
몰도바	450	0.28	42	2.67	49
모로코	250	0.16	57	0.8	102
모잠비크	1,200	0.75	21	1.25	89
네팔	850	0.53	30	2	59
뉴질랜드	16	0.01	96	10.75	3
니카라과	384	0.24	45	1.13	91
나이지리아	4,900	3.08	7	1.78	70
파키스탄	1,050	0.66	25	2.86	47
파나마	50	0.03	81	1.7	74
파라과이	750	0.47	32	2.8	48
페루	550	0.35	36	2.91	46
필리핀	2,650	1.66	11	2.57	51
러시아	1,500	0.94	17	3.67	32
르완다	150	0.09	63	1.67	76
사우디아라비아	11	0.01	101	5.45	15
세네갈	228	0.14	58	1.99	66
세르비아	1,300	0.82	19	5	19
시에라리온	25	0.02	90	2	59
소말리아	220	0.14	59	0.45	111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생산량 Production			초기 재고량 Beginning Stocks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250	0.03	68	0	0.00	93	Haiti
600	0.07	55	132	0.09	53	Honduras
20,000	2.40	7	591	0.40	20	India
8,400	1.01	12	834	0.57	15	Indonesia
1,950	0.23	28	1,203	0.82	13	Iran
150	0.02	77	0	0.00	93	Iraq
	0.00	113	63	0.04	64	Israel
2	0.00	109	13	0.01	88	Jamaica
1	0.00	110	999	0.68	14	Japan
16	0.00	101	19	0.01	81	Jordan
275	0.03	67	2	0.00	92	Kazakhstan
3,000	0.36	22	139	0.09	51	Kenya
1,575	0.19	33	0	0.00	93	Korea, North
80	0.01	86	1,450	0.99	9	Korea, South
	0.00	113	11	0.01	90	Kuwait
450	0.05	61	51	0.03	70	Kyrgyzstan
1,550	0.19	34	350	0.24	29	Laos
3	0.00	108	16	0.01	85	Lebanon
63	0.01	91	0	0.00	93	Lesotho
	0.00	113	49	0.03	71	Libya
150	0.02	77	30	0.02	76	Macedonia
300	0.04	65	19	0.01	81	Madagascar
3,000	0.36	22	1,408	0.96	10	Malawi
105	0.01	83	330	0.22	31	Malaysia
640	0.08	54	27	0.02	77	Mali
17	0.00	100	0	0.00	93	Mauritania
24,500	2.93	5	1,909	1.30	7	Mexico
1,200	0.14	40	189	0.13	38	Moldova
200	0.02	70	290	0.20	33	Morocco
1,500	0.18	35	395	0.27	26	Mozambique
1,700	0.20	29	155	0.11	44	Nepal
172	0.02	75	17	0.01	84	New Zealand
435	0.05	62	57	0.04	66	Nicaragua
8,700	1.04	11	275	0.19	34	Nigeria
3,000	0.36	22	381	0.26	28	Pakistan
85	0.01	85	77	0.05	60	Panama
2,100	0.25	26	529	0.36	24	Paraguay
1,600	0.19	32	174	0.12	40	Peru
6,800	0.81	14	703	0.48	17	Philippines
5,500	0.66	16	137	0.09	52	Russia
250	0.03	68	54	0.04	68	Rwanda
60	0.01	92	156	0.11	43	Saudi Arabia
454	0.05	60	14	0.01	86	Senegal
6,500	0.78	15	1,664	1.13	8	Serbia
50	0.01	94	0	0.00	93	Sierra Leone
100	0.01	84	14	0.01	86	Somalia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국가명	수확면적 Area Harvested			단수 Yield	
	1000HA	비율 %	순위	MT/HA	순위
남아프리카공화국	3,000	1.88	10	4.17	26
스와질랜드	55	0.03	80	1.31	88
스위스	20	0.01	94	9.25	5
시리아	60	0.04	78	2.5	54
타이완	10	0.01	102	5.3	18
타자키스탄	25	0.02	90	3.2	40
탄자니아	3,100	1.95	9	1.16	90
태국	970	0.61	26	4.02	28
토고	380	0.24	46	1.58	79
트리니다드토바고	3	0.00	107	1.67	76
튀니지	1	0.00	108	1	94
터키	500	0.31	40	7.8	9
투르크메니스탄	25	0.02	90	2	59
우크라이나	850	0.53	30	1.76	71
아랍에미리트연합국	2,300	1.44	13	5	19
미국	33,087	20.77	1	10.26	4
우루과이	120	0.08	69	4.17	26
우즈베키스탄	35	0.02	85	4.57	24
베네수엘라	450	0.28	42	3.33	35
베트남	1,200	0.75	21	4.58	23
예멘	50	0.03	81	1.5	83
잠비아	950	0.60	27	2.11	58
짐바브웨	1,300	0.82	19	0.58	106
합계	159,320	100.00			

자료: PSD, FAS/USDA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생산량 Production			초기 재고량 Beginning Stocks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12,500	1.50	8	4,207	2.86	5	South Africa
72	0.01	89	0	0.00	93	Swaziland
185	0.02	74	11	0.01	90	Switzerland
150	0.02	77	458	0.31	25	Syria
53	0.01	93	577	0.39	21	Taiwan
80	0.01	86	0	0.00	93	Tajikistan
3,600	0.43	21	94	0.06	58	Tanzania
3,900	0.47	19	551	0.37	22	Thailand
600	0.07	55	64	0.04	63	Togo
5	0.00	105	21	0.01	79	Trinidad and Tobago
1	0.00	110	83	0.06	59	Tunisia
3,900	0.47	19	682	0.46	19	Turkey
50	0.01	94	0	0.00	93	Turkmenistan
1,500	0.18	35	155	0.11	44	Uganda
11,500	1.38	9	544	0.37	23	Ukraine
339,614	40.67	1	44,157	30.03	2	United States
500	0.06	58	98	0.07	57	Uruguay
160	0.02	76	25	0.02	78	Uzbekistan
1,500	0.18	35	331	0.23	30	Venezuela
5,500	0.66	16	699	0.48	18	Vietnam
75	0.01	88	46	0.03	74	Yemen
2,000	0.24	27	324	0.22	32	Zambia
750	0.09	50	0	0.00	93	Zimbabwe
835,033	100.00		147,044	100.00		World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국가명	수입량 TY Imports			수입의존도 (수입량/총공급량)
	1000MT	비율 %	순위	%
아프가니스탄	0	0.00	87	0
알바니아	50	0.06	57	20
알제리	2,300	2.67	11	86
앙골라	0	0.00	87	0
아르헨티나	25	0.03	64	0
오스트레일리아	0	0.00	87	0
아제르바이잔	75	0.09	55	31
벨로루시	25	0.03	64	3
베닌	0	0.00	87	0
부탄	0	0.00	87	0
볼리비아	5	0.01	81	1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200	0.23	43	23
보스와나	150	0.17	44	87
브라질	1,000	1.16	18	2
부르키나	0	0.00	87	0
버마	0	0.00	87	0
부룬디	0	0.00	87	0
캄보디아	0	0.00	87	0
카메룬	10	0.01	74	1
캐나다	2,500	2.90	9	17
카보베르데	10	0.01	74	5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	0.00	87	0
차드	25	0.03	64	11
칠레	750	0.87	22	33
중국	100	0.12	48	0
콜롬비아	3,400	3.95	6	58
콩고(브라자빌)	5	0.01	81	38
콩고(킨샤샤)	10	0.01	74	1
코스타리카	700	0.81	24	90
코트 디부아르	15	0.02	73	2
크로아티아	25	0.03	64	1
쿠바	800	0.93	21	65
도미니크	1,050	1.22	17	85
에콰도르	350	0.41	34	24
이집트	5,400	6.27	4	39
엘살바도르	500	0.58	28	34
에리트레아	0	0.00	87	0
에티오피아	0	0.00	87	0
유럽연합-27	2,500	2.90	9	4
피지	0	0.00	87	0
그루지야	50	0.06	57	17
가나	0	0.00	87	0
과테말라	650	0.75	26	32
기니	0	0.00	87	0
기니비사우	0	0.00	87	0
가이아나	25	0.03	64	83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수출량 TY Exports			총공급 Total Supply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0	0.00	42	300	0.03	83	Afghanistan
0	0.00	42	250	0.02	89	Albania
0	0.00	42	2,688	0.25	33	Algeria
0	0.00	42	1,232	0.12	56	Angola
13,000	14.57	2	23,535	2.20	6	Argentina
10	0.01	32	383	0.04	80	Australia
0	0.00	42	245	0.02	92	Azerbaijan
25	0.03	26	972	0.09	61	Belarus
0	0.00	42	1,330	0.12	51	Benin
0	0.00	42	70	0.01	106	Bhutan
25	0.03	26	824	0.08	66	Bolivia
0	0.00	42	855	0.08	64	Bosnia and Herzegovina
0	0.00	42	172	0.02	97	Botswana
7,500	8.40	3	64,084	6.00	3	Brazil
0	0.00	42	1,164	0.11	59	Burkina
400	0.45	11	1,303	0.12	52	Burma
0	0.00	42	120	0.01	103	Burundi
300	0.34	13	761	0.07	68	Cambodia
0	0.00	42	910	0.09	62	Cameroon
300	0.34	13	14,317	1.34	10	Canada
0	0.00	42	18	0.00	115	Cape Verde
0	0.00	42	110	0.01	104	Central African Republic
0	0.00	42	225	0.02	94	Chad
75	0.08	23	2,274	0.21	39	Chile
200	0.22	17	219,419	20.54	2	China
0	0.00	42	5,812	0.54	20	Colombia
0	0.00	42	13	0.00	117	Congo (Brazzaville)
0	0.00	42	1,286	0.12	53	Congo (Kinshasa)
0	0.00	42	775	0.07	67	Costa Rica
0	0.00	42	712	0.07	69	Cote d'Ivoire
200	0.22	17	2,414	0.23	36	Croatia
0	0.00	42	1,231	0.12	57	Cuba
0	0.00	42	1,234	0.12	55	Dominican Republic
10	0.01	32	1,440	0.13	49	Ecuador
0	0.00	42	13,736	1.29	11	Egypt
5	0.01	37	1,463	0.14	48	El Salvador
0	0.00	42	5	0.00	118	Eritrea
0	0.00	42	4,671	0.44	25	Ethiopia
1,200	1.34	8	63,951	5.99	4	EU-27
0	0.00	42	45	0.00	110	Fiji
0	0.00	42	297	0.03	84	Georgia
0	0.00	42	1,823	0.17	45	Ghana
5	0.01	37	2,003	0.19	40	Guatemala
0	0.00	42	519	0.05	76	Guinea
0	0.00	42	30	0.00	111	Guinea-Bissau
0	0.00	42	30	0.00	111	Guyana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국가명	수입량 TY Imports			수입의존도 (수입량/총공급량)
	1000MT	비율 %	순위	%
아이티	0	0.00	87	0
온두라스	450	0.52	32	38
홍콩	30	0.03	63	100
인도	0	0.00	87	0
인도네시아	600	0.70	27	6
이란	3,200	3.72	7	50
이라크	100	0.12	48	40
이스라엘	1,000	1.16	18	94
자메이카	250	0.29	41	94
일본	16,300	18.93	1	94
요르단	350	0.41	34	91
카자흐스탄	0	0.00	87	0
케냐	300	0.35	37	9
북한	150	0.17	44	9
한국	8,600	9.99	3	85
쿠웨이트	125	0.15	46	92
키르기스스탄	0	0.00	87	0
라오스	5	0.01	81	0
레바논	275	0.32	40	94
레소토	100	0.12	48	61
리비아	475	0.55	31	91
마케도니아	50	0.06	57	22
마다가스카	5	0.01	81	2
말라위	0	0.00	87	0
말레이시아	2,800	3.25	8	87
말리	0	0.00	87	0
모리타니아	0	0.00	87	0
멕시코	9,100	10.57	2	26
몰도바	5	0.01	81	0
모로코	1,800	2.09	13	79
모잠비크	50	0.06	57	3
네팔	25	0.03	64	1
뉴질랜드	0	0.00	87	0
니카라과	125	0.15	46	20
나이지리아	100	0.12	48	1
노르웨이	50	0.06	57	100
파키스탄	10	0.01	74	0
파나마	350	0.41	34	68
파라과이	10	0.01	74	0
페루	1,600	1.86	15	47
필리핀	400	0.46	33	5
러시아	100	0.12	48	2
르완다	0	0.00	87	0
사우디아라비아	1,700	1.97	14	89
세네갈	100	0.12	48	18
세르비아	0	0.00	87	0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수출량 TY Exports			총공급 Total Supply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0	0.00	42	250	0.02	89	Haiti
0	0.00	42	1,182	0.11	58	Honduras
0	0.00	42	30	0.00	111	Hong Kong
2,000	2.24	6	20,591	1.93	7	India
50	0.06	24	9,834	0.92	14	Indonesia
0	0.00	42	6,353	0.59	19	Iran
0	0.00	42	250	0.02	89	Iraq
10	0.01	32	1,063	0.10	60	Israel
0	0.00	42	265	0.02	88	Jamaica
0	0.00	42	17,300	1.62	8	Japan
0	0.00	42	385	0.04	79	Jordan
5	0.01	37	277	0.03	86	Kazakhstan
25	0.03	26	3,439	0.32	28	Kenya
0	0.00	42	1,725	0.16	46	Korea, North
0	0.00	42	10,130	0.95	13	Korea, South
0	0.00	42	136	0.01	100	Kuwait
0	0.00	42	501	0.05	78	Kyrgyzstan
400	0.45	11	1,905	0.18	43	Laos
0	0.00	42	294	0.03	85	Lebanon
0	0.00	42	163	0.02	98	Lesotho
0	0.00	42	524	0.05	75	Libya
0	0.00	42	230	0.02	93	Macedonia
0	0.00	42	324	0.03	81	Madagascar
300	0.34	13	4,408	0.41	26	Malawi
10	0.01	32	3,235	0.30	31	Malaysia
0	0.00	42	667	0.06	70	Mali
0	0.00	42	17	0.00	116	Mauritania
150	0.17	20	35,509	3.32	5	Mexico
25	0.03	26	1,394	0.13	50	Moldova
0	0.00	42	2,290	0.21	38	Morocco
0	0.00	42	1,945	0.18	41	Mozambique
0	0.00	42	1,880	0.18	44	Nepal
5	0.01	37	189	0.02	96	New Zealand
5	0.01	37	617	0.06	73	Nicaragua
100	0.11	21	9,075	0.85	15	Nigeria
0	0.00	42	50	0.00	107	Norway
0	0.00	42	3,391	0.32	29	Pakistan
0	0.00	42	512	0.05	77	Panama
1,000	1.12	9	2,639	0.25	34	Paraguay
10	0.01	32	3,374	0.32	30	Peru
0	0.00	42	7,903	0.74	17	Philippines
200	0.22	17	5,737	0.54	21	Russia
0	0.00	42	304	0.03	82	Rwanda
0	0.00	42	1,916	0.18	42	Saudi Arabia
0	0.00	42	568	0.05	74	Senegal
2,000	2.24	6	8,164	0.76	16	Serbia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국가명	수입량 TY Imports			수입의존도 (수입량/총공급량)
	1000MT	비율 %	순위	%
시에라리온	0	0.00	87	0
싱가폴	25	0.03	64	100
소말리아	25	0.03	64	18
남아프리카공화국	25	0.03	64	0
스와질랜드	50	0.06	57	41
스위스	75	0.09	55	28
시리아	2,000	2.32	12	77
타이완	4,700	5.46	5	88
타자키스탄	5	0.01	81	6
탄자니아	0	0.00	87	0
태국	700	0.81	24	14
토고	0	0.00	87	0
트리니다드토바고	100	0.12	48	79
튀니지	750	0.87	22	90
터키	300	0.35	37	6
투르크메니스탄	0	0.00	87	0
우간다	0	0.00	87	0
우크라이나	10	0.01	74	0
아랍에미리트연합국	0	0.00	87	0
미국	250	0.29	41	0
우루과이	300	0.35	37	33
우즈베키스탄	10	0.01	74	5
베네수엘라	1,400	1.63	16	43
베트남	1,000	1.16	18	14
예멘	500	0.58	28	81
잠비아	0	0.00	87	0
짐바브웨	500	0.58	28	40
합계	86,120	100.00		

자료: PSD, FAS/USDA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수출량 TY Exports			총공급 Total Supply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0	0.00	42	50	0.00	107	Sierra Leone
0	0.00	42	25	0.00	114	Singapore
0	0.00	42	139	0.01	99	Somalia
2,500	2.80	5	16,732	1.57	9	South Africa
0	0.00	42	122	0.01	102	Swaziland
0	0.00	42	271	0.03	87	Switzerland
0	0.00	42	2,608	0.24	35	Syria
0	0.00	42	5,330	0.50	22	Taiwan
0	0.00	42	85	0.01	105	Tajikistan
25	0.03	26	3,694	0.35	27	Tanzania
700	0.78	10	5,151	0.48	23	Thailand
0	0.00	42	664	0.06	71	Togo
0	0.00	42	126	0.01	101	Trinidad and Tobago
0	0.00	42	834	0.08	65	Tunisia
300	0.34	13	4,882	0.46	24	Turkey
25	0.03	26	50	0.00	107	Turkmenistan
0	0.00	42	1,655	0.15	47	Uganda
5,000	5.60	4	12,054	1.13	12	Ukraine
0	0.00	42	0	0.00	119	United Arab Emirates
51,000	57.14	1	384,025	35.95	1	United States
50	0.06	24	898	0.08	63	Uruguay
0	0.00	42	195	0.02	95	Uzbekistan
0	0.00	42	3,231	0.30	32	Venezuela
0	0.00	42	7,199	0.67	18	Vietnam
0	0.00	42	621	0.06	72	Yemen
100	0.11	21	2,324	0.22	37	Zambia
0	0.00	42	1,250	0.12	54	Zimbabwe
89,250	100.00		1,068,201	100.00		World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국가명	소비량 Total Consumption			자급율 (생산량(정곡)/소비량)	
	1000MT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아프가니스탄	300	0.04	81	100	19
알바니아	250	0.03	86	80	69
알제리	2,300	0.28	33	0	110
앙골라	1,100	0.13	54	91	64
아르헨티나	7,500	0.91	14	100	19
오스트레일리아	355	0.04	79	99	51
아제르바이잔	225	0.03	92	100	19
벨로루시	850	0.10	60	94	59
베닌	1,200	0.15	49	92	61
부탄	70	0.01	106	100	19
볼리비아	700	0.08	65	100	19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800	0.10	62	100	19
보스와나	160	0.02	98	6	99
브라질	48,300	5.85	4	106	12
부르키나	1,000	0.12	57	100	19
버마	850	0.10	60	147	4
부룬디	120	0.01	102	100	19
캄보디아	400	0.05	78	175	3
카메룬	900	0.11	59	100	19
캐나다	12,200	1.48	9	100	19
카보베르데	18	0.00	115	44	8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10	0.01	103	100	19
차드	225	0.03	92	100	19
칠레	2,000	0.24	35	69	77
중국	159,000	19.26	2	104	15
콜롬비아	5,100	0.62	20	32	92
콩고(브라자빌)	13	0.00	117	62	81
콩고(킨샤샤)	1,200	0.15	49	100	19
코스타리카	700	0.08	65	100	19
코트 디부아르	650	0.08	67	100	19
크로아티아	2,000	0.24	35	110	10
쿠바	1,150	0.14	53	31	93
도미니크	1,050	0.13	55	4	102
에콰도르	1,300	0.16	47	73	75
이집트	12,600	1.53	8	56	86
엘살바도르	1,350	0.16	46	63	80
에리트레아	5	0.00	118	100	19
에티오피아	4,200	0.51	23	105	14
유럽연합-27	58,500	7.09	3	97	53
피지	45	0.01	110	0	112
그루지야	250	0.03	86	80	69
가나	1,650	0.20	44	100	19
과테말라	1,850	0.22	39	65	79
기니	500	0.06	74	100	19
기니비사우	30	0.00	111	100	19
가이아나	30	0.00	111	17	95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재고량/소비량)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0	0.0	93	0.0	93	Afghanistan
0	0.0	93	0.0	93	Albania
388	0.3	27	16.9	18	Algeria
132	0.1	47	12.0	37	Angola
3,035	2.0	7	40.5	4	Argentina
18	0.0	83	5.1	85	Australia
20	0.0	78	8.9	62	Azerbaijan
97	0.1	57	11.4	40	Belarus
130	0.1	49	10.8	49	Benin
0	0.0	93	0.0	93	Bhutan
99	0.1	56	14.1	28	Bolivia
55	0.0	68	6.9	77	Bosnia and Herzegovina
12	0.0	89	7.5	71	Botswana
8,784	5.7	3	18.2	15	Brazil
164	0.1	43	16.4	20	Burkina
53	0.0	70	6.2	79	Burma
0	0.0	93	0.0	93	Burundi
61	0.0	67	15.3	23	Cambodia
10	0.0	92	1.1	92	Cameroon
1,817	1.2	8	14.9	25	Canada
0	0.0	93	0.0	93	Cape Verde
0	0.0	93	0.0	93	Central African Republic
0	0.0	93	0.0	93	Chad
199	0.1	38	10.0	58	Chile
60,219	39.0	1	37.9	5	China
712	0.5	19	14.0	30	Colombia
0	0.0	93	0.0	93	Congo (Brazzaville)
86	0.1	58	7.2	74	Congo (Kinshasa)
75	0.0	61	10.7	50	Costa Rica
62	0.0	64	9.5	60	Cote d'Ivoire
214	0.1	37	10.7	51	Croatia
81	0.1	60	7.0	75	Cuba
184	0.1	39	17.5	16	Dominican Republic
130	0.1	49	10.0	56	Ecuador
1,136	0.7	11	9.0	61	Egypt
108	0.1	55	8.0	68	El Salvador
0	0.0	93	0.0	93	Eritrea
471	0.3	25	11.2	43	Ethiopia
4,251	2.8	4	7.3	73	EU-27
0	0.0	93	0.0	93	Fiji
47	0.0	74	18.8	13	Georgia
173	0.1	41	10.5	53	Ghana
148	0.1	44	8.0	68	Guatemala
19	0.0	80	3.8	87	Guinea
0	0.0	93	0.0	93	Guinea-Bissau
0	0.0	93	0.0	93	Guyana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국가명	소비량 Total Consumption			자급율 (생산량/소비량)	
	1000MT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아이티	250	0.03	86	100	19
온두라스	1,050	0.13	55	57	85
홍콩	30	0.00	111	0	112
인도	17,500	2.12	6	114	8
인도네시아	9,300	1.13	11	90	65
이란	5,350	0.65	18	36	91
이라크	250	0.03	86	60	82
이스라엘	1,000	0.12	57	0	112
자메이카	250	0.03	86	1	108
일본	16,300	1.97	7	0	111
요르단	350	0.04	80	5	100
카자흐스탄	272	0.03	84	101	18
케냐	3,100	0.38	27	97	55
북한	1,725	0.21	43	91	63
한국	8,700	1.05	13	1	107
쿠웨이트	125	0.02	99	0	112
키르기스스탄	450	0.05	76	100	19
라오스	1,200	0.15	49	129	6
레바논	275	0.03	83	1	106
레소토	163	0.02	97	39	90
리비아	475	0.06	75	0	112
마케도니아	200	0.02	94	75	74
마다가스카	300	0.04	81	100	19
말라위	3,000	0.36	29	100	19
말레이시아	2,900	0.35	31	4	103
말리	650	0.08	67	98	52
모리타니아	17	0.00	116	100	19
멕시코	31,800	3.85	5	77	73
몰도바	1,200	0.15	49	100	19
모로코	2,000	0.24	35	10	97
모잠비크	1,800	0.22	40	83	67
네팔	1,750	0.21	42	97	54
뉴질랜드	165	0.02	96	104	16
니카라과	550	0.07	71	79	72
나이지리아	8,800	1.07	12	99	50
노르웨이	50	0.01	107	0	112
파키스탄	3,000	0.36	29	100	19
파나마	450	0.05	76	19	94
파라과이	600	0.07	69	350	1
페루	3,100	0.38	27	52	88
필리핀	7,200	0.87	15	94	58
러시아	5,200	0.63	19	106	11
르완다	250	0.03	86	100	19
사우디아라비아	1,800	0.22	40	3	104
세네갈	550	0.07	71	83	68
세르비아	4,600	0.56	22	141	5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재고량/소비량)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0	0.0	93	0.0	93	Haiti
132	0.1	47	12.6	35	Honduras
0	0.0	93	0.0	93	Hong Kong
1,091	0.7	13	6.2	80	India
484	0.3	23	5.2	84	Indonesia
1,003	0.7	15	18.7	14	Iran
0	0.0	93	0.0	93	Iraq
53	0.0	70	5.3	83	Israel
15	0.0	87	6.0	82	Jamaica
1,000	0.6	16	6.1	81	Japan
35	0.0	75	10.0	56	Jordan
0	0.0	93	0.0	93	Kazakhstan
314	0.2	33	10.1	55	Kenya
0	0.0	93	0.0	93	Korea, North
1,430	0.9	10	16.4	19	Korea, South
11	0.0	90	8.8	63	Kuwait
51	0.0	72	11.3	41	Kyrgyzstan
305	0.2	34	25.4	9	Laos
19	0.0	80	6.9	76	Lebanon
0	0.0	93	0.0	93	Lesotho
49	0.0	73	10.3	54	Libya
30	0.0	76	15.0	24	Macedonia
24	0.0	77	8.0	68	Madagascar
1,108	0.7	12	36.9	6	Malawi
325	0.2	31	11.2	44	Malaysia
17	0.0	85	2.6	90	Mali
0	0.0	93	0.0	93	Mauritania
3,559	2.3	5	11.2	47	Mexico
169	0.1	42	14.1	29	Moldova
290	0.2	35	14.5	27	Morocco
145	0.1	46	8.1	67	Mozambique
130	0.1	49	7.4	72	Nepal
19	0.0	80	11.5	39	New Zealand
62	0.0	64	11.3	42	Nicaragua
175	0.1	40	2.0	91	Nigeria
0	0.0	93	0.0	93	Norway
391	0.3	26	13.0	33	Pakistan
62	0.0	64	13.8	31	Panama
1,039	0.7	14	173.2	1	Paraguay
264	0.2	36	8.5	66	Peru
703	0.5	20	9.8	59	Philippines
337	0.2	30	6.5	78	Russia
54	0.0	69	21.6	11	Rwanda
116	0.1	54	100.0	2	Saudi Arabia
18	0.0	83	3.3	89	Senegal
1,564	1.0	9	34.0	7	Serbia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국가명	소비량 Total Consumption			자급율 (생산량/소비량)	
	1000MT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시에라리온	50	0.01	107	100	19
싱가폴	25	0.00	114	0	112
소말리아	125	0.02	99	80	69
남아프리카공화국	11,000	1.33	10	114	9
스와질랜드	122	0.01	101	59	84
스위스	260	0.03	85	71	76
시리아	2,100	0.25	34	7	98
타이완	4,800	0.58	21	1	105
타자키스탄	85	0.01	105	94	59
탄자니아	3,550	0.43	26	101	17
태국	4,100	0.50	24	95	56
토고	600	0.07	69	100	19
트리니다드토바고	110	0.01	103	5	101
튀니지	750	0.09	63	0	109
터키	4,100	0.50	24	95	56
투르크메니스탄	50	0.01	107	100	19
우크라이나	1,500	0.18	45	100	19
아랍에미리트연합국	6,100	0.74	17	189	2
미국	287,034	34.77	1	118	7
우루과이	725	0.09	64	69	78
우즈베키스탄	175	0.02	95	91	62
베네수엘라	2,850	0.35	32	53	87
베트남	6,400	0.78	16	86	66
예멘	550	0.07	71	14	96
잠비아	1,900	0.23	38	105	13
짐바브웨	1,250	0.15	48	60	82
합계	825,464	100.00			

자료: PSD, FAS/USDA

표 1 세계 각국 옥수수 수급 통계(2010/11) (계속)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재고량/소비량)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0	0.0	93	0.0	93	Sierra Leone
0	0.0	93	0.0	93	Singapore
14	0.0	88	11.2	45	Somalia
3,232	2.1	6	29.4	8	South Africa
0	0.0	93	0.0	93	Swaziland
11	0.0	90	4.2	86	Switzerland
508	0.3	22	24.2	10	Syria
530	0.3	21	11.0	48	Taiwan
0	0.0	93	0.0	93	Tajikistan
119	0.1	53	3.4	88	Tanzania
351	0.2	29	8.6	65	Thailand
64	0.0	63	10.7	52	Togo
16	0.0	86	14.5	26	Trinidad and Tobago
84	0.1	59	11.2	45	Tunisia
482	0.3	24	11.8	38	Turkey
0	0.0	93	0.0	93	Turkmenistan
130	0.1	49	8.7	64	Ukraine
954	0.6	17	15.6	22	United Arab Emirates
46,189	30.0	2	16.1	21	United States
148	0.1	44	20.4	12	Uruguay
20	0.0	78	100.0	2	Uzbekistan
381	0.2	28	13.4	32	Venezuela
799	0.5	18	12.5	36	Vietnam
71	0.0	62	12.9	34	Yemen
324	0.2	32	17.1	17	Zambia
0	0.0	93	0.0	93	Zimbabwe
154,210	100.0				World

M45-116 세계농업 제116호 (2010. 4)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0년 4월
발 행 2010년 4월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